

한국사연구회

제349차 월례발표회

자 료 집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 13:30~17:00

장소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3층 대회의실 및
ZOOM(대면·비대면 동시진행)

ZOOM ID: 253 266 4989 / PW: v7XCh4

식 순

사회: 박찬우(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제1발표 13:30~14:20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

발표 : 최유림(충북대)

토론 : 이현주(아주대)

제2발표 14:20~15:10

고려·신라 관인의 휴일과 휴가

발표 : 이일규(연세대)

토론 : 정덕기(서울대 기초교육원)

휴식 15:10~15:20

제3발표 15:20~16:10

조선 세종대 수령 파견 양상의 변화와 인견 확대

발표 : 심보람(고려대)

토론 : 송웅섭(충신대)

제4발표 16:10~17:00

18세기 후반, 평안도 시장 통합과 건사의 방적·유통

발표 : 김태홍(연세대)

토론 : 최주희(덕성여대)

목 차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

- 발표문 : 최유림(충북대) 1
- 토론문 : 이현주(아주대) 23

고려·신라 관인의 휴일과 휴가

- 발표문 : 이일규(연세대) 27
- 토론문 : 정덕기(서울대 기초교육원) 51

조선 세종대 수령 파견 양상의 변화와 인건 확대

- 발표문 : 심보람(고려대) 59
- 토론문 : 송웅섭(충신대) 85

18세기 후반, 평안도 시장 통합과 전사의 방적·유통

- 발표문 : 김태홍(연세대) 87
- 토론문 : 최주희(덕성여대) 119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

최유림(충북대)

1. 머리말
2. 한성백제기 유학 지식의 수용과 목적
3. 한성함락 이후 유학 수용 방법의 변화
4. 7세기 유학 지식과 서적의 보급
5. 맺음말

1. 머리말

儒學은 공자와 그 이후 현인들의 말씀을 채록하고 전수한 학문을 의미한다. 중국에서 유학은 사회변동이 요구되던 당시 사회 변화의 학문·사상적 이론을 제공하며 융성해졌다. 유학은 그들이 추구하는 도덕정치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유학이 교리화·생활화되면 儒敎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유학의 모습은 『史記』, 『後漢書』 등에 기록된 箕子에서 처음 엿볼 수 있다. 기자는 은나라의 국운이 쇠할 당시 조선으로 피난 와서 八條의 約을 만들고 조선 사람들을 교화시켰다고 한다.¹⁾ 기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유학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는 조선을 거쳐 근현대까지 이어졌다.²⁾ 반면 기자조선설을 따르고 있지 않으나 고조선의 준왕이 위만에 패하여 韓 지역으로 도주했다는 기록을 근거로,³⁾ 유학 수용의 시기를 기원전 2세기로 파악하는 견해도 존재한다.⁴⁾

이병도는 『한국유학사』에서 한사군 설치 이후 군현과 가까운 韓 세력들이 중국의 물질문

1) 『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論曰, 昔箕子違衰殷之運, 避地朝鮮. 始其國俗未有聞也, 及施八條之約, 使人知禁, 遂乃邑無淫盜, 門不夜扃, 回頑薄之俗, 就寬略之法, 行數百千年, 故東夷通以柔謹爲風, 異乎三方者也. 苟政之所暢, 則道義存焉. 仲尼懷憤, 以爲九夷可居. 或疑其陋.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亦徒有以焉爾.”

2) 金瑗根, 1915, 「朝鮮儒敎淵源」 『公道』 제2권 제 2호, 公道社, 24~30쪽 ; 張志淵, 1922, 『朝鮮儒敎淵源』, 匯東書館 ; 張志淵 著·柳正東 譯, 1973, 『朝鮮儒敎淵源(上)』, 三星文化財團 ; 柳南相, 1975, 「百濟儒學의 基盤과 本質 探究를 爲한 試圖」 『百濟研究』 6,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3)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 韓, “及漢以盧綰爲燕王, 朝鮮與燕界於涓水.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涓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中國亡命爲朝鮮藩屏.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4) 金昌錫, 2005, 「한성기 백제의 유교문화와 그 성립 과정」 『郷土서울』 6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51~55쪽.

화뿐만 아니라 유학을 포함한 정신문화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⁵⁾ 『한국유학사』 이후 역사 학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수용한 시점과 경로를 한사군으로 보는데 대략적으로 동의 하고 있다. 다만 이병도 역시 그의 저서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사료가 없기 때문에 한자의 사용, 물질문화의 유통 등 간접 자료에 의해 정황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에서 우리나라 삼국시대 유학은 불교와 함께 고대 국가를 이룬 사상적 기반으로 기능하였다고 정리되었다.

백제사에서 본격적인 유학 연구는 신라와 고구려에 비해 그 시작이 늦었다. 일제강점기 연구자들은 백제 유학을 크게 다루지 않았다. 이후 박사와 22부사 등 중앙정치체제에서 중 국의 영향을 강조하며 연구되었다. 백제 유학 연구에서는 백제가 그 자연환경과 지리적 이 점으로 중국의 영향이 농후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병도는 『한국유학사』에서 백제 유학 관련 사료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근초고왕대 박사 고흥을 오경박사와 같은 성격으로 파악하고, 『양서』와 『주서』에서 백제에 관한 서술을 중국 문화의 영향을 깊게 받고 있었다 고 보았다.⁶⁾ 더 나아가 이기동은 백제 육좌평 등 정치체제에 깃들여 있는 『주례』주의적 정 치이념이 6세기 초반에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 역사상 『주례』적 정치이념이 지속 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열망했던 시기에 도입된 사실에 착안하였다. 백제는 한 성함락 이후 통일된 사상이 필요하였으며 중국의 영향을 깊게 받은 백제인들이 『주례』를 차용했다는 것이다.⁷⁾ 결국 ‘한성 함락’을 새로운 사회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 는 이 글의 주제인 유학 지식과 서적의 방법 변화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근래 금석문과 논어 목간 등 문자자료의 발굴은 백제 유학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다. 2014 년 <진법자 묘지명>이 국내에 소개되었고, 태학의 존재와 관원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 다.⁸⁾ 그리고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의 『논어』 목간을 비롯해 평양 정백동 364호 낙랑묘, 경남 봉황동유적, 인천 계양산성 등에서 『논어』 죽간·목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한반 도에 『논어』가 전파되는 과정을 살피고, 백제에 유학 서적의 보급과 교육 수준을 알 수 있 는 자료로서 활용되었다.⁹⁾

5) 李丙燾, 1987,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6~10쪽. 『한국유학사』는 이병도가 1959년 작성한 『자 료한국유학사초고』를 정리하여 1987년 출판되었다. 『한국유학사』의 출판이 다른 유학 연구에 비 해 시기적으로 늦으나 그의 견해가 『한국유학사초고』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려하였다. 이병도의 『 한국유학사』는 도학과 도통 중심에서 벗어난 근대적 연구로 평가되나 유학을 외래사상으로서만 인식했다는 비판도 따른다(최영성, 2019, 「이병도(李丙燾), 『자료한국유학사초고(資料韓國儒學史草 藁)』-한국유학사의 근대적 출발」, 『韓國思想史學』 61, 韓國思想史學會).

6) 李丙燾, 1987, 위 책, 25~30쪽.

7)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특히 ‘周禮’主義의 정치이념과 관련하여」, 『震檀 學報』 69, 震檀學會.

8) 김영관, 2014, 「百濟 遺民 陳法子 墓誌銘 研究」,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18~119쪽 ; 정동준, 2014,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제」, 『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 사학회, 190~192쪽 ; 김영심, 2014,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한국고대사연구』 75, 한 국고대사학회, 197~199쪽 ; 박賢淑, 2014, 「백제 太學의 설립과 정비 과정」, 『역사교육』 132, 역사교 육연구회, 105~126쪽 ; 배재훈, 2015, 「백제의 태학」, 『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1~47쪽.

9) 김성식·한지아, 2018,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 자』 21, 한국목간학회, 344~347쪽 ; 정동준, 2020a, 「동아시아의 典籍交流와 『論語』 목간」, 『목간과 문자』 24, 한국목간학회, 39~52쪽.

이상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백제에 유학이 들어와 있던 양상과 유학 수용의 의미를 밝혀 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유학 지식의 수용 과정과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 유학의 전수에서 ‘경전’은 유학의 교리와 지식을 전하는데 중요한 매체 역할을 하였다. 이때 경전은 서적이라는 유형의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학문이라는 무형의 정신문화로도 분류된다. 즉 유학 지식의 보급이란 학문이라는 보이지 않는 문화가 서적의 형태로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서행정 체계나 종이 사용, 인쇄술이 널리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유학에 내포한 사상의 전수에는 국자감, 태학 등 공적 교육기관에 소속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했다.¹⁰⁾ 결과적으로 중국의 유학 지식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아는 소수의 지배층과 지식인들에 의해 漢文으로 된 서적 형태로 전파되었다. 그러므로 유학 지식의 보급을 위해서는 전달자(교수자)와 학습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¹¹⁾

이 글에서는 유학 지식의 이동과 전파라는 구조 안에서 백제가 유학 지식과 서적을 수용한 방법과 목적을 고찰해보고, 백제에서 읽혀졌던 유학 서적의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한성도읍기 백제의 유학 지식 수용법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2장에서 한성 함락 이후 백제의 변화된 유학 수용법을 검토하고, 3장에서 7세기대 백제 지배층에 보급되고 있던 유학서적을 살피고자 한다.

2. 한성백제기 유학 지식의 수용과 목적

유가의 경전으로는 『易經』, 『書經』, 『詩經』, 『禮經』, 『春秋』 등 5경이 알려져 있다. 전한 성제(재위 기원전 33~기원전 7)와 애제(재위 기원전 7~기원전 1)대 劉向과 그의 아들 劉歆은 황제의 명으로 전국~진대를 거치며 흩어져있던 서적들의 편목을 분류하는 법을 작성했다. 이를 7略이라 하며 그 안에 6藝 즉 6經이 있었다.¹²⁾ 이 당시 6經에는 『易經』, 『書經』, 『詩經』, 『禮經』, 『樂經』, 『春秋』가 있었으며, 여러 학자들은 정치 및 교화에서 6경의 가르침과 효용을 논하였다. 이후 『樂經』이 失傳되면서 5경이 되었다.¹³⁾

10)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한대 경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305~319쪽.

11) 히라노 겐이치로는 『국제문화론』에서 외부의 문화요소를 이동시키기 위해 사람과 미디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을 수용자와 제공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①유학생, 고용외국인, ②선교사, 식민지 행정관, ③기술협력자, ④여행자로 나누었다(히라노 겐이치로 지음·장인성 외 옮김, 2004, 『국제문화론』, 풀빛, 98~111쪽).

12) 『漢書』卷30 志10 藝文, “至成帝時, 以書頗散亡, 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 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諸子詩賦, 步兵校尉任宏校兵書, 太史令尹咸校數術, 侍醫李柱國校方技. 每一書已, 向輒條其篇目, 撮其指意, 錄而奏之. 會向卒, 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 歆於是總群書而奏其七略, 故有輯略, 有六藝略, 有諸子略, 有詩賦略, 有兵書略, 有術數略, 有方技略. 今刪其要, 以備篇籍.”

13)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註, 2002, 『儒教經典과 經學』, 景仁文化社, 13쪽 ;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앞 책, 134~135쪽 ; 유사배 지음·이영호 외 옮김, 2020, 『중국경학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41~42쪽. 『악경』의 失傳에 대해 고문학과 금문학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였다. 고문학에서는 분서갱유로 인해 소실되었음을 주장하였고, 금문학에서는 『악』이 이미 『시』와 『예』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때 經은 성인의 말씀으로 불변하는 도와 법칙을 의미한다. 이를 현인이나 제자들이 풀어서 의미를 전하고자 한 것을 傳 혹은 記 등이라 하며, 시대를 거쳐 각 경에는 수많은 傳과 記가 작성되었다. 당대에 이르러 『역경』, 『서경』, 『시경』은 각각 『周易』, 『尙書』, 『毛詩』로, 『예경』은 『周禮』, 『儀禮』, 『禮記』의 3禮, 『춘추』는 『春秋左氏傳』, 『春秋公羊傳』, 『春秋穀梁傳』의 3傳으로 정리되어 주를 이루었다.¹⁴⁾

중국 왕조에서 유학 경전의 변화상 즉 경학의 발전은 이를 둘러싼 주변국 특히 동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기록에서는 대체로 주변 민족이 중국에 서적을 요청하면, 중국 왕조에서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중국 왕조에서 주변국의 서적 요청을 반대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당창국에서는 남제 세조 영명 6년(488) 軍儀와 伎雜書를 요청하였으나 세조는 예에 따라 바깥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하며, 『오경집주』와 『논어』만을 주었다.¹⁵⁾ 더욱 토번으로 시집간 금성공주는 당에 『모시』, 『예기』, 『좌전』, 『문선』 등을 사신을 통해 요청했다. 그러나 于休烈은 經籍이 나라의 진범이자 전략·전술이며, 오랑캐가 이에 통달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상소를 올려 금성공주의 청을 거절하자고 하였다.¹⁶⁾ 이를 미루어보면, 중국왕조 내의 사정에 따라 서적 유출의 제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유학 서적은 각 국에서 한 번에 수용했다기 보다는, 제공자인 중국 왕조의 내부정치 상황, 수용자 측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흐름에서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 방법 및 목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백제에서 유학 서적의 명칭은 한성백제기부터 나타난다. 서적명은 백제에 서적이 보급되고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5경 가운데 『서경』이 읽혀졌다는 기록이나 정황 등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외 『역경』, 『시경』, 『예경』, 『춘추』나 그 해설서는 앞선 시기부터 이미 보급되고 있었다.

A-1) (은조왕 26년 가을 7월) 왕이 말하기를, “마한이 점점 약해지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마음이 갈리어 그 형세가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다. 만일 남에게 병합된다면 屠亡齒寒이니, 후회하더라도 이미 늦을 것이다. 차라리 남보다 먼저 손에 넣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겨울 10월 왕이 군사를 내어 길으로는 사냥을 간다고 말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마침내 그 국읍을 병합하였다.¹⁷⁾

14) 本田成之, 1927, 『支那經學史論』, 弘文堂, 3~305쪽.

15) 『南齊書』 卷95 列傳40 宕昌, “(永明) 六年 … 使求軍儀及伎雜書, 詔報曰, 知須軍儀等九種, 並非所愛. 但軍器種甚多, 致之未易. 內伎不堪涉遠. 閣圖書, 例不外出. 五經集注論, 今特賜王各一部.”

16) 『舊唐書』 卷196 列傳146(상) 吐蕃(상), “正字于休烈上疏請曰, 臣聞戎狄, 國之寇也. 經籍, 國之典也. 戎之生心, 不可以無備. 典有恆制, 不可以假人. 傳曰, 裔不謀夏, 夷不亂華. 所以格其非心, 在乎有備無患. 昔東平王入朝求史記諸子漢帝不與. 蓋以史記多兵謀, 諸子雜詭術. 夫以東平, 漢之懿戚, 尚不欲示征戰之書. 今西戎, 國之寇讎, 豈可貽經典之事. 且臣聞吐蕃之性, 慄悍果決, 敏情持銳, 善學不迴. 若達於書, 必能知戰. 深於詩, 則知武夫有師干之試. 深於禮, 則知月令有興廢之兵. 深於傳, 則知用師多詭詐之計. 深於文, 則知往來有書檄之制. 何異借寇兵而資盜糧也. 臣聞魯秉周禮, 齊不加兵. 吳獲乘車, 楚疲奔命. 一以守典存國, 一以喪法危邦, 可取鑒也. 且公主下嫁從人, 遠適異國, 合慕夷禮, 返求良書, 愚臣料之, 恐非公主本意也. 慮有奔北之類, 勸教於中. 若陛下慮失蕃情, 以備國信, 必不得已, 請去春秋. 當周德既衰, 諸侯強盛, 禮樂自出, 戰伐交興, 情僞於是乎生, 變詐於是乎起, 則有以臣召君之事, 取威定霸之名. 若與此書, 國之患也. 傳曰, 于奚請曲縣鞶纓, 仲尼曰, 惜也, 不如多與之邑. 惟名與器, 不可假人. 狄固貪婪, 貴貨易土, 正可錫之錦綺, 厚以玉帛, 何必率從其求, 以資其智. 臣忝叨列位, 職刊祕籍, 實痛經典, 棄在戎夷. 昧死上聞, 惟陛下深察. 疏奏不省.”

A-1)에서는 온조왕이 재위 26년(8) 마한을 병합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때 온조왕은 마한 병합의 명분으로 마한과 백제의 관계를 순망치한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순망치한은 『춘추좌씨전』 魯僖公 5년(기원전 655)에서 유래된 고사이다.¹⁸⁾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A-1)에 적용하였을 때 마한이 없으면 그 다음 백제에 위협이 가해진다고 해석된다.

A-1) 기사의 시기와 내용은 『삼국사기』 초기기록 신뢰성 문제로 인해 그대로 취신하기 어렵다. 마한이 외부 세력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바로 이어 백제가 마한을 습격해 병합한 사실을 근거로 시기를 유추해볼 수 있다. 백제는 3세기 중반 기리영 전투를 겪고, 372년 무렵 마한이 아닌 백제로서 진나라에 조공한다. 이때 근초고왕은 鎮東將軍 領樂浪太守를 제수받았다.¹⁹⁾ 이는 백제가 옛 낙랑·대방 지역에 대한 정치적 우위를 지니며 마한의 맹주국이 되었음을 의미한다.²⁰⁾

즉 온조왕 대 마한 병합 기사는 마한이 쇠퇴하고 백제가 우위를 차지하는 고이왕부터 근초고왕 대까지의 기록이 소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 사실은 3~4세기대로 추측할 수 있으나, 이를 곧 고사가 반영된 시점이라 파악하기에는 불명확한 점이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저본이 되는 원전 자료의 저술 시기와 그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의 발생 시점과 고사의 인용 시점은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료를 살펴보고자 한다.

A-2) (책계왕 1년) 고구려가 帶方을 치려하자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이보다 앞서 왕이 帶方王女 寶菓에게 장가들어 夫人으로 삼았다. 이로 인해 말하기를 “대방은 우리와 舅甥之國이다. 그 청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드디어 군사를 내어 그들을 구하였다. 고구려가 원망했다. 왕이 그들의 침입과 도적질을 염려하여, 阿旦城과 蛇城을 수리하고 대비하였다.²¹⁾

A-2) 기사에서는 책계왕 1년(286) 고구려가 대방을 공격하자, 대방이 백제에 구원 요청을 하였다고 한다. 이때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라고 하며, 이어 백제와 대방의 관계를 舅甥之國라 하고 있다.²²⁾ ‘舅甥之國’은 백제가 대방에 군대를 지원해주는 명분이 되었다. 보과부

17)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6年 “秋7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儻爲他所并, 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18) 『春秋左氏傳』 魯僖公 5年 丙寅, “諺所謂輔車相依, 唇亡齒寒者, 其虞虢之謂也.”

19)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 『晉書』 卷9 帝紀9 簡文帝 咸安 二年 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各遣使貢方物. …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 領樂浪太守”.

20) 권오영, 2001, 「백제국(百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53쪽 ;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153~156쪽.

21)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責稽王 1年,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旦城蛇城備之.”

22) 이기백은 眞氏 왕비족을 검토하며 ‘舅’字의 의미를 母의 兄弟, 夫의 父, 妻의 父, 妻의 兄弟로

인이 책계왕과 혼인한 사이이므로, ‘부인의 나라’라는 사실도 명분이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왕과 사위의 나라’라 하였다. 가족의 가장 기초적 단위인 부부라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舅國과 甥國이라는 집단 사이의 공적 이해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舅甥之國은 舅(모족, 처족)와 甥의 나라라는 인척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반면 나라와 나라 사이의 맹약을 확인할 때에도 언급되었다. 『춘추좌씨전』에서는 魯나라 襄仲이 齊나라에 납폐하러 가는 과정에서 “凡君即位, 好舅甥, 修昏姻, 娶元妃以奉粢盛, 孝也.”라 하여, 왕이 즉위한 이후 舅와 甥 간에 우호를 다질 것을 언급하고 있다.²³⁾ 『삼국사기』의 책계왕 즉위년 기록에서 舅와 甥은 語義 그대로 각각 대방왕과 책계왕 개인을 의미한다기보다, 대방과 백제 즉 나라 대 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백제가 고구려의 침입을 염려하면서도 출병했다는 점은 구생국 간의 우호를 다지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더욱 A-1)과 달리 『춘추좌씨전』의 고사를 직접 인용하기보다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백제는 이 무렵 대방과 관계에서 『춘추좌씨전』의 맹약 관계를 차용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A-1)에서 백제의 마한 공격은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²⁴⁾라 하여 “몰래 습격했다”고 한다. ‘襲’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지만,²⁵⁾ 마한을 몰래 습격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마한 병합에는 당위성이 충분하다 여겨지지 않는다. 따라서 백제는 마한을 병합하는데 『춘추좌씨전』의 순망치한의 고사를 인용하여 그 명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반면 A-2) 책계왕 대 고구려 견제의 명분으로 대방과 구생지국의 우호를 들고 있다. 백제는 『춘추좌씨전』에서 생존 수단을 위한 명분과 의리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국익과 국제관계에 따라 순망치한의 태도를 취하거나 구생지국의 맹약을 맺는 방법을 터득했을 것이다.²⁶⁾

『춘추좌씨전』은 좌구명이 『춘추』를 해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前漢 당시 『춘추』에는 『좌씨전』을 비롯해 『公羊傳』, 『穀梁傳』, 『鄒氏傳』, 『夾氏傳』의 해설서가 있었다. 『추씨전』은 스승이 없고 『협씨전』은 남아 있는 책이 없어 이어지지 못하였다. 후한대 네 차례 今古文 논쟁이 이어졌으며, 그 결과 古文이었던 『좌씨전』이 우위를 확보하였다.²⁷⁾ 이는 『춘추좌씨

폭넓게 해석하였다(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32~33쪽). 이는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친족, 모족, 처족이라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게 한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책계왕조에서는 보과를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대방을 舅甥之國이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妻의 父로 해석하여 ‘장인과 사위의 나라’로 봄이 적절하다.

23) 『春秋左氏傳』 魯文公(上) 二年 丙申, “襄仲如齊納幣, 禮也. 凡君即位, 好舅甥, 修昏姻, 娶元妃以奉粢盛, 孝也.”

24) 『三國史記』 卷23 百濟本紀1 溫祚王 26年 冬10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25) 정구복, 2004,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164쪽.

26) 관련 연구에서는 『춘추좌씨전』에서 확인되는 盟의 유형을 힘의 원리가 기반이 된 유형(召陵之盟), 이익이나 필요에 의한 합의(落姑之盟), 德禮信에 근거한 맹약(葵丘之盟)으로 분류하였다(김종백, 2021,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중심으로」, 『退溪學論集』 28, 영남퇴계학연구원, 330~345쪽). 그리고 『춘추좌씨전』은 전쟁을 도덕적 즉 義戰으로 합리화하는데 활용되었다(윤대식, 2013, 「『春秋左氏傳』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 『정치사상연구』 19(2), 한국정치사상학회, 49~51쪽).

27) 『漢書』 卷30 志10 藝文, “春秋古經十二篇, 經十一卷. 公羊穀梁二家. 左氏傳三十卷. 左丘明, 魯太史. 公羊傳十一卷. 公羊子, 齊人. 穀梁傳十一卷. 穀梁子, 魯人. 鄒氏傳十一卷. 夾氏傳十一卷. 有錄無書. … 及末世口說流行, 故有公羊穀梁鄒夾之傳. 四家之中, 公羊穀梁立於學官, 鄒氏無師, 夾氏未有

전』의 서술 특징과 관련이 있다. 『춘추좌씨전』은 주공이 제정한 예법을 이상으로 삼고 주왕실의 지난 역사의 태평을 치하하며 현왕조의 존속과 번영을 긍정한다.²⁸⁾ 따라서 백제는 현상황의 유지와 앞으로의 번영을 위한 지침서로 『춘추좌씨전』을 읽었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대로 3~4세기 백제를 둘러싼 한반도의 분위기는 韓의 소국과 한군현, 고구려 등 여러 세력의 힘의 우열관계가 드러나고 서로 견제하는 상황이었다. 4세기 백제는 마한을 병합하고 낙랑·대방지역의 상징적 지위를 얻었으며 영역 확장을 비롯하여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백제의 영역과 지배기반이 확대될수록 전체 통일적 지배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각 세력들의 독자성은 약화되었다.²⁹⁾ 백제는 통일되지 않은 국제 환경에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춘추좌씨전』을 수용했다고 생각한다.

근초고왕 대는 박사 고흥을 얻어 일을 기록하고,書記가 있었다. 書記가 완벽한 역사서의 형태는 아닐지라도, 당시 백제는 공무를 기록하고 지난 역사를 정리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³⁰⁾ 『일본서기』에서는 백제인인 아직기와 왕인이 박사로서 경전과 전적에 해박했음을 들고 있으며, 『고사기』에서는 이 당시 백제가 왜에 『천자문』과 『논어』를 전해주었다고 하고 있다.³¹⁾ 아직기와 왕인 전승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나, 『삼국사기』를 비롯하여 일본고대사 사료에서 근초고왕대 박사와 漢籍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은 신뢰할 수 있다.³²⁾ 결국 3세기 후반 『춘추좌씨전』이 수용되었으며, 근초고왕 대 기록으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중국의 정치적 환경과 백제를 둘러싼 국제관계는 중국과 백제의 직접 교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진서』에서는 진무제(재위 265~290) 대 새로 복속한 四夷가 23개 국에 이르렀으나 東晉으로 천도(317)하며 조공을 바치는 예가 끊어져 풍속을 알 수 있는 곳만을 대상으로 傳을 두었다고 한다.³³⁾ 『진서』 동이전에는 韓傳이 입전되었으나, 위치 및 풍속 관련 내용은 『

書.” ;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註, 2002, 앞 책, 344~358쪽 ; 김동민, 2007, 「經學 今古文論爭과 賈逵의 左氏學」 『동양철학연구』 51, 동양철학연구회, 184~220쪽 ;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앞 책, 423~442쪽.

28) 鎌田正, 1963, 『左傳の成立と其の展開』, 大修館書店, 765쪽.

29)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54~162쪽.

30)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近肖古王 30年 冬11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 근초고왕 대 역사서의 편찬을 두고, 박사 고흥에 의해 書記가 편찬되었다고 하는 견해(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震檀學會, 571~572쪽 ; 노중국, 2018, 앞 책, 212쪽 ; 전덕재, 2022, 「삼국시대 역사서의 내용과 성격」 『震檀學報』 138, 震檀學會, 9쪽)와 문서 기록이나 지난 역사의 체록으로 보는 견해(김창석, 2016, 「中國系 인물의 百濟 유입과 활동 양상」 『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84쪽)가 있다. 두 견해는 書記를 역사서로 보느냐에 대한 견해 차는 있지만, 근초고왕 대 어떠한 형태로든 과거 사실의 정리가 이루어졌음은 인정한다.

31) 『日本書紀』 卷10 應神 15年 秋8月 壬戌朔丁卯, “百濟王遣阿直伎, 貢良馬二匹, 即養於輕坂上廐, 因以阿直岐令掌飼, 故號其養馬之處, 曰廐坂也. 阿直岐亦能讀經典, 即太子菟道稚郎子師焉. 於是, 天皇問阿直岐曰, 如勝汝博士亦有耶, 對曰, 有王仁者, 是秀也. 時遣上毛野君祖荒田別巫別於百濟, 仍徵王仁也.” ; 『古事記』 中卷 應神段, “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壹疋牝馬壹疋, 付阿知吉師, 以貢上. 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即論語十卷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人即貢進. 此和邇吉師者, 文首等祖.”

32) 양기석, 2013,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133쪽.

33) 『晉書』 卷97 列傳67 四夷, “武帝受終衰魏, 廓境全吳, 威略既申, 招攜斯廣, 迷亂華之議, 矜來遠之名, 撫舊懷新, 歲時無怠, 凡四夷入貢者, 有二十三國. 既而惠皇失德, 中宗遷播, 凶徒分據, 天邑傾淪, 朝化所覃, 江外而已. 賸貢之禮, 於茲殆絕, 殊風異俗, 所未能詳. 故採其可知者, 爲之傳云.”

삼국지』를 정리·축약한 정도이다. 그리고 마한과 진나라의 교류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는 중국이 마한에서 백제로 이행 과정이나 사회 변화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백제가 한적과 중국 문물 수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거나 나설 수 없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이 당시 한적은 주로 한군현과 중국계 유이민을 통해 유형의 서적이라는 제한적 형태로 수용될 수밖에 없었다. 이전 시기 중국의 혼란한 상황을 틈타 한군현 세력이 한반도 남부로 유입되고, 백제와 같이 한군현과 가까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한군현 세력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마한·백제 지역으로 직접 건너온 세력들이 세대를 거치며 차차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³⁴⁾ 대체로 이들을 중국계 유식자층으로, 이들이 한성백제의 제도 정비에 기여했다고 판단한다.³⁵⁾

백제는 이들로 인하여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문물과 지식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지속적인 체재는 향후 백제에서 유학 서적을 수용하는데 수월하게 도움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이 혼란한 틈을 타 이주한 자들로서, 중국 왕조가 지향하는 국가 유학교육 시스템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³⁶⁾ 따라서 이들의 전수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학 지식과 서적은 백제 사회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만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불어 백제인들 역시 수준 높은 유학 지식을 함양할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유형의 서적을 수용하는 분위기는 한성백제기에 줄곧 이어졌다.

A-3) 元嘉 27년 毗伽 書를 올리고 方物을 바치며 사사로이 臺使 馮野夫를 西河太守로 삼을 것을 주언해 주고 표문으로 『易林』, 式占 및 腰弩를 요구하였다. 太祖는 모두 들어 주었다.³⁷⁾

A-3)은 『송서』 권97 이만열전 백제국조이다. 원가 27년(450, 비유왕 24) 백제 비유왕은 유송에 臺使 馮野夫의 西河太守 임명을 요청하고 『易林』, 式占 및 腰弩를 구하였다. 유송 문제는 백제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때 『역림』은 『역』의 한 종류이다. 『역』은 복서와 관련 있다 하여 분서갱유를 피해 전수될 수 있었으며, 전한 대 施讎學派, 孟喜學派, 梁丘賀學派, 京房學派 즉 四家が 있었다. 『역림』의 저자로 알려진 초연수는 경방학과 역은 술수과라 하여 술수와 음양재이로 역을 해석하였다.³⁸⁾

西晉 말 영가의 난(311) 이후 경방학과만 남았으며, 위진남북조 들어 정현과 왕필의 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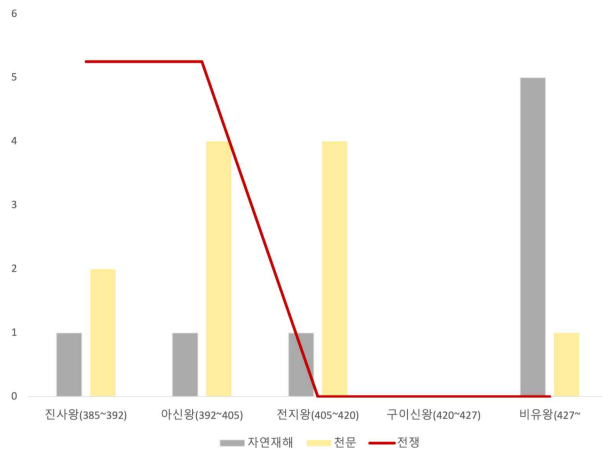
34)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 김영관, 2014, 앞 논문, 114~116쪽.

35) 朴賢淑, 2014, 앞 논문, 113~114쪽 ;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78~89쪽. 더 나아가 대방 출신의 후예들이 각종 제도와 운용 방식 등을 대대로 이어가며 백제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동준, 2020a, 앞 논문, 49쪽).

36) 대방군은 공손씨 정권에 의해 설치되어 중원과 깊은 관계를 갖지 못했다(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238쪽 ;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大丘史學』 105, 대구사학회, 3~10쪽).

37) 『宋書』 卷97 列傳57 夷蠻 百濟國, “(元嘉)二十七年, 毗伽上書獻方物, 私假臺使馮野夫西河太守, 表求易林式占腰弩. 太祖並與之.”

38)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앞 책, 397~419쪽.



<그림 1> 진사왕~비유왕 대 자연재해, 천문, 전쟁 기록

비롯하여 여러 주석서가 성행하였다. 그럼에도 백제는 『역림』을 요구하였다. 이때 백제가 같이 요구한 식점은 『당육전』에서 뇌공식, 태일식, 육임식의 같고 다른 점을 변별하여 천체를 관측하고 길흉을 점치는 방법 중 하나이다.³⁹⁾ 『당육전』의 식점이 백제에서 요구한 식점과 동일하다면, 백제는 유송에 복서의 경향이 강한 경전과 점복을 요청했다고 여겨진다.⁴⁰⁾

이는 백제의 유학 서적 수용이 유학에 기반한 정치체도의 성립을 ‘목적’으로 했다가 보다, 당장의 직면한 문제를 해결

하는 ‘수단’으로서 현세적인 성격이 강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서 고구려의 침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진사왕 대부터 백제가 유송에 『역림』을 요청하는 450년까지의 자연재해(서리, 가뭄, 無水, 지진)와 천문 관측, 그리고 전쟁 기록을 정리하였다(그림 1). 고구려와 전쟁은 전지왕 대부터 소강상태로, 백제는 일시적 안정기를 맞이했다. 다만 비유왕 대 들어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전 진사왕 대 서리 1회, 아신왕 대 가뭄 1회, 전지왕 대 가뭄 1회였다면, 비유왕 대는 가뭄 3회, 無水 1회, 지진 1회로 종류가 늘어나고 빈도 역시 증가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생존을 위해 신라로 이탈하기도 했다.⁴¹⁾

비유왕 대는 이전 시기 고구려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영토를 돌보고 대민 지배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정치적 여유가 있었다. 이에 대민구제 정책 실시와 대비책의 일환으로,⁴²⁾ 『역림』과 식점을 유송에 요청하였다고 생각된다. 유송에서는 백제의 요청을 들어주며, 백제에 『역림』이 서적의 형태로 수용되었다.

정리하면 한성백제기 유학 서적의 수용은 한군현 및 중국에서 직접 건너온 집단에 의해 수용되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국 왕조에서 설립한 학교 교육을 원활히 수행했던 자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한 유학 서적의 내용과 의미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백제는 유교적 정치시스템의 차용보다 당장 직면한 전쟁의 명분, 대민 지배 등 현실 정치에서의 응용

39) 『唐六典』 卷14 太常寺, “凡式占辨三式之同異. … 皆辨其象數, 通其消息, 所以定吉凶焉.”

40) 중국에서 유학은 전국~전한기를 거치며 법가, 음양오행, 도가, 미신 등에 영향을 받았다(장백잡지음·전병수 옮김, 2019, 『중국경학략사』, 수류화개, 58~79쪽). 이와 같은 기조는 위진대 다시 일어났다. 즉 사회 혼란기일수록 유학이 여러 학문과 융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백제에서 『역림』의 수용도 이와 같은 흐름의 연장이라고 생각된다.

41)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21年 秋7月, “旱, 穀不熟, 民饑, 流入新羅者多.”

42) 朴賢淑, 2007, 「백제 한성시기 流民의 발생과 對民支配의 양상」 『先史와 古代』 27, 한국고대학회, 60~67쪽; 김영관, 2020,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자연재해와 민간의 대응」 『白山學報』 118, 白山學會, 302~308쪽. 이와 관련하여 비유왕 2년(428) 2월 왕이 4부를 巡撫하고 가난한 자에게 곡식을 차등있게 주었는데(『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毗有王 2年 春2月, “王巡撫四部, 賜貧乏穀有差.”), 비유왕 9년(312) 2월 사신을 보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 준 일(『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2 比流王 九年 春二月, “發使巡問百姓疾苦, 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 賜穀人三石.”) 이후 처음인데다 왕이 직접 순무하고 있어 당시 정세와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현세적 목적을 위해 유학 서적을 수용했다.

3. 한성함락 이후 유학 수용 방법의 변화

475년 고구려가 백제 한성을 공격한 결과 한성이 함락되었다. 이는 백제가 지난 시간 동안 구축했던 문화 기반이 와해되는 요인이었다. 성이 파괴되고 왕이 사망하였으며 남녀 8,000명이 붙잡혀 갔다.⁴³⁾ 유형의 물질문화는 전쟁의 결과로 인해 폐허가 되었고, 중국과 교류로 얻은 서적들 역시 소훼되었을 것이다.⁴⁴⁾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유학 서적을 재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서적을 수용하던 방법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중 하나로 동성왕 6년(484) 가을 7월 丙法佐平 沙若思를 남제에 파견하였다.⁴⁵⁾ 禮儀를 관장하는 내법좌평을 남제로 보냈다는 사실은, 백제가 중국과 교류에서 한성함락으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의 적극적인 표명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사행은 남제로 가는 도중 고구려 병사를 만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백제는 곧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된다. 바로 중국 왕조에 유학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를 요청하는 것이다.

B-1) 陸詡는 어려서 崔靈恩에게 三禮義宗을 배웠고, 양나라대 百濟國이 表을 올려 講禮博士를 구하자 詔令으로 詡가 갔다. 돌아와 給事中 定陽令을 제수받았다. 天嘉 초에 始興王 伯茂를 모시고 讀하였고, 옮겨 尙書祠部郎에 있었다.⁴⁶⁾

B-2) 中大通 6년과 大同 7년 누차 사신을 보내 方物을 바치고, 아울러 涅槃經 등 經義와 毛詩博士 및 工匠·畫師 등을 구하므로 그것을 모두 주도록 敕하였다.⁴⁷⁾

육후는 어려서 崔靈恩에게 『三禮義宗』을 배웠다. 그리고 양나라 대(502~557) 백제의 요청

43)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63年 9月, “王帥兵三萬, 侵百濟, 陷王所都漢城, 殺其王扶餘慶, 虜男女八千而歸.” ;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文周王, “文周王, 或作汶洲, 蓋鹵王之子也. … 麗兵雖退, 城破王死.” ; 『日本書紀』 卷14 雄略 20年 冬,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貊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 國王及太后, 王子等, 皆沒敵手.”

44) 조선조 임진왜란 당시 충주와 성주 외사고가 불타버린 사건은 전란으로 인해 서적이 소훼된 대표적 사례이다. 조선 초 외사고는 교통이 편리한 충주, 전주, 성주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교통의 이점은 오히려 외사고 소실의 결정적 이유가 되었다. 그러자 조선 후기에는 산간, 도서 지방의 오지를 택하여 외사고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로 인해 오대산, 태백산, 마니산, 묘향산, 춘추관 사고를 새로 설치하게 된다(김성희, 2014, 「조선 시기 외사고의 변천과 오대산사고」 『동국사학』 5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123~137쪽). 이렇듯 전란은 서적의 유통과 보관의 변화·발전의 직접적 계기가 된다.

45)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6年 秋7月, “遣丙法佐平沙若思, 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遇高句麗兵, 不進.”

46) 『陳書』 卷33 列傳27 儒林 陸詡, “陸詡, 少習崔靈恩三禮義宗, 梁世百濟國表求講禮博士, 詔令詡行. 還除給事中, 定陽令. 天嘉初, 侍始興王伯茂讀, 遷尙書祠部郎中.”

47) 『梁書』 卷54 列傳48 諸夷 東夷 百濟, “中大通六年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并請涅槃等經義毛詩博士, 并工匠畫師等, 敕並給之.”

에 의해 강례박사로 왔다. 귀국 후 給事中 定陽令을 제수받고, 始興王 伯茂의 侍讀과 天嘉 연간(560~566) 尚書祠部郎의 자리에 있었다(B-1). 육후는 晉陵의 張崖, 吳興의 沈德威, 會稽의 賀德基와 함께 禮學으로 자명했다.⁴⁸⁾ 육후의 스승인 최영은은 위나라 太常博士로 있었으며, 514년 양나라로 와 步兵校尉 겸 國子博士를 지냈다. 그는 三禮와 三傳에 정통했다는 것처럼, 각종 경전의 주석서와 『삼례의종』 등을 남겼다.⁴⁹⁾ 한편 B-2)는 『양서』 권54 백제전이다. 같은 기록이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19년(541)에도 전한다.⁵⁰⁾ 백제는 이때 양나라에 모시박사와 열반경 등의 경전과 해설서 및 공장과 화사 등을 요청했다. 양에서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양나라의 모시박사는 백제로 건너왔을 것이다.

위 B)의 두 기사에서 백제가 유학 지식을 수용하는 방법에 변화를 시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백제는 한성기 중국에 서적을 요청했다. 반면 위의 두 기사에서는 백제가 중국에서 박사 즉 사람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에서 유학(경학)은 전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학관에 들어간 학문을 제외한 나머지 학문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춘추좌씨전』은 후한 대에 이르러서야 학관이 설치되고 경전의 지위에 올랐는데, 이는 『춘추좌씨전』이 공자로부터 발원한 것이 아니라 좌구명에서 비롯되었으며 전수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금문경 학자들의 비판으로 인함이었다.⁵¹⁾ 즉 경학에서 스승과 전수관계는 정통 경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중국에서 백제로 박사들이 왔다는 사실은 앞 시기 유학 서적이 백제로 들어온 사실들과 성격을 다르게 파악해야 한다.

B-1) 강례박사 육후와 B-2) 모시박사는 각각 다른 해에 백제에 왔다고 생각한다. 예와 시는 엄연히 다른 분야인데다, 오경박사로 통칭하지 않고 강례박사와 모시박사를 지목하였다. 이는 백제가 『모시』와 예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필요에 따른 목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된다. 백제는 양나라대 두 차례 박사를 요청하였다.⁵²⁾

육후가 백제로 온 시기는 기록상 명확하지 않다. 『해동역사』에서는 백제의 시호제를 육후의 공적이라 하였다.⁵³⁾ 백제 시호제의 기원은 무령왕이 전왕을 동성왕이라 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나, 성왕 이후 예에 의거하여 사용했다.⁵⁴⁾ 예에 의거한 시호 사용의 필요성이 있던

48) 『陳書』 卷33 列傳27 儒林 陸詡, “時有晉陵張崖, 吳郡陸詡, 吳興沈德威, 會稽賀德基, 俱以禮學自命.”

49) 『南史』 卷71 列傳61 儒林 崔靈恩, “清河東武城人也. 少篤學, 遍習五經, 尤精三禮三傳. 仕魏爲太常博士. 天監十三年, 歸梁, 累遷步兵校尉, 兼國子博士. … 靈恩集注毛詩二十二卷, 集注周禮四十卷, 制三禮義宗三十卷, 左氏經傳義二十二卷, 左氏條例十卷, 公羊穀梁文句義十卷.” 최영은의 『삼례의종』은 정현과 왕숙의 설을 섞어 택하였는데, 이는 북조에서 정현의 주를 따른 것과 달랐다. 『춘추좌씨전』에서도 일반적으로 두예의 주를 숭상한 것과 달리, 최영은은 두예의 주를 배척하였다(유사배 지음·이영호 외 옮김, 2020, 앞 책, 110~116쪽).

50)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19年,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并工匠畫師等, 從之.”

51) 本田成之, 1927, 앞 책, 211~218쪽 ; 가노 나오키 저·오이환 역, 1986, 『중국철학사3-한당 시대의 사상』, 지식을 만드는 지식, 519~527쪽 ; 김동민, 2007, 앞 논문, 195쪽 ;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앞 책, 305~314쪽. 이외에도 前漢 대 경학은 대체로 口頭로 전승되었으므로 스승의 말씀을 단 한글자도 틀리지 않게 전수해야 했던 사실은, 유학 지식에서 전수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52) 이와 달리 모시박사와 강례박사 관련 기록을 동일한 기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조경철, 2000, 「百濟 聖王代 儒佛政治理念-陸詡와 謙益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15, 韓國思想史學會, 13쪽).

53) 『海東釋史』 卷9 世紀9 百濟, “按陸詡之行, 未詳其何年. 故姑係於此, 而當往天監大同之間也. 大抵百濟之王號, 多取方言. 而聖王元年癸卯, 始制諡法, 上其父王諡爲武寧.”

시기는 성왕 재위 초중반이었다고 생각된다.⁵⁵⁾ <무령왕 지식>에서는 무령왕의諱인 ‘斯麻王’을 사용했다. 적어도 무령왕릉에 <무령왕 지식>이 봉안된 523년 이후 시호를 사용했음은 분명하다. 성왕 12년(534) 3월 백제에서 사신을 파견해 양에 조공하고 있어,⁵⁶⁾ 이 무렵 육후가 백제로 건너왔다 여겨진다.

모시박사는 성왕 19년(541) 백제로 왔다.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계통을 파악하기 어렵다. 남조에서는 학자에 따라 정현의 주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후한 말 이후 남북조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모시』와 정현의 주를 정통으로 여겼다.⁵⁷⁾ 모시박사는 그 직명에서 알 수 있듯 『모시』를 교수하는 박사이다. 『모시』는 5경 중 하나인 『시경』의 해설서로, 현재 305편이 남아있다. 『시경』은 태평성대를 노래하거나 우매한 임금을 풍자하는 등 백성들의 뜻을 비롯해 백성과 신하에게 베풀어야 할 임금의 덕목을 읊은 노래를 모아놓았다. 그리고 『시경』은 음율과 합축,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어, 시 자체로서는 내포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선진시대에는 사람들의 뜻과 본심을 기록하는 관리가 있었으며, 왕은 시를 통해 민중의 분위기를 느끼고 이를 정치로 펼쳤다.⁵⁸⁾ 예로부터 시의 의미는 단순한 문학으로 그치지 않고, 천자가 민중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모시박사가 백제로 온 해보다 조금 이른 시기이나, 무령왕 10년(510) 웅진천도 전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임을 다할 수 없는 遊食者를 歸農시킨 사실은, 『모시』의 이념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⁵⁹⁾ 즉 유학 수용이 한성백제기 직면한 정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현세적 성격이었다면, 모시박사와 강례박사 등 중국 왕조의 공식적인 박사 파견 이후 정치이념을 정립하고 유학의 도덕정치를 펼치려는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⁶⁰⁾

강례박사와 모시박사는 중국 왕조에서 파견한 공식적 전수자이다. 한성백제기 한군현 및 중국계 유이민과 달리, 이들은 중국 관학에서 스승을 통해 유학 지식을 전수받고 중국 황제로부터 백제로 파견 명령을 받아 백제에서 유학을 교수하는 일이 주요 업무였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난 후 백제에 머무르지 않고 귀국했다. 이들이 귀국하고 난 후에도 백제에 지속적으로 유학 지식을 계승해 나가도록 한 인물들도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때 이미 백제에 정

54) 중국 시호제를 분석하여 ‘동성왕’이라는 시호는 시법에 의한 시호가 아닌 동성왕의 사후 업적 평가를 위한 시호 그 자체의 의미였다(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 『百濟學報』 32, 百濟學會, 85~87쪽).

55) 18세기 저술인 이덕무의 『靑莊館全書』에서도 육후가 무령왕 12년이나 그 이듬해 백제로 왔다고 하고 있다(『靑莊館全書』 卷60 蟲葉記7 陸詡, “案梁武帝天監十一年壬辰. 卽百濟武寧王十一年也. 是歲, 百濟遣使朝梁. 則陸詡之行. 或在是歲及翌年也.”). 육후는 어릴적 최영은에게 삼례의종을 배웠다고 하며, 최영은은 514년 양으로 왔다. 육후와 최영은이 만난 시기를 514년 이후로 보면, 육후가 백제로 건너온 시점을 무령왕 12년 이전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56)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聖王 十二年 春三月, “遣使入梁朝貢.”

57) 유사배 지음·이영호 외 옮김, 2020, 앞 책, 108~109쪽.

58) 『漢書』 卷30 藝文志10, “書曰, 詩言志, 歌詠言. 故哀樂之心感, 而歌詠之聲發. 誦其言謂之詩, 詠其聲謂之歌. 故古有采詩之官, 王者所以觀風俗, 知得失, 自考正也.”

5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十年 春正月, “下令完固隄防, 驅內外游食者歸農.” ; 김영관, 2022, 「백제 사회와 武寧王 대 遊食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105, 한국고대사학회, 155쪽.

60) 이기동은 ‘佐平’이란 명칭이 『주례』 夏官 司馬의 ‘掌邦政, 以佐王, 平邦國’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으며(李基東, 1990, 앞 논문, 4쪽), 백제 22부 가운데 司軍部, 司徒部, 司空部, 司寇部는 『주례』의 ‘地官司徒’, ‘夏官司馬’, ‘秋官司寇’ 등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했던 중국계 백제인들이 주목된다. 이들은 한성백제기 유학 서적 수용과 웅진천도 이후 중국인 지식인의 초청에 중간 매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⁶¹⁾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백제는 한성함락과 웅진천도를 거치며 문물 교류로서 서적 수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 수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국 왕조에 박사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강례박사와 모시박사가 백제로 들어왔으며, 이들의 전수 결과 백제는 유교 이념을 토대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한성기 직면한 현실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 유학을 중국계 지식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것과 질적으로 달랐다.

4. 7세기 유학 지식과 서적의 보급

성왕은 중국에서 유학자의 초청이라는 방법으로 유학을 정치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여 수용했다. 왕실 중심의 유학은 사비기 이후 지배층과 지식인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B-2)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시박사와 함께 열반경 등의 불교 경전도 들어온다는 점이다. 유학자들은 자신의 학문을 內學, 상대편의 학문을 外學이라 하여 ‘外內之學’을 겸하였다. 반대로 승려들에게는 내학이 불교였는데, 『均善論』을 저술했다는 혜琳, 왜의 구호 풍충이황자(성덕태자) 등이 외내지학을 겸비하였다. 신라에서도 학문승들은 신앙에서 불법을 숭상하면서도 유학을 배워 제자를 양성하였으며, 유학자들 역시 불교와 분리될 수 없었다.⁶²⁾ 백제 역시 모시박사와 열반경의 동시 수용은 백제 사회에서 외내지학을 갖춘 인재를 요구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유학 서적은 중앙정치제도에서 유학이라는 사상적 명분과 이념을 제공하는 측면을 넘어, 지배층 및 지식인들의 교육과 교양을 위해 활용되었다. 『주서』에서는 백제인들이 墳史 즉 古書와 史書⁶³⁾를 애독하며, 그 중 뛰어난 사람은 문장을 읽고 公務를 잘한다고 하였다.⁶⁴⁾ 『주서』가 사비기의 역사상을 반영하는 사료임을 미루어본다면,⁶⁵⁾ 사비백제기 유학 서적이 지배층과 지식인들에 널리 보급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1) 양기석, 2013, 앞 논문, 138쪽. 한편 이들이 한군현 세력이 백제로 들어오는 3~4세기에서 한참 지난 이후이므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다는 견해를 펴기도 한다(배재훈, 2015, 앞 논문, 3~4쪽). 그렇지만 이들이 한성백제기 이래 교섭 및 외교문서 작성, 유학 지식의 전달 등 중국과 관계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대대로 해온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백제에서 가문의 계승과 職의 수행을 통해 중국계라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62) 『宋書』97 列傳57 夷蠻, “慧琳者, 秦郡秦縣人, 姓劉氏. 少出家, 住治城寺, 有才章, 兼外內之學, 爲廬陵王義真所知.” ; 『日本書紀』卷22 推古 元年 夏4月 庚午朔 己卯, “立廬戶豐聰耳皇子爲皇太子. 仍錄擲政, 以萬機悉委焉. … 且習內教於高麗僧慧慈. 學外典於博士覺智, 並悉達矣.” ; 金哲垞, 1969,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 『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29~130쪽 ; 김복순, 2004,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본 신라의 인물」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5, 경주사학회, 104~105쪽 ; 동북아역사재단,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5-宋書 外國傳 譯註』, 232쪽, 각주 123) 참고.

63) 『(修訂版)大漢和辭典』卷3, 「墳史」, 大修館書店, 264~264쪽.

64) 『周書』卷49 列傳41 異域上 百濟, “俗重騎射, 兼愛墳史. 其秀異者, 頗解屬文, 能吏事.”

65)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214~218쪽.

『구당서』 권199 등이 백제국전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C) 그 書籍에는 五經子史가 있다. 또 表와 疏 모두 中華의 法에 의거한다.⁶⁶⁾

『구당서』 권199 등이 백제국전에서는 백제와 당(618~907) 사이의 역사 및 백제의 위치·제도·풍속 등을 전하고 있다. C) 기사에서 ‘五經子史’는 5경과 諸子書, 역사서이다. 五經子史는 중국에서 여러 시기를 거치며 정리된 서적 정리법인 ‘經史子集’의 부분이다. 시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구당서』에서는 甲部(經), 乙部(史), 丙部(子), 丁部(集)를 구분하고 있다. 丙部에 해당하는 ‘子’는 14가지로 분류하였다.⁶⁷⁾ 丁部에 해당하는 集은 문장과 시 등을 엮은 책을 의미한다. 백제에서는 7세기 초중반 5경과 제자서, 역사서가 읽히고 있었다.⁶⁸⁾ 五經子史의 학습은 현명한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⁶⁹⁾

신라 國學에서는 이 가운데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등 5경 및 그 해설서와 이외 『문선』, 『논어』, 『효경』을 가르쳤다. 『삼국사기』 직관(상) 신라 국학 조에서는 교수법에 바로 이어, 독서삼품과를 기술하고 있다. 독서삼품과는 학생들이 국학의 교수 과목을 어느 정도 익혔는지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누었다.⁷⁰⁾ 국학의 설립 목적이 관리의 임용과 선발에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⁷¹⁾ 백제의 교육 기관으로 태학이 알려져 있다.⁷²⁾

66) 『舊唐書』卷199 列傳149(上) 東夷 百濟國, “其書籍有五經子史, 又表疏並依中華之法.”

67) 『舊唐書』卷46 志26 經籍(上), “丙部爲子, 其類一十有四. 一曰儒家, 以紀仁義教化. 二曰道家, 以紀清淨無爲. 三曰法家, 以紀刑法典制. 四曰名家, 以紀循名責實. 五曰墨家, 以紀強本節用. 六曰縱橫家, 以紀辯說詭詐. 七曰雜家, 以紀兼敍衆說. 八曰農家, 以紀播植種藝. 九曰小說家, 以紀芻辭輿誦. 十曰兵法, 以紀權謀制度. 十一曰天文, 以紀星辰象緯. 十二曰曆數, 以紀推步氣朔. 十三曰五行, 以紀卜筮占候. 十四曰醫方, 以紀藥餌針灸.”

68) 백제에서 제자서와 관련하여 도가와 여기에서 파생된 도교사상의 수용과 유행은 근구수왕 즉위년 기사에서 莫古解가 『노자』를 인용한 기록 등 전시기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三國史記』卷24 百濟本紀2 近仇首王 卽位年, “高句麗國岡王斯由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이 글은 백제의 유학 수용과 사회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으로 子와 集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 다루도록 하겠다.

69) 『高麗史』卷11 世家11 肅宗1, “肅宗明孝大王, 諱顯, 字天常, 古諱熙. 文宗第三子, 順宗母弟, 文宗八年甲午七月己丑生. 幼而聰慧, 及長, 孝敬勤儉, 雄毅果斷. 五經子史, 無不該覽, 文宗愛之, 嘗曰, 後之復興王室者, 其在爾乎.”

70) 각 등급 및 관련 과목은 아래 표와 같다(『三國史記』卷38 雜志7 職官(上) 國學). ‘通’은 채점 방식, ‘明’은 당나라 明經의 시험 방식이다(한영화, 2019, 「신라의 國學 교육과 관인 선발」 『新羅史學報』 45, 신라사학회, 357쪽).

등급	조건	과목
상	讀…而能通其義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
	明	『효경』, 『논어』
중	讀	『곡례』, 『논어』, 『효경』
하	讀	『곡례』, 『효경』
超擢	能兼通	5경, 3사, 제자백가서

71) 신라의 구체적인 인재 선발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전덕재, 2010, 「신라의 독서삼품과 : 한국 과거제도의 前史」 『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및 ‘한영화, 2019, 위 논문’ 참고.

72) 2014년 <진법자 묘지명>이 국내에 소개되며 묘주 陳法子の 증조부 陳春의 시기(성왕~위덕왕)에 백제 태학이 존재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김영관, 2014, 앞 논문, 118쪽).

백제 태학에서도 신라 국학에서와 같이 5경 및 제자백가서, 역사서 등을 인재 등용과 관리 선발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여겨진다.⁷³⁾ 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료는 없으나, 보급되어 있던 유학 서적의 단편을 확인할 수 있다.

D-1) 나이가 겨우 小學에 들어갈 때 이미 『春秋左氏傳』 및 班馬의 兩史를 읽었다. 탄식하여 말하기를 “丘明이 이를 부끄럽다고 하였고, 孔子도 역시 부끄럽다 하였으니〔丘明耻之, 丘亦耻之〕, 진실로 나의 스승들이다.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 어찌 많을 것인가!” 弱冠이 되지 않아, 地籍에 따라 달술에 제수되었다.⁷⁴⁾

D-1) 사료는 <흑치상지 묘지명>으로, 흑치상지가 소학에 들어갈 무렵 접한 서적 명칭을 들고 있다. 흑치상지는 永昌 元年(689) 10월 무오에 사망하였으며, 당시 나이는 60세였다.⁷⁵⁾ 흑치상지는 630년 전후 출생이므로, <흑치상지 묘지명>에서 흑치상지가 소학에 들어가는 10세 전후⁷⁶⁾ 무렵은 대략 640년 초반이다.

7세기 중반 무렵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유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배경에는 당 태종의 국학 장려 정책이 있었다. 당태종은 국자감의 학생 증원, 학사 증축 등 교육 제반 시설을 확장하였다. 그리고 공영달 등에게 번잡한 유학서들을 五經正義로 정리하도록 명하여 사상과 학문을 통일하고자 했다. 이러한 당태종의 교육 정책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 백제에서는 무왕 41년(640) 2월 당나라에 자제들을 보내 국학 입학을 청하였다. 이때 高句麗, 新羅, 高昌, 吐蕃에서도 당나라에 자제들을 보냈다.⁷⁷⁾ 백제 왕실의 이러한 입장은 흑치상지와 같은 백제 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흑치상지가 당나라 국학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소학에 들어갈 무렵은 바로 이 시기이다. 흑치상지는 위와 같이 유학이 융성한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흑치상지는 『춘추좌씨전』을 읽었다. 당에서 『춘추좌씨전』은 『예기』와 함께 大經으로 인정되었으며, 國子監의 國子博士는 문무관 3품 이상·국공의 아들 및 손자·중2품 이상의 증손들이 3년 안에 『춘추좌씨전』을 마칠 수 있도록 가르쳤다.⁷⁸⁾ 신라 국학의 교수 과목 가운데 『춘추좌씨전』에 通한

73) 朴賢淑, 2014, 앞 논문, 120~124쪽 ; 정동준, 2020b, 「동아시아의 전적 교류로 본 백제의 유학교육」 『韓國史研究』 188, 한국사연구회, 132~138쪽. 백제 태학에서는 대체로 『주역』, 『모시』, 『주례』, 『의례』, 『예기』, 『춘추좌씨전』, 『논어』를 교육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74) <黑齒常之 墓誌銘> “年甫小學, 卽讀春秋左氏傳及班馬兩史. 歎曰, 丘明耻之, 丘亦耻之, 誠吾師也. 過此何足多哉. 未弱冠以塞籍達率.”

75) 『新唐書』 卷4 本紀4 則天武后 中宗 永昌 元年 10월 戊午, “殺右武威衛大將軍黑齒常之, 右鷹揚衛將軍趙懷節.” ; <黑齒常之 墓誌銘> “既從下獄, 爰隔上穹, 義等絕顏, 哀同仰藥, 春秋六十.” ; 李文基, 1991, 「百濟 黑齒常之 父子 墓誌銘의 檢討」 『韓國學報』 64, 일지사, 153~154쪽.

76) 『(修訂版)大漢和辭典』 卷4, 「小學」, 大修館書店, 51~52쪽.

77)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41년 2월, “遣子弟於唐, 請入國學.” ; 『資治通鑑』 卷195 唐紀11 貞觀 14년 二月 丁丑, “上幸國子監, 觀釋奠, 命祭酒孔穎達講孝經, 賜祭酒以下至諸生高第帛有差. 是時上大征天下名儒爲學官, 數幸國子監, 使之講論, 學生能明一大經已上皆得補官. 增築學舍千二百間, 增學生滿三千二百六十員, 自屯營飛騎, 亦給博士, 使授以經, 有能通經者, 聽得貢舉. 於是四方學者雲集京師, 乃至高麗百濟新羅高昌吐蕃諸酋長亦遣子弟請入國學, 升講筵者至八千餘人. 上以師說多門, 章句繁雜, 命孔穎達與諸儒撰定五經疏, 謂之正義, 令學者習之.”

78) 『唐六典』 卷21 國子監, “禮記左傳爲大經, 毛詩周禮儀禮爲中經, 周易尚書公羊穀梁爲小經 … 國子博士掌教文武官三品已上及國公子孫, 從二品已上曾孫之爲生者. 五分其經以爲之業, 習周禮儀禮禮記毛詩春秋左氏傳, 每經各六十人, 餘經亦兼習之. 習孝經論語限一年業成, 尚書春秋公羊穀梁各一年半,

학생들은 독서삼품과에서 上으로 분류됐다.

그리고 <흑치상지 묘지명>에서는 ‘丘明恥之, 丘亦恥之’라 하여 『논어』 公冶長의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를 인용하고 있다. 충남 부여군 쌍북리 56번지 발굴조사 결과 백제 사비도읍기 문화층(상층)의 지표에서 『논어』 學而篇을 적은 습서용 목간이 확인되었다.⁷⁹⁾ 또한 의자왕은 당시 海東曾子라고 불렸다.⁸⁰⁾ 증자는 동양의 효사상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자 『효경』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은 7세기 초중반 무렵 백제에 『논어』와 『효경』이 보급되어 지배층 사이에 유교 윤리 질서가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흑치상지는 班馬의 兩史를 읽었다. 班馬兩史란 반고의 『한서』와 사마천의 『사기』이다. 『한서』와 『사기』는 『춘추좌씨전』과 더불어 역사를 서술한 서적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리고 C) 사료에서 백제에 역사서가 있다는 사실과 통한다. 『춘추』는 5경 중 하나이면서 춘추시대 魯隱公 원년(기원전 722)부터 哀公 14년(기원전 481)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서이기도 하다. 『춘추공양전』이나 『춘추곡량전』에서 『춘추』에 담긴 의리를 밝히고자 한 것과 달리, 『춘추좌씨전』은 역사 사실을 토대로 經과 傳을 연결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⁸¹⁾ 『사기』는 중국상고사에서부터 전한 무제까지를 다룬 역사서이며, 『한서』는 전한시기(기원전 202~기원후 8)만을 다룬 단대사이다. 두 사서 모두 기전체 형식을 갖추고 있어 正史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⁸²⁾

『漢書』 藝文志에서 “左史記言, 右史記事, 事爲春秋, 言爲尚書.”라 한 것처럼, 역사는 『춘추』에서 비롯된 춘추필법과 포폄 등으로 인해 유학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와 같은 기조는 백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수용하면서 백제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백제에 중국의 역사서가 들어와 있었다는 기록은 <흑치상지 묘지명>의 『한서』와 『사기』 이외에도 아래의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D-2) (白雉 元年 2월 庚午朔戊寅) 穴戶國司 草壁連醜經이 白雉를 바치며 “國造首의 동족 贊가 정월 9일에 麻山에서 잡아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百濟君에게 물었다. 백제군은 “後漢 明帝 永平 11년 白雉가 어떤 곳에서 보였다고 합니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⁸³⁾

周易毛詩周禮儀禮各二年, 禮記左氏春秋各三年.”

79) 울산발견연구원문화재센터, 2020,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부여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88~292쪽 및 699~701쪽. 부여 쌍북리 56번지 출토 『논어』 목간은 백제 생활문화층 상층 지표에서 확인되어, 사비기 이후 성토층과 관계 및 매장된 시기 설정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小形壺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해당 지표에서 개원통보 등이 발굴되어 보고서 및 다수의 연구에서도 쌍북리 56번지 출토 『논어』 목간은 백제 사비도읍기에 제작된 학습·습서용 목간으로 파악하고 있다(權仁辭, 2019, 「扶餘 雙北里 論語木簡에 대한 몇 가지 생각」 『木簡과 文字』 23, 한국목간학회, 202쪽 ; 정동준, 2020a, 앞 논문, 41~43쪽 ; 김창석, 2020, 「부여 雙北里 출토 木簡을 통해 본 泗泚都城의 官府 공간과 儒敎」 『百濟學報』 32, 百濟學會, 67쪽).

80)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6 義慈王, “義慈王, 武王之元子, 雄勇有膽決. 武王在位三十三年, 立爲太子. 事親以孝, 與兄弟以友, 時號海東曾子.” 한편 『구당서』에서는 의자왕이 해동의 曾子와 閔子로 불렸음을 언급하고 있다(『舊唐書』 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百濟, “義慈事親以孝行聞, 友于兄弟, 時人號海東曾閔.”).

81)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앞 책, 431쪽.

82) 유지기 지음·오항녕 옮김, 2014, 『사통』, 역사비평사, 88~95쪽.

83) 『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2月 庚午朔戊寅,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曰, 國造首之同族贊,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 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위 기록은 『일본서기』 卷25 孝德 白雉 元年(650, 의자왕 10) 2월 기사이다. 당시 왜가 연호를 大化에서 白雉로 고친 일화를 전하고 있다. 穴戶國司 草壁連醜經은 흰 꿩[白雉]을 왜 조정에 헌상하였다. 왜 조정에서는 흰 꿩의 상징적 의미를 여러 신하와 승려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百濟君(豐璋)⁸⁴⁾은 『후한서』 明帝 영평 11년(58) “是歲, 瀛湖出黃金, 廬江太守以獻. 時麒麟白雉醴泉嘉禾所在出焉.”를 언급하여⁸⁵⁾ 영평 11년의 黃金, 麒麟, 白雉, 醴泉, 嘉禾 등 상서로운 상징들을 들고 있다. 후한 명제(재위 57~75)는 광무제와 더불어 후한의 전성기를 이룩한 황제이다. 백제군풍장은 백치의 의미를 역사서에서 찾고 그 의미를 왜 조정에 전하는 자문 역할을 하여, 왜의 연호 개정에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흑치상지 묘지명>의 『한서』와 『사기』, 『일본서기』의 『후한서』는 三史라 한다. 3사는 본래 『한서』, 『사기』, 『동관한기』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675년 무렵 당의 장희태자 李賢(생몰 655~684)이 유송의 역사가인 범엽(생몰 398~445)의 『후한서』에 주석을 달면서, 3사는 『한서』, 『사기』, 『후한서』가 되었다.⁸⁶⁾ 『후한서』를 3사로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백제가 멸망한 이후이므로, 650년 백제가 『후한서』를 알고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범엽이 『후한서』를 편할 당시 『동관한기』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일정 부분은 수용하였으나, 현재 알려진 『동관한기』에 위 구절은 전하지 않는다.⁸⁷⁾ 이 구절이 유실된 부분에 있었는지, 아니면 『후한서』에만 기록되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고구려에도 범엽의 『후한서』가 보급되고 있었으며,⁸⁸⁾ 백제와 남조의 관계를 고려하면 백제가 일찍부터 『후한서』를 접했을 가능성도 있다.⁸⁹⁾

흑치상지(D-1)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춘추좌씨전』과 『한서』, 『사기』를 읽었다. 더욱 『논어』 公冶長의 “巧言令色足恭, 左丘明恥之, 丘亦恥之.”를 인용하여, 좌구명과 공자를 스승이라 여겼다고 한다. 흑치상지는 평소 『논어』 공야장의 구문을 삶의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묘지명에까지 기록하였을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흑치상지의 가문이다. 흑치상지는 弱冠이 되기 이전 달술을 제수받았다. 이때 달술 임명 이유를 地籍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84) 『일본서기』 백지 원년(650) 2월 갑신 改元 의식 당시 百濟君豐璋이 중정에 이르렀다고 하고 있어(『日本書紀』 卷25 孝德 白雉 元年 2月 甲申, “朝廷隊仗, 如元會儀. 左右大臣百官人等, 爲四列於紫門外, 以粟田臣飯蟲等四人, 使執雉輿, 而在前去. 左右大臣, 乃率百官及百濟君豐璋其弟塞城思勝高麗侍醫毛治新羅侍學士等, 至中庭.”), 백지 원년 2월 무인의 百濟君은 풍장임을 미루어 알 수 있다.

85) 『後漢書』 卷2 顯宗孝明帝紀2 永平 11年 是歲, “瀛湖出黃金, 廬江太守以獻. 時麒麟白雉醴泉嘉禾所在出焉.”

86) 신승하, 2000,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76~78쪽 ; 池田昌廣, 2008, 「范曄『後漢書』の傳來と『日本書紀』」, 『日本漢文學研究』 3, 日本漢文學研究編集委員會, 5~6쪽.

87) 『東觀漢記』는 『수서』에서는 143권으로 전하나(『隋書』 卷33 志28 經籍二史, “東觀漢記一百四十三卷.”), 이후 상당량 소실되어 『구당서』에서는 127권만 전한다(『舊唐書』 卷46 志26 經籍(上), “東觀漢記一百二十七卷劉珍撰.”). 현재 알려진 『동관한기』 24권은 청나라대 姚之駟이 『동관한기』라 전해지는 遺文을 모아놓은 판본이다.

88) 『舊唐書』 卷199 列傳149(上) 東夷 高麗, “其書有五經及史記漢書范曄後漢書三國志孫盛晉春秋玉篇字統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89) 『후한서』에서는 한에 78개국 이 있었다고 하며 그 가운데 伯濟가 있었다고 한다(『後漢書』 卷85 東夷列傳75 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在東,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이를 통해 백제가 남조와 친밀했던 상황을 고려해볼 수 있고, 자신들의 기원과 역사를 『후한서』에서 찾았음을 알 수 있다.

黑齒常之 가문은 흑치상지의 증조인 黑齒文大부터 黑齒常之까지 달솔이었다.⁹⁰⁾ 가문의 지위는 달솔의 주요 임명 원인이었다. 달솔은 정원이 30명으로, 임명자의 출신과 관직 진출에서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된다.⁹¹⁾ 그리고 흑치씨 가문은 백제 왕성인 부여씨에서 분봉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⁹²⁾

이렇듯 흑치상지는 백제에서 최고 신분 계층으로서, 『춘추좌씨전』과 『한서』, 『사기』, 『논어』 등을 익히고 유교적 지식인의 면모를 갖추었다. 더욱 그가 문관보다 무관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백제에서 유학 지식과 교양의 함양이 출세뿐만 아니라 백제 지배층의 분위기에서도 중요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백제군풍장(D-2) 역시 의자왕의 아들로, 왕족이다. 흑치가와 같이 백제 최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다. 무왕은 왕족 및 귀족 자제에게 유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당나라에 이들의 국학 입학을 요청했다. 더욱 백제의 좌평과 달솔 총 50여 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유학 지식으로 백제 멸망 이후 왜로 건너가 왜의 관위를 받고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고려한다면,⁹³⁾ 지배층의 漢籍에 대한 관심과 백제 유학 교육의 구조 및 현실 정치의 응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렇지만 백제에서는 중국에서와 같이 경전의 해석을 둘러싼 학술적 논쟁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학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학문이기 때문에, 백제 내에서 경전의 해석과 관련된 학술적 논쟁은 불필요했다. 이는 결국 백제에서 현실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유학 서적을 수용했음을 보여준다. 웅진천도 이후 유학의 수용 방법은 한성백제기보다 진일보하였으나, 여전히 현실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한 수용이었다. 더불어 백제 유학은 중국 한당대의 유학이 송대 이후의 유학과 달리 경학 중심의 유학이었다는 점과 궤를 같이 한다.

결론적으로 7세기 초중반 백제에 5경, 제자서, 역사서 가운데 『춘추좌씨전』, 『한서』, 『사기』, 『후한서』가 구체적 서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논어』 및 『효경』 역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료들은 백제 지배층들의 지식 수준의 高下 및 유학에 대한 이해도를 알 수 있다. 동시에 유학이 백제인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도 확인할 수 있다.

90) <黑齒常之 墓誌銘> “其家世相承爲達率，達率之職，猶今兵部尙書，於本國二品官也。曾祖諱文大，祖諱德顯，考諱沙次，並官至達率。”

91) 최유림, 2021, 「백제 술계 관등의 변천과정과 관직임명」 『한국고대사연구』 103, 한국고대사학회, 97쪽.

92) <黑齒常之 墓誌銘> “其先出自扶餘氏，封於黑齒，子孫因以爲氏焉。” ;李文基, 1991, 앞 논문, 154~155쪽 ; 강종원, 2003, 「百濟 黑齒家の 成立과 黑齒常之」 『百濟研究』 38,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21~130쪽.

93) 『일본서기』 권27 天智 10년 봄 1월에 기록된 백제인과 관위 및 그들의 학식은 아래와 같다.

왜 관위	백제 관등	이름	학식정도	왜 관위	백제 관등	이름	학식정도
大錦下	佐平	餘自信	法官大輔	大山下	達率	贊波羅	解藥
大錦下	佐平	沙宅紹明	法官大輔	大山下	達率	金羅金須	解藥
小錦下	미상	鬼室集斯	學職頭	大山下	達率	鬼室集信	解藥
大山下	達率	谷那管首	閑兵法	小山上	達率	德頂上	解藥
大山下	達率	木素貴子	閑兵法	小山上	達率	吉大尙	解藥
大山下	達率	憶禮福留	閑兵法	小山上	達率	許率母	明五經
大山下	達率	答怱春初	閑兵法	小山上	達率	角福牟	閑於陰陽
大山下	達率	怱日比子	解藥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백제가 유학 서적을 수용한 방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에 한성기 유학 서적의 수용 양상의 변화와 의미를 검토하고, 한성함락으로 인한 유학 지식 수용 방법의 변화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중국에서 들여온 유학 서적은 한성백제기부터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3세기 무렵 『춘추좌씨전』이 수용된 모습이 확인되며, 백제는 현왕조의 존속과 앞으로의 번영을 위한 목적으로 『춘추좌씨전』을 수용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백제는 한군현 및 중국계 유이민을 통해 서적의 형태로 유학 지식을 수용하였다. 백제는 한군현 및 중국계 유이민들로 인해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접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중국 왕조의 공식적 교육 제도 안에서 훈련된 인물들이라 보기 어렵다. 결국 한성백제기에는 중국계 세력을 통해 당장 직면한 전쟁의 명분 확보, 대민 지배 등 현세적 목적을 위해 유학 지식을 수용했다.

475년 한성함락으로 인해 한성백제기 중국으로부터 수용한 서적들이 소실되었으며, 중국에서 서적을 재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백제는 484년 내법좌평 사약사를 남제에 파견하여 한성함락으로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고구려군과 조우로 실패로 돌아가자, 중국에 직접 박사를 요청하여 유학 지식 수용 방법에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성왕대 강례박사와 모시박사가 백제로 들어오게 된다. 백제는 중국 왕조의 교육 기관에 속한 학자들에게 禮와 詩에 담긴 의미를 전수받게 되었고, 이를 정치이념화하는데 이르렀다. 중국 왕조의 박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 유학 지식은 앞선 시기 중국계 세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전승되어 지배층과 지식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이후 7세기 초중반에 이르면 백제에는 五經子史가 읽혀졌으며 <흑치상지 묘지명>과 『일본서기』 등에서 『춘추좌씨전』, 『논어』, 『한서』, 『사기』, 『후한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

『三國史記』 『高麗史』 『海東繹史』 『靑莊館全書』
 『春秋左氏傳』 『三國志』 『漢書』 『後漢書』 『晉書』 『宋書』 『梁書』 『南齊書』 『陳書』 『南史』
 『周書』 『隋書』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唐六典』 『古事記』 『日本書紀』
 <黑齒常之 墓誌銘> <陳法子 墓誌銘>

2. 저서 및 논문

가노 나오키 저·오이환 역, 1986, 『중국철학사3-한당 시대의 사상』, 지식을 만드는 지식
 鎌田正, 1963, 『左傳の成立と其の展開』, 大修館書店

- 김영심, 2022, 『백제의 이주지식인과 동아시아 세계』, 지식산업사
- 盧重國, 1988,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中心으로』, 一潮閣
- 노중국, 2018, 『백제정치사』, 일조각
- 동북아역사재단, 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5-宋書 外國傳 譯註』
- 本田成之, 1927, 『支那經學史論』, 弘文堂
- 순사오 지음·김경호 옮김, 2015, 『한대 경학의 발전과 사회 변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신승하, 2000, 『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오영찬, 2006, 『낙랑군 연구』, 사계절
- 울산발전연구원문화재센터, 2020,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부여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유사배 지음·이영호 외 옮김, 2020, 『중국경학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유지기 지음·오항녕 옮김, 2014, 『사통』, 역사비평사
- 이병도, 1959, 『한국사(고대편)』, 震檀學會
- 李丙燾, 1987, 『韓國儒學史』, 亞細亞文化社
- 李賢惠, 1984,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 蔣伯潛·蔣祖怡 著, 崔錫起·姜貞和 譯註, 2002, 『儒教經典과 經學』, 景仁文化社
- 장백잠 지음·전병수 옮김, 2019, 『중국경학략사』, 수류화개
- 張志淵, 1922, 『朝鮮儒教淵源』, 匯東書館
- 張志淵 著·柳正東 譯, 1973, 『朝鮮儒教淵源(上)』, 三星文化財團
- 히라노 겐이치로 지음·장인성 외 옮김, 2004, 『국제문화론』, 풀빛
-
- 강종원, 2003, 「百濟 黑齒家の 成立과 黑齒常之」 『百濟研究』 38,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권오영, 2001, 「백제국(百濟國)에서 백제(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 40, 한국역사연구회
- 權五重, 2011, 「요동 공손씨정권의 대방군 설치와 그 의미」 『大丘史學』 105, 대구사학회
- 權仁辭, 2019, 「扶餘 雙北里 論語木簡에 대한 몇 가지 생각」 『木簡과 文字』 23, 한국목간학회
- 김동민, 2007, 「經學 今古文論爭과 賈逵의 左氏學」 『동양철학연구』 51, 동양철학연구회
- 김복순, 2004, 「『삼국사기』 「열전」을 통해 본 신라의 인물」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5, 경주사학회
- 김성식·한지아, 2018,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을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21, 한국목간학회
- 김성희, 2014, 「조선 시기 외사고의 변천과 오대산사고」 『동국사학』 57,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김영관, 2014, 「百濟 遺民 陳法子 墓誌銘 研究」 『百濟文化』 5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김영심, 2014, 「遺民墓誌로 본 고구려, 백제의 官制」 『한국고대사연구』 75, 한국고대사학회
- 김영관, 2020,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자연재해와 민간의 대응」 『白山學報』 118, 白山學會
- 김영관, 2022, 「백제 사회와 武寧王 대 遊食者 문제」 『한국고대사연구』 105, 한국고대사학회
- 金琰根, 1915, 「朝鮮儒教淵源」 『公道』 제2권 제 2호, 公道社
- 김종백, 2021, 「『춘추 좌씨전』을 통해 본 국가 간 신뢰에 관한 고찰-제 환공 시대의 맹약을

- 중심으로」『退溪學論集』 28, 영남퇴계학연구원
- 金昌錫, 2005, 「한성기 백제의 유교문화와 그 성립 과정」『郷土서울』 65,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 김창석, 2016, 「中國系 인물의 百濟 유입과 활동 양상」『역사문화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김창석, 2020, 「부여 雙北里 출토 木簡을 통해 본 泗泚都城의 官府 공간과 儒敎」『百濟學報』 32, 百濟學會
- 金哲垞, 1969, 「三國時代의 禮俗과 儒敎思想」『大東文化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문동석, 2020, 「백제의 시호제(諡號制)와 시호(諡號)의 함의」『百濟學報』 32, 百濟學會
- 朴賢淑, 2007, 「백제 한성시기 流民의 발생과 對民支配의 양상」『先史와 古代』 27, 한국고대학회
- 朴賢淑, 2014, 「백제 太學의 설립과 정비 과정」『역사교육』 132, 역사교육연구회
- 배재훈, 2015, 「백제의 태학」『한국고대사탐구』 19, 한국고대사탐구학회
- 양기석, 2013, 「百濟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百濟文化』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柳南相, 1975, 「百濟儒學의 基盤과 本質 探究를 爲한 試圖」『百濟研究』 6,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윤대식, 2013, 「『春秋左氏傳』에 내재한 도덕과 전쟁의 정합성」『정치사상연구』 19(2), 한국정치사상학회
- 李基東, 1990,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특히 ‘周禮’主義的 정치이념과 관련하여」『震檀學報』 69, 震檀學會
- 李基白, 1959, 「百濟王位繼承考」『歷史學報』 11, 역사학회
- 李文基, 1991, 「百濟 黑齒常之 父子 墓誌銘의 檢討」『韓國學報』 64, 일지사
- 전덕재, 2010, 「신라의 독서삼품과 : 한국 과거제도의 前史」『한국사시민강좌』, 일조각
- 전덕재, 2022, 「삼국시대 역사서의 내용과 성격」『震檀學報』 138, 震檀學會
- 정구복, 2004, 『삼국사기의 현대적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동준, 2014, 「『陳法子 墓誌銘』의 검토와 백제 관계」『한국고대사연구』 74, 한국고대사학회
- 정동준, 2020a, 「동아시아의 典籍交流와 『論語』 목간」『목간과 문자』 24, 한국목간학회
- 정동준, 2020b, 「동아시아의 전적 교류로 본 백제의 유학교육」『韓國史研究』 188, 한국사연구회
- 조경철, 2000, 「百濟 聖王代 儒佛政治理念-陸詡와 謙益을 중심으로」『韓國思想史學』 15, 韓國思想史學會
- 池田昌廣, 2008, 「范曄『後漢書』의傳來と『日本書紀』」『日本漢文學研究』 3, 日本漢文學研究編集委員會
- 최영성, 2019, 「이병도(李丙燾), 『자료한국유학사초고(資料韓國儒學史草藁)』-한국유학사의 근대적 출발」『韓國思想史學』 61, 韓國思想史學會
- 최유림, 2021, 「백제 솔계 관등의 변천과정과 관직임명」『한국고대사연구』 103, 한국고대사학회
- 한영화, 2019, 「신라의 國學 교육과 관인 선발」『新羅史學報』 45, 신라사학회

최유림,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에 관한 토론문

이현주(아주대)

최유림 선생님의 <백제의 유학 지식과 서적의 수용> 논문은 백제의 유학 수용과 관련하여 한성 함락과 7세기를 주목하여 3시기로 구분하였고, <유학 지식의 수용 과정과 방법>을 특히 유학 지식의 유통과 관련하여 살펴본 논문입니다.

선생님은 논문에서 1. 한성백제기, 유학 서적의 수용 2. 한성 함락 후, 강례박사와 모시박사의 수용(성왕) 3. 7세기의 흑치상지 묘지명을 통해 본 유학의 확산 등으로 각 시기별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시기별 유학 수용의 목적 역시 현실정치의 응용 -> 정치적 시스템의 구축 -> 백제 지식인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의 과정으로 보셨습니다.

최유림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 백제 유학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유형의 물질문화와 무형의 정신문화, 유학의 전수와 수용의 목적, 유학 지식의 이동과 전파에서 지식인의 역할 등의 주제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논문입니다. 또한 백제가 유학을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였다는 논지는 제가 신라 유학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측면과 같아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보는 것으로 맡은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1. 제목과 내용의 상이성

제가 오독한 것일 수 있지만, 최유림선생님 논문에서 기대되었던 바는 백제가 (1) 유학을 수용한 시기와 목적 (2) 백제의 각 시기별 유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논문 한편에 담기다 보니, 최유림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 장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는 혼란일 수 있습니다.

2. <춘추좌씨전>의 수용과 활용

선생님의 논문에서 한성백제기부터 7세기에 이르기까지 중요하게 언급되는 유학 경전이 『춘추좌씨전』입니다. 논문에도 기술되었다시피 <춘추>는 6경은 물론 5경 중 하나이고, 『좌씨전』, 『공양전』, 『곡량전』, 『추씨전』, 『협씨전』의 해설서가 있는데, 그 중 『춘추좌씨전』이

백제 수용되었을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춘추좌씨전』은 신라에서도 국학의 교육내용과 독서 삼품과의 인재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에서 『춘추좌씨전』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선생님은 3세기 후반 『춘추좌씨전』이 수용되었으며, 근초고왕 대 기록으로 정리되었다고 이해하셨습니다(7쪽). 본 논문에서는 유학 지식의 이동과 전파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지식의 전수자와 지식의 수용자, 즉 중국과 백제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경전의 문구(ex, 춘추좌씨전의 ‘순망치한’)를 실마리로, 후한에서 춘추좌씨전이 우위를 점한 배경과 춘추좌씨전의 수용한 백제의 의지를 동시에 서술하셨습니다(6쪽).

여기서 선후관계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후한에서 춘추좌씨전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백제로 수용될 수 있었던 것인지, 백제에서 의도적으로 춘추좌씨전을 선택한 것인지가 분명히 서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자의 경우, 유학 지식의 이동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백제에서 유학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한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논리의 전제는 <순망치한>의 출처가 『춘추좌씨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글로만 이해한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3. 유학 수용 방법의 변화

선생님은 백제의 각 시기에 따른 유학 지식 수용의 특징을 파악하셨습니다. 1. 한성백제기에 주로 한군현과 중국계 유이민을 통해 유형의 서적이라는 제한적 형태로 수용되었고(7쪽), 2. 백제는 한성함락과 웅진천도를 거치며 문물 교류로서 서적 수용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식 수용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중국 왕조에 박사를 요청하여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였고(12쪽), 3. 7세기의 유학은 정치제도에서 유학이라는 사상적 명분과 이념을 제공하는 측면을 넘어, 지배층 및 지식인들의 교육과 교양을 위해 활용되었다고(12쪽) 이해하셨습니다. 유학의 수용과 확산의 측면에서 시기별 변화를 포착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성백제기 유학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교적 정치시스템의 차용보다 당장 직면한 전쟁의 명분, 대민 지배 등 현실 정치에서의 응용 즉 현세적 목적을 위해 유학 서적을 수용했다(9쪽)”라고 하셨는데, 본문에는 구체적인 근거나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4장의 <7세기 유학 지식과 서적의 보급>에서

3장과 4장에서 모두 백제 성왕대의 유학 지식의 보급에 대해서 서술하셨고, 4장의 13~16쪽까지 흑치상지의 묘지명에 대한 상세히 서술하고 계십니다. 흑치상지 묘지명에서 『춘추좌씨전』의 서적명이 나오고, 『논어』 公冶長の 문장도 기술이 되어 있어서 중요하게 언급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4장에서 7세기 초중반 백제에 5경, 제자서, 역사서 가운데 『춘추좌씨전』, 『한서』, 『사기』, 『후한서』의 서적명은 물론 『논어』 및 『효경』도 확인하셨습니다. 그 결론으로 “백제 지배층들의 지식 수준의 高下 및 유학에 대한 이해

도를 알 수 있다. 동시에 유학이 백제인들의 생활과 정신세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17쪽), 이 부분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신라 관인의 휴일과 휴가

이일규(연세대)

1. 머리말
2. 고려 휴일·휴가의 운영 양상
3. 신라 관인의 휴일·휴가 사례
4. 신라 휴일·휴가의 종류와 규정
5. 나머지 문제

1. 머리말

쉽은 삶의 중요한 일부다. 누구든 생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적당한 휴식이 필요하다. 또 자신과 가족의 병을 돌봐야 할 때가 있고, 집안의 여러 경조사를 치러야 할 날도 있다. 그러려면 일을 잠시 멈추고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휴일, 휴가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뿐 아니라 전근대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며, 특정한 나라나 민족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도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휴일·휴가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가 축적되었고, 근래에는 국내 중국사 연구에서도 최근 성과와 자료를 바탕으로 진한(秦漢)이나 당대(唐代) 관인의 휴가를 다룬 바 있다.¹⁾ 중국사나 일본사에서 이러한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무엇보다 율령의 여러 조문이 상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晉)과 당 이후의 중국, 그리고 일본 고대의 율령에서는 ‘가녕령(假寧令)’이라 하여, 관인의 쉬는 날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그래서 언제, 얼마나, 어떻게 휴일과 휴가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고대 한국에서는, 비교적 사료가 많은 신라를 보더라도 당시의 휴일이나 휴가에 대해 밝혀진 점이 적어 막연하다. 『삼국사기』의 경덕왕대 교서 내용 하나가 관련 규정을 직접 알려주는 사료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신라 율령을 다루면서 이를 언급하는 정도이고,²⁾ 신라의 휴일·휴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는 미흡했다. 휴일·휴가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연구는³⁾ 고려시기부터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1) 김호, 2015, 「唐代 官人の 휴가 - 法令의 規定을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130 ; 임병덕, 2017, 「秦·漢시기의 官吏의 休暇」 『역사와 담론』 84

2) 윤선태, 2003, 「新羅 中代の 刑律」 『강좌 한국고대사 제3권』(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홍승우,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창석, 2020,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3) 하수민, 2015, 「고려시대 천시론적 급가제도와 연(年)·계(季)·월(月) 주기성 구조」 『정신문화연구』

고려는 『고려사』 형법지 등에 휴일·휴가와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어, 중국이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녕령이 있었으리라 추정한다. 신라와 달리 구체적 자료가 더러 남아 있어 비교적 세밀한 복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고려시기의 휴일·휴가 운영이 신라에서 유래되었을 개연성은 인정하지만, ‘제도’보다는 ‘전통’의 차원으로 이해하는 정도다.

그러나 신라 때에는 그저 관행에 불과하다가, 고려에 와서야 제도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휴일·휴가와 관련한 고려의 법제는 당령(唐令)과 송령(宋令) 등의 영향을 받은 측면이 크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고유의 양상을 띠기도 한다. 그래서 신라 이래의 제도적 계승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라의 율령 조문은 대체로 전하지 않고, 참조할 만한 사료도 부족하다. 중국이나 일본, 고려와 같이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산견되는 기록과 금석문 자료를 최대한 종합하여, 당시 휴일과 휴가 제도의 운영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나마 사실을 밝히고 정리할 필요는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고려시기 휴일·휴가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양상을 간략히 살핀다. 새로운 논의를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연구로 알려진 내용을 잘 갈무리하는 것에 가깝겠지만, 중국·일본과 구별되는 고려만의 특징에 중점을 두어 짚어보려 한다. 신라와의 연속성을 상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라인의 휴일과 휴가 사례를 검토한다. 우선 신라인이 계곡과 동굴 등에 방문하고 남긴 각석문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한다. 또 『삼국유사』의 죽지랑·득오 일화와 『삼국사기』 녹진전의 기록에 주목한다. 익히 알려진 내용이지만, 신라인의 휴가 활용을 전하는 사료라는 측면에서는 면밀히 검토되지 않았다. 이렇듯 문헌과 금석문의 여러 단편을 종합하면, 당시 휴일·휴가의 양상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에서 신라의 휴일과 휴가를 정리해보려 한다. 관인의 휴가 기한 만료에 따른 해관(解官) 규정을 세심히 검토하는 한편, 고려와 연결된다는 시각에서 신라 휴일·휴가 제도 운영의 실체를 가능한 한 추적하고자 한다.

2. 고려 휴일·휴가의 운영 양상

고려 관인의 휴일·휴가 규정은 『고려사』 형법지와 예지 등에 실려있다. 형법지에는 공식(公式) 이하에 ‘관리급가(官吏給假)’로 분류된 기사들이 있어, 당시 급가제도의 전반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예지에서도 길례소사(吉禮小祀) 이하의 ‘대부사서인제례(大夫士庶人祭禮)’와, 흉례(凶禮) 이하의 ‘오복제도(五服制度)’ 및 ‘백관기가(百官忌暇)’에 걸쳐 시제(時祭)와 상장(喪葬), 기일(忌日) 등에 관련한 휴가 규정이 언급된다. 이에 고려 율령의 정리와 복원을 시도한 연구에서는 이들 규정을 한데 모아 고려 ‘가녕령’의 편목을 설정한 바 있다.⁴⁾

38-1 ; 이정희, 2017, 「고려시대 暇寧令과 급가제도」 『지역과 역사』 41 ; 이정란, 2021, 「시정(侍丁)의 지급과 급가(給暇)로 본 고려시대 양로정책」 『한국중세사연구』 65

또 최근의 다른 연구에서는 고려의 휴일·휴가를 정기 급가와 비정기 급가로 나누고, 이들 규정을 당(唐)·송(宋)·원(元) 및 일본 율령과 비교·분석했다.⁵⁾ 정기 급가는 다시 정기 휴일, 절일(節日) 관련, 종교 관련, 농업 관련 휴일로, 비정기 급가는 상장, 제사, 질병, 효도, 기타 정부 운영 관련 휴가 등으로 분류하면서, 그 운영을 세밀하게 살폈다. 이에 따르면 고려 ‘가녕령’은 일차적으로 당령을 모법(母法)으로 성립하였으며, 일부는 이전 시기 전통과 고려의 습속, 그리고 송령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한다.

<표 1>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고려 관인의 휴일과 휴가를 성격에 따라 계통을 세워 분류한 것이다.⁶⁾

<표 1> 고려 휴일·휴가의 종류 (*’는 추정)

분 류			예 시
휴 일	정기	(=일요일)	매달 초하루·초8일·15일·23일 (약 7일마다 하루, ‘七暇’)
	특별 (비정기)	㉠ 절일 관련	매달 入節日 및 여러 명절, 授衣·蠶暇(농업), 三元日(도교) 등
		㉡ 행사 관련	燃燈·八關(불교), 春社·秋社(사직제) 등
		㉢ 기타 휴일	日食·月食(재이) 등
휴 가	정기*	(=年暇)	※ 별도로 존재했는지 분명하지 않음
	특별 (비정기)	㉠ 상장 관련	斬衰·齊衰 3년에 100일, 자취 1년에 30일 등
		㉡ 제사 관련	부모·조부모 기일에 一日兩宵, 매달 朔望祭에 1일 등
		㉢ 질병 관련	본인 질병 100일, 부모 질병 200일 등
		㉣ 효도 관련	定省暇 3년마다 1회 30일, 掃墳暇 5년마다 1회 15일 등
		㉤ 정부 관련	과거 출제자(兩大業 3개월, 醫·卜·律·書業 2개월, ...) 등

4)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697~708쪽

5) 이정희, 2017, 앞의 글. 하수민, 2015, 앞의 글, 92쪽도 이와 비슷하게 분류했다.

6)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급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 표현인 ‘휴일’과 ‘휴가’라는 말을 쓰려 한다. 휴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쉬는 날이며, 휴가는 신청하여 얻어야 쉴 수 있는 날이다. 또 오늘날과 비슷하게 휴일·휴가를 각각 ‘정기’와 ‘특별’로 대별했다. 정기 휴일은 지금의 일요일, 정기 휴가는 年暇에 해당한다. 특별 휴일과 특별 휴가는 다시 구체적 성격에 따라 세분했다.

먼저 휴일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고려에서 정기 휴일은 마치 오늘날처럼 대략 7일마다 하루를 쉬는 ‘7가(七暇)’였는데, 매달 1·8·15·23일이었다. 이는 달의 운행을 기준으로, 삭(朔)-상현(上弦)-망(望)-하현(下弦)의 주기에 따랐던 것이다.⁷⁾ 다만 실제 삭-상현-망-하현의 간격은 7.38264...일이므로, 때때로 8일 건너 휴일이 생기기도 한다. 한 달이 29일인 소월(小月)에는 7-7-8-7일 간격이 되고, 30일인 대월(大月)에는 7-7-8-8일이다.

그런데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 고려의 정기 휴일 패턴은 상당히 독특하다. 가령 당 관인의 정기 휴일은 10일마다 하루를 쉬는 ‘순가(旬暇)’였다.⁸⁾ 한 달을 기준으로 하면 세 번을 쉬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6일마다 하루인 ‘6가(六暇)’였는데,⁹⁾ 당 이전의 중국 율령을 받아들인 까닭이다.¹⁰⁾ 진령(晉令)에서 이미 한 달에 다섯 번 휴일을 주었고, 진령의 기초적 골격을 이루는 한(漢) 이전의 율령에서도 역시 그러했으리라 추정한다.¹¹⁾

요컨대 고려의 7가는, 한·진·일본의 6가, 그리고 당의 순가와 접점을 찾기 어려운 고유 주기성을 지녔다. 그 유래를 불교나 도교에서의 십재일(十齋日)·명진재일(明眞齋日)과 관련짓는 견해가 있다.¹²⁾ 이들 날(1·8·14·15·18·23·24·28·29·30일)은 당에서는 물론 고려에서도 금살일(禁殺日)이었는데, 고려의 정기 휴일은 이들 가운데 전통적으로 중요시된 숫자인 7의 배수가 되는 날을 취한 것이라는 추정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미 제도로서 자리 잡은 7가가 고려 이전부터 이어져 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¹³⁾ 이는 뒤에서 다시 다룬다.

이어서 여러 특별 휴일은, 관리급가조의 첫머리에 나열된 날을 성격에 따라 편의상 분류한 것으로, 절기나 행사 등에 따라 쉬는 날이다. ㉠ 절일 관련 휴일로는, 24절기에서 홀수 번째에 해당하는 매달 입절일(入節日)과 그 밖의 여러 명절이 해당한다. 농업과 관련된 잠가(蠶暇, 1월 子日·午日)나 수의(授衣, 9.1) 같은 날이나, 도교의 삼원일(三元日)인 상원(上元, 1.15)·중원(中元, 7.15)·하원(下元, 10.15) 등도 있다. ㉡ 행사 관련 휴일은 대표적으로 불교의 연등(燃燈, 2.15)과 팔관(八關, 11.15)을 꼽을 수 있고, 사직제(社稷祭)를 여는 춘사(春社)·추사(秋社)도 이에 해당한다. ㉢ 그 밖에 일식과 월식 등 재이(災異)가 일어날 때 주는 휴일도 있다.

이들 중 연등·팔관, 그리고 잠가는 좀 더 눈여겨 둘만 하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태조의 훈요십조에서도 지속할 것을 당부하듯이 고려의 중요한 국가 행사였다. 이는 당·송·원 등 중국의 가녕령에는 포함되지 않고 오직 고려에서만 쉬던 날이다.¹⁴⁾ 잠가는 양잠에 관련된 휴일로, 중국의 풍습을 고려하면 잠신(蠶神)에 제사를 지내는 등의 활동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잠가 또한 고려에서만 휴일이었고, ‘삼가는 날[慎日]’로서 형을 집행하지 않는 날이기도 했다. 이들은 뒤에서 신라의 휴일을 검토할 때 다시 살펴보겠다.

이들 휴일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기간의 차이다. 관리급가조에는 이들이 며칠을 쉬

7) 하수민, 2015, 앞의 글, 93~95쪽 ; 서금석·김병인, 2014, 「역사적 추이를 통해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56, 137쪽

8) 唐 高宗 永徽 3년(652)에 제정된 것으로, 이에 관해서는 김호, 2015, 앞의 글, 111~112쪽을 참고.

9) 이근우 역주, 2014b, 『영의해 역주 하』, 세창출판사, 251쪽

10) 이정희, 2017, 앞의 글, 13~14쪽

11) 임병덕, 2017, 앞의 글, 374~376쪽

12) 이정희, 2017, 앞의 글, 19~20쪽

13) 하수민, 2015, 앞의 글, 96쪽에서도 이 휴일 주기가 신라 자체의 시간관일 가능성을 언급했다.

14) 이정희, 2017, 앞의 글, 27~28쪽

는지 부기되어 있다. 입절일이나 여타 명절은 대개 하루를 쉴 뿐이지만, 당일에 앞뒤로 각 하루씩 더해 모두 3일을 쉬거나, 길게는 사흘씩 더해 7일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7일을 쉬는 휴일로는 한해를 마무리하는 납향(臘享)과 새해 첫날인 원정(元正)이 있었고, 3일 연휴는 상원·한식(寒食)·입하(立夏)·하지(夏至)·중원·팔관 등이었다. 당시 고려에서 어떤 날, 어떤 시기를 상대적으로 중시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고려 관인의 휴가를 살펴보자. 먼저, 연가에 해당하는 정기 휴가가 따로 주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밖에 여러 비정기적인 휴가 관련 규정은 관리급가조나 여타 편년 기사들을 통해 그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의 분류에서도 보이지만, 대부분이 가족의 장례와 제사, 부모의 간호나 봉양 등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전근대 관인 휴가의 근본 성격이 드러난다. 비단 관리 개인의 재충전뿐 아니라, 효와 예적 질서의 실현을 위한 방편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휴가 규정은 성종대부터 다듬어졌는데, 대체로 당령과 유사하다. ㉠ 상장과 관련한 휴가는 3년상에 100일, 1년상에는 30일, 이어 9월-5월-3월상에는 각기 20일-15일-7일을 주었다. 이는 당·송에서 3년상에 대한 100일 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다.¹⁵⁾ ㉡ 제사와 관련해서는 부모나 조부모의 기일 때 받는 ‘하루 낮 두 밤[一日兩宵]’ 휴가를 예로 들 수 있다. 단, 조부모의 기일은 그 친자가 없는 경우에만 주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어서 ㉢ 관인 자신이 아프면 최대 100일, 부모를 간병해야 할 때는 200일까지 받는 질병 휴가가 있다.¹⁶⁾ 이때 관리가 정해진 휴가 기간을 다 사용하면 해관(解官), 곧 관직에서 물러나게 했다.¹⁷⁾ 또 ㉣ 효도와 관련된 휴가로는 정성가(定省暇)와 소분가(掃墳暇)가 있다. 정성가는 300리 밖에 있는 부모의 안부를 묻도록 3년마다 30일을 주고, 소분가는 부모의 무덤을 청소하도록 5년마다 15일을 주었다.

그 밖에 ㉤ 정무 운영의 편의를 위해 주었던 휴가가 있다. 가령 과거 문제를 출제하는 관리에게 쉬는 날을 주었는데, 제술업(製述業)·명경업(明經業)은 3개월, 의업(醫業)·복업(卜業)·율업(律業)·서업(書業)은 2개월, 산업(算業)은 1개월로 차등이 있었다. 이는 중국이나 일본에는 보이지 않고 고려에만 있던 것이다. 또한 당에서는 지방에 부임하는 관리에게 짐을 꾸릴 시간을 주는 장속가(裝束暇)가 있었는데, 고려도 비슷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¹⁸⁾

이들 휴가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볼 사실이 있다. 먼저, 당시 휴가 신청과 지급의 절차는 관품에 따라 달랐다. 정성가·소분가의 규정을 전하는 기록에는 “5품 이상은 주문(奏聞)하고, 6품 이하는 유사(有司)가 급가한다”라는 언급이 있다. 즉 고위 관인은 국왕에게까

15) 황향주, 2011, 「고려 起復制와 14세기말 起復論爭」, 『한국사론』 57, 서울대 국사학과, 18~30쪽 ; 이정희, 2017, 앞의 글, 35~36쪽. 唐·宋에서는 3년상을 치르게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게 한 탓에 휴가가 불필요했지만, 고려에서는 100일 후에 복귀하도록 권고했기에 그 일수에 맞춰 휴가를 주었다.

16) 이정희, 2017, 앞의 글, 37~38쪽에서는 부모 간병에 원칙적으로 20일을 주고, 부모가 70세 이상이라면 200일을 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이정란, 2021, 앞의 글, 93~95쪽에서는 부모 연령에 따른 구분 없이 200일로 이해했다. 예종 4년(1109)의 判에는 그러한 구분을 두지 않고 부모 간병에 휴가 200일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후자의 견해가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17) 唐에서 解官이란 현직에서 떠나는 것[停職]일뿐, 관품이나 告身 및 그에 따르는 형법상의 특전도 현임관과 같이 지속되었다(김택민 외 편, 2021, 『당률소의 역주 I』, 경인문화사, 99쪽의 주 52).

18) 이정희, 2017, 앞의 글, 39~41쪽

지 보고하여 받고, 하급 관인은 소속 관청 선에서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당과 일본에서도 비슷하였다.¹⁹⁾ 아마도 다른 휴가에서도 대체로 그러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 특정 휴가에 관한 거의 같은 규정이 서로 다른 국왕의 판(判)으로 반복되기도 했다. 조부모의 기일에 대한 휴가 규정, 곧 그 친자가 없는 경우에만 준다는 지시가 성종대에 처음 나타나는데, 이후 현종과 인종도 이를 반복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것을 두고 해당 규정이 성종대에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던 탓으로 여기기도 하지만,²⁰⁾ 달리 이해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아래 해관 규정에 대한 판을 함께 참고하여 살펴보자.

관인이 휴가 100일 기한을 다 채우면 면직되는 규정이 아래와 같이 선종 때의 판으로 처음 나타난다.²¹⁾

선종 10년(1093)에 “휴가를 청하여 100일을 채운 자는 解官한다”라고 判하였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직제)

이를 보면 고려에서 해관 규정은 마치 선종대가 되어서야 처음 만들어진 것처럼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그 이전 성종·종종대에도 관인이 병들어 100일로 정해진 휴가 기한을 넘기면 해관되었다.²²⁾

崔亮은 … [성종 때] 여러 차례 승진하여 左散騎常侍 叅知政事 兼司衛卿이 되었으나, 병 때문에 解官되었다. 얼마 뒤 왕이 좌우 측근들에게 이르기를, “최량이 100일의 휴가 [告]를 받게 되자 御事選官이 법식[例]에 따라 해직을 요청하므로, 내가 이미 허락하였다. 그러나 …” (『고려사』 권93 열전6 최량)

吏部에서 아뢰기를, “衛尉卿 知太史局事 徐雄이 병이 들어 휴가를 요청한 지 이미 180여 일이 지났습니다. 國制에 ‘무릇 임관한 자가 휴가를 청하여 백일을 채운 자는 파직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서응을 파직시키십시오”라고 하였다. … (『고려사』 권6 세가6 정종 12년 5월)

위의 기사들에서 직접 언급되듯이 이는 일찍부터 고려의 ‘예(例)’이고 ‘국제(國制)’였다. 곧 선종 10년의 판은 해관 규정의 최초 성립이 아니라, 과거에 반포된 법령을 왕이 특별히 ‘재확인’하여 실행력을 담보하는 등 권위를 부여했던 것으로 판단하는 편이 자연스럽다.²³⁾

19) 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천성령 역주』, 해안, 409쪽의 「假寧令」 <舊5>. 또한 일본 양로령의 「가녕령」에도 비슷한 내용이 보인다(이근우 역주, 2014b, 앞의 책, 255쪽).

20) 이정희, 2017, 앞의 글, 37쪽

21) 지방 長吏가 병으로 휴가 100일을 채우면 ‘京官의 例’를 따라 파직하라는 규정(『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銓注의 鄉職 관련 현종 16년(1025) 기사)이 있는 것을 볼 때, 이 또한 대체로 병가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다만 규정 자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까닭에, 관인에게 정기 휴가가 주어졌다면 이 기한에서 일수가 차감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현종대의 判을 보더라도 선종대의 判을 해관 규정의 최초 성립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22) 이정희, 2017, 앞의 글, 36쪽의 주84에서 지적되었다.

23) 이와 관련해 채웅석, 2009, 『高麗史』 刑法志 所在 “判”에 대한 考察, 『동방학지』 148, 59쪽을 참고

앞서 친자가 없는 조부모의 기일에 휴가를 준다는 성종대 규정을 현종·인종대에 반복해 지시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법제화된 휴가가 꼭 관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정성가와 소분가는, 현직 관리뿐 아니라 등제(登第)했지만 아직 직임은 없는 이들에게도 같은 조건으로 주어졌다. 또한 인종대에는 군인(軍人)이 부모상을 당하면 100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고,²⁴⁾ 부모의 묘를 개장(改葬)할 때 주는 30일의 휴가는 관인·군인뿐 아니라 기인(其人)에까지 적용되었다.²⁵⁾

당이나 일본의 율령을 보더라도, 가녕령 이외에 잡령(雜令)이나 학령(學令) 등 다른 편목에 걸쳐 관호(官戶)와 관노비(官奴婢), 학생 등에 대한 휴일·휴가 규정이 확인된다. 고려에도 비슷한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²⁶⁾ 당시 휴일·휴가 제도가 관인을 주된 대상으로 삼기는 하지만, 넓게는 공적 영역에 속한 이들 전반에 걸쳐 작동했던 것이다.

이처럼 고려에서는 율령을 통해 체계적으로 휴일과 휴가가 운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고려 이전에는 어떠했을까?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그 이전 시기의 ‘제도’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진한 시기부터 관리나 군졸 등의 휴일·휴가가 율령에 규정되어 있었음을 고려하면, 신라를 비롯한 고대 한반도 여러 나라들도 일찍이 그 영향을 받아 일정하게 관련 제도를 마련했으리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지금껏 살핀 고려시기의 규정이 모두 당시의 창안일 수는 없다.

신라 말 경순왕이 왕건에게 의탁할 때, 많은 신료가 함께 귀부하여 대거 개경으로 이주해 갔다. 이에 진골 귀족뿐 아니라 6두품 출신들에 이르기까지, 기존 신라 중앙정부의 구성원 다수가 고려 관인사회에 수용되어 활동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²⁷⁾ 이와 더불어 건국 초기 고려가 관제(官制)나 관계(官階) 등 통치구조의 중요 부분에서 신라의 것을 모방·참작, 혹은 병용하였음을 고려하면,²⁸⁾ 다른 제도의 계승도 자연스레 짐작된다.

특히 휴일과 휴가는 당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공유해 온 시간관념이나 감각, 삶의 리듬과도 대단히 밀접하다. 따라서 약간의 변용은 있을지라도, 이를 토대로 신라가 운용했을 규정이나 방식 등의 큰 틀을 무시하기는 더욱 어려웠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신라의 휴일·휴가와 관련된 여러 사료를 검토하면서, 그 제도의 존재와 운영 양상을 논의하고자 한다.

3. 신라 관인의 휴일·휴가 사례

1) 계곡, 동굴을 찾은 관리들

24) 『고려사』 권81 지35 병1 兵制 五軍조의 인종 6년(1128) 기사

25) 『고려사』 권64 지18 예6 凶禮 五服制度조의 정종 3년(1037) 기사

26) 상을 당한 죄수에게도 일정하게 휴가를 주었던 사실은 고려에서도 확인된다(『고려사』 권85 지39 형법2 恤刑 무편년 기사).

27) 이와 관련해서는 전기웅, 1993, 「高麗初期의 新羅系勢力과 그 動向」 『부대사학』 17을 참고

28) 황선영, 2003, 「敬順王의 歸附와 高麗初期 新羅系勢力의 基盤」 『한국중세사연구』 14, 72~7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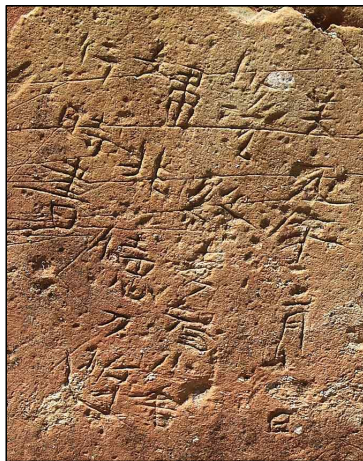
울주 천전리 서석이 있는 계곡은 신라 사람들이 많이 다녀간 명승지로 잘 알려져 있다. 바위에 새겨진 525년의 원명(原銘)에는, 사탁부의 갈문왕과 그 일행이 이 계곡에 찾아와 ‘서석곡(書石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왕경인들이 서석곡을 즐겨 찾았던 데에는, 거리가 가깝고 교통도 수월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⁹⁾ 원명과 추명(追銘)에서처럼 사부지(徙夫知) 갈문왕이나 무즉지태왕비(另郎知太王妃) 등 왕실 가족이 찾아왔던 것이 보이고, 신라 청년들이나 승려가 남긴 명문도 많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관등을 가진 왕경인이 ‘개인적으로’ 서석곡을 방문한 흔적이 새삼 눈길을 끈다. 가령 675년의 상원(上元) 2년명에는, 아래와 같이 ‘대아간(大阿干)’을 소지한 인물이 다녀간 기록이 확인된다.

上元二年乙亥正月廿日加具見之匕也大阿干 卅八△△³⁰⁾ (상원 2년명, 강조는 필자)

명문에 직접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대아찬 관등을 지닌 이라면 진골 귀족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직임에 있었을 것이다. 반면 그에 비해 훨씬 낮은 관등의 인물이 서석곡을 찾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명문도 있다.

癸亥年二月八日 / 沙喙△凌智小舍 / 婦兆德刀遊 / 行時書 (계해명, 강조는 필자)



<그림 1> 천전리 서석
계해명



<그림 2> 계해명과 그 아래의 선각화

계해명(<그림 1>)은 543년 진흥왕대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계해명은 ‘△릉지(△凌智) 소사(小舍)’의 부인인 ‘조덕도(兆德刀)’ 1명이 다녀간 사실로 이해한다.³¹⁾ 그러나 명문과 짝지어 새겨진 선각화(<그림 2>)를 보면, 부부가 함께 나들이 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당 그

29) 물론 乙卯銘에 나타나는 ‘居智伐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왕경인만 방문했던 것은 아니다.

30) 강종훈, 2016, 「명문의 새로운 판독을 통해 본 울주 천전리각석의 성격과 가치」 『대구사학』 123, 18쪽을 따랐다. 다른 판독에서도 ‘대아간’에는 큰 이견이 없다.

31) 나희라, 2016, 「천전리 각석에 남겨진 사람들의 모습」 『울산 반구대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연구』,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한국암각화학회, 184쪽 ; 강종훈, 2016, 앞의 글, 14~15쪽 ; 전호태, 2018, 「천전리 각석 명문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91, 233쪽

림에는 말을 탄 사람을 포함해 모두 4인의 행차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말 위의 인물은 행렬의 중심에 있어 주인공으로 생각되는데, 허리에 칼을 차 남성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릉지 소사’가 아닐까 추정된다.³²⁾

그리고 그 앞에는 치마를 입은 여성이 묘사되어 있다. 쉽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여성이 바로 ‘조덕도’일 가능성이 있다.³³⁾ 또 좌·우 가장 끝에 그려진 이들은 부부를 수행하던 하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계해명은 소사 관등의 인물이 부인 및 수행자와 함께 서석곡에 놀러 와 작성했던 기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신라 관인들이 휴식을 위해 찾은 장소는 서석곡 이외에도 있다. 고려 말 이곡(李穀)이 쓴 유람기나 조선 초 김시습(金時習)의 시를 통해서,³⁴⁾ 울진의 성류굴은 예부터 많은 사람이 다녀갔던 명승으로 알려졌다. 최근 여기 굴 안팎으로 신라인의 새김글이 다수 발견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다.³⁵⁾ 입구 쪽 암벽의 명문에도 아래와 같이 ‘대나마(大奈麻)’ 관등을 지닌 인물이 등장한다.

癸亥年三月 / 八日窟主荷智 / 太奈麻未△△ / 此時我沂大尺 / △古五十(?)持△ / 知人大息食 / 刀人△咎△³⁶⁾ (성류굴 입구 신라 각석문, 강조는 필자)

명문의 계해년은 진흥왕대인 543년³⁷⁾ 혹은 문무왕대인 663년³⁸⁾으로 추정된다. 대나마 하지(荷智)의 이름 앞에 관독되는 ‘굴주(窟主)’를 동굴과 관련된 직임으로 보고, 이날 성류굴에서 제의나 종교적 행사가 있었고³⁹⁾ 하지는 그와 관련된 인물이었으리라 생각하고는 한다.⁴⁰⁾ 하지만 관독이 어려운 탓에 명문의 내용만으로는 것처럼 추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대나마 관등의 하지, 혹은 하지와 그 일행이 성류굴에 와 “크게 쉬고 먹었다[大息食]”는 점을 확인된다.

또 성류굴 내부의 제8광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이름과 소속 관청, 그리고 직명을 적은 명문(<그림 3>)이 발견되었다.⁴¹⁾

32) 계해명과 그 행렬도에 관해서는 하일식, 2022, 「천전리 서석 명문과 생활사의 실마리」 『신라문화』 60, 110~111쪽을 참고. 다만 명문과 그림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김현권, 2011, 「천전리 암각화에 대한 신라인의 이해와 행렬도 제작」 『강좌미술사』 36, 99~100쪽).

33) 강영경, 2015, 「울산 천전리 서석곡의 명문과 세션화에 보이는 여성」 『한국암각화연구』 19, 11~13쪽에서는 이 여성을 제의의 주관자로 이해했다. 그러나 계해명의 내용(“遊行”)을 볼 때 이들이 방문한 목적은 유람이다.

34) 『稼亭集』 권5 「東遊記」 및 『梅月堂詩集』 권12 「宿蔚珍聖留窟」

35) 박흥국·심현용, 2015, 「울진 성류굴 입구 암벽에서 삼국시대 신라 명문 발견」 『울진문화』 29 ;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新羅 刻石文 발견 보고」 『목간과 문자』 22

36) 국립경주박물관, 2019, 『신라문자자료Ⅱ』, 66쪽의 관독을 따르되, 인명의 ‘付’는 ‘荷’로 읽었다.

37) 박흥국·심현용, 2015, 앞의 글 ; 김재홍, 2019, 「신라 刻石 명문에 보이는 화랑과 서약」 『신라사학보』 45 ; 심현용, 2019, 앞의 글, 355쪽

38) 이영호, 2016,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 『목간과 문자』 16 ; 이용현, 2016, 「울진의 금석문」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성림문화재연구원

39) 이영호, 2016, 앞의 글, 255~256쪽에서는 이날을 663년 3월 8일, 양력으로는 4월 20일인 穀雨로 보고 풍년을 기원한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40) 이용현, 2016, 앞의 글, 187쪽 ; 김재홍, 2019, 앞의 글, 273~274쪽

41) 심현용, 2019, 앞의 글, 338~339쪽 및 <그림 14>

兵府史 / 礼生行 (성류굴 내부 각석문, 제8광장 2지굴, 강조는 필자)

‘병부(兵府)’는 법흥왕이 517년에 처음 설치한 군사 관계 부서인 병부(兵部)이다. 사(史)는 대개 말단 실무를 담당한 이들로, 병부의 사에는 선저지(先沮知)부터 대사(大舍)까지가 취임할 수 있었다. ‘예왕(礼生)’이라는 인물의 관등도 이 범위 내였을 것이다. 이는 곧 병부사였던 예왕이 성류굴에 와서 제법 깊은 곳까지 둘러본 후 남긴 명문이다. 이름과 관직만 단순히 새긴 것으로 볼 때 개인적 유람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⁴²⁾



<그림 3> “兵府史 / 礼生行”



<그림 4> “...吉士”

제천의 점말동굴에도 관청에 소속된 왕경인이 남긴 명문이 있다. 점말동굴은 1973년부터 1980년까지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남한지역 최초의 구석기시대 동굴유적이다. 그런데 동굴 외벽에서 신라 사람들의 새김글이 여럿 발견되었다.⁴³⁾

<표 2> 제천 점말동굴 각석 ‘礼府史’

<p>탁본⁴⁴⁾</p>	<p>직접 촬영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p>	

42) 최근 성류굴의 제11광장의 암벽에서는 신라 14번째 관등인 ‘吉士(吉士)’의 명문도 발견되었다 (<그림 4>). 이 역시 비슷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43) 1979년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서 처음 확인되었고, 2009년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도 재조사하였다. 국립경주박물관, 2019, 앞의 책, 86~95쪽을 참조

이들 대다수는 방문자의 이름 등을 간단히 적은 것인데, 그 중 <표 2>의 명문이 눈에 띈다. 처음 두 글자 ‘예부(禮府)’는 신라 진평왕대 설치한 의례·교육 관계 부서인 예부(禮部)이다. 세 번째 글자는 하단부가 훼손되어 ‘중(中)’으로 읽기도 했다.⁴⁵⁾ 그러나 확대 사진을 참고하면 네 번째 획(‘ノ’)이 좌하단으로 휘어 있고, 마지막 획(‘ㄴ’)의 흔적도 돌조각의 경계와는 분명히 구분되어 확인된다. 이 글자는 ‘사(史)’로,⁴⁶⁾ 곧 예부의 말단 관리인 예부사가 점말동굴에 다녀갔을 때 남긴 것이다.

이처럼 울주 서석곡이나 울진 성류굴, 제천 점말동굴처럼 신라인이 자주 찾았던 장소에는 왕경에서 근무하던 이들의 흔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특히 비교적 낮은 관등과 관직을 지냈더라도, 고된 업무가 없는 날이면 이따금 풍광이 좋은 곳에 왔던 사실이 엿보인다. 『삼국사기』에서 “산과 물을 노닐며 멀리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遊娛山水無遠不至]”⁴⁷⁾고 한 언급은, 꼭 화랑도(花郎徒)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젊은 관인을 포함한 당시 청·장년층에 까지도 넓게 해당하는 이야기였던 듯하다.

일상적인 공무가 맡겨진 관인들이 여가를 즐기려면, 나라에서 인정하는 쉬는 날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나아가 때로는 그것이 2~3일 이상의 ‘연휴’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경주에서 30km 남짓 거리의 서석곡이라면 당일 왕복도 문제가 없겠지만, 130km 이상 떨어져 있는 성류굴만 하더라도 이는 어렵게 된다. 말의 속도나 하루에 가는 거리를 생각해 물리적으로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휴가 가는 길이 파발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서 ‘△릉지 소사’의 사례처럼, 왕경인 관리의 여정은 때때로 부인이나 가족, 시종 등과 함께였을 가능성도 있다. 성덕왕 때 강릉 태수로 임명된 순정공(純貞公)은 부임길에 수로부인(水路夫人)과 함께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고, 이틀을 더 가 임해정(臨海亭)에서 다시 점심을 먹었다.⁴⁸⁾ 임해정은 삼척에 있으니, 순정공 일행이 경주에서 삼척까지 가는데는 편도로 2일이 넘게 걸린 셈이다. 그렇다면 성류굴이나 그 이상 떨어진 점말동굴에 다녀오기 위해서도 그 이상의 쉬는 날이 필요했을 것이다.

2) 득오의 청가, 충공의 병가

그런가 하면 문헌에서는 개인이 별도로 휴가를 청하여 받는 사례가 확인된다. 먼저 죽지랑(竹旨郎)과 득오(得烏), 익선(益宣)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자. 『삼국유사』에서는 이를 효소왕 때 일어난 사건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평왕 말년에서 선덕왕 초년 정도의 일로 이해한다.⁴⁹⁾

44) 이도학, 2017, 앞의 책, 257쪽의 명문 J

45) 이도학, 2017, 『新羅·加羅史 研究』, 서경문화사, 255~257쪽

46) 최근에는 이렇게 ‘禮府史’로 판독한 안(이용현)이 제시되었다(국립경주박물관, 2019, 앞의 책, 89쪽).

47) 『삼국사기』 진흥왕 37년

48) 『삼국유사』 기이2 수로부인

49) 김철준, 1990, 「新羅 貴族勢力의 基盤」 『韓國古代社會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331쪽(첫 게재: 1962, 『인문과학』 7,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74쪽)

득오는 죽지의 낭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량리(牟梁里) 익선(阿干)의 뜻에 따라 부산성(富山城) 창고지기[倉直]로 차출되어 가버렸다. 득오가 열흘 넘게 보이지 않자 죽지는 무리 137명을 이끌고 찾아갔는데, 그를 잠시 데리고 돌아가기 위해 익선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이 제법 자세하게 묘사된다.

[죽지랑이] …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득오실이 어디 있는지 물었다. 그가 “지금 익선의 밭에서 例에 따라 差役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낭은 밭으로 돌아가 가져온 술과 떡으로 그를 먹였다. 익선에게 휴가를 청하여(請暇) 함께 돌아가려 했으나, 익선은 완고하게 안 된다며 허락하지 않았다.

이때 使吏 侃玆이 推火郡 能節의 租 30석을 거두어 성 안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 [그는] 낭이 土를 중히 여기는 風味를 아름답게 여기고, [익]선이 사리에 어둡고 꼭 막혀 융통성이 없는 것(暗塞不通)을 비루하게 여겨, 가지고 가던 30석을 익선에게 주고는 [득오의 휴가를] 청하는 것을 도왔다. 그래도 허락하지 않아 또 玆節 舍知의 騎馬 鞍具를 그에게 주니 비로소 허락하였다. (『삼국유사』 기이2 효소왕대죽지랑, 강조는 필자)

득오는 죽지가 익선의 밭에 올 때까지도 일하고 있었듯이, 그날이 원래 득오의 쉬는 날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자신이 모시던 화랑을 갑작스레 열흘 넘게 보지 못하다가 겨우 만나게 되었기 때문인지, 죽지가 원하는 대로 별도의 휴가를 신청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죽지와 그의 무리를 등에 업고 무언가 특혜를 요구했던 것이라기 보다는, 직임을 지닌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상식적이고 공적인 권리 내의 요청이었으리라 생각한다.⁵⁰⁾ 비록 죽지가 술정공(述宗公)의 아들이며 백 명이 넘는 무리를 대표하는 화랑이었다 하더라도, 아찬 관등을 소지한 공직자를 밀어붙여 없는 혜택을 갑자기 만들어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리 간진이 익선의 거부를 ‘융통성 없는 것’으로 여기고, 진절 사지도 함께 청가를 도왔던 사실을 봐도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들이 곡식과 말안장 같은 ‘뇌물’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사사로운 특혜의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굳이 막으려던 익선의 고집을 꺾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득오의 휴가를 위해 주위 인물들이 익선을 설득하는 모습에서, 당시의 청가가 소속 관부 상급 관리자의 허가·결재를 필요로 했다는 사실이 보인다. 때때로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면, 상급자 선에서 판단해 이를 거부할 수도 있었을 듯하다. 익선이 처음 두 차례 청가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득오의 청가 사유가 무언가 긴급한 사정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반면 이보다 특별하고 위급한 사유로 휴가를 냈던 신라 관인의 사례도 기록에 한 군데 남아 있다. 『삼국사기』 녹진전(祿眞傳)에는, 헌덕왕 때 각간(角干) 충공(忠恭)이 치료를 위해 병가를 얻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50) 죽지가 득오를 잠시 데리고 돌아가려는 것을 부역에서 면제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기도 했다(김철준, 1962, 앞의 글, 276쪽). 이러한 맥락에서는 익선의 ‘공적’인 징발과 대조하여 죽지의 시도를 ‘사적’인 차출로 볼 수도 있다(하일식, 2007, 「김대성과 죽지랑 이야기를 따라」 『내일을 여는 역사』 27, 229쪽을 참조). 그러나 사료로만 볼 때 득오는 죽지와 잠시 돌아가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는, ‘공적’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생각된다.

[헌덕왕] 14년(822)에 … 각간 충공이 상대등이 되어 政事堂에 앉아 내·외관을 注擬하였다. 공무에서 퇴근하는데, 병을 느껴 國醫를 불러 진맥하니 “병이 심장에 있어 모름지기 龍齒湯을 복용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마침내 21일(三七日)의 휴가를 신청하고는(告暇), 문을 닫고 손님을 만나지 않았다. (『삼국사기』 열전5 녹진, 강조는 필자)

이처럼 충공이 병을 얻어 휴가를 냈을 때, 집사시랑이었던 녹진은 그것이 마음의 병이라 생각하고 충공을 찾아가서는 직언을 한다. 그러자 충공은 병가 중임에도 채비를 갖추어 왕에게 나아가 녹진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한다.

각간은 이에 醫官을 사양해 물리고, 수레를 타고 가 왕을 뵈었다. 왕이 “경에게 날짜를 정해 놓고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조정에 나왔는가?”라고 말하였다. 답하기를, “신이 녹진의 말을 들었는데 藥石과 같았습니다. 어찌 용치탕을 마시고 그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을 위해 [녹진의 말을] 하나하나 진언하였다. (『삼국사기』 열전5 녹진, 강조는 필자)

이때 충공의 병가와 관련해, 헌덕왕이 “날짜를 정해 놓고[翹日]” 약을 먹으라 했던 점이 주목된다. 곧 병으로 인한 것이라도, 휴가를 요청하면 기한이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충공의 경우 21일이었지만, 질환의 경중이나 제반 사정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⁵¹⁾

충공은 각간 관등을 지닌 상대등이었다. 고려나 다른 나라의 율령에서는 품계가 높은 관인일수록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이 오히려 더 짧았다는 점을 참고하면,⁵²⁾ 신라의 최고 관직자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기는 어려웠을 일이다. 허가한 시일이 지나기도 전에 왜 입조했느냐는 염려 섞인 다그침에서 짐작하건대, 어쩌면 병이 깊음을 알고도 정무에 나서려던 충공을 헌덕왕이 21일이나마 꼭 쉬도록 권했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한편 상대등은 이렇듯 제일 높은 관직인데다가 특정 관청에 속했다고 보기는 어려워,⁵³⁾ 청가의 행정 절차가 앞서 득오의 사례와 다르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고려시기 규정에서도 고위 관인은 국왕에 보고하지만 하급 관인은 소속 관청 선에서 승인했듯이, 관품의 고하에 따라 ‘결재선’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득오의 청가는 익선의 허가만으로 가능했던 점에서 미루어보면, 신라 역시 하급 관인은 소속 관청 선에서 판단하여 휴가를 승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관리의 전체 휴가 일수 등은 상시 기록·집계되어 추후 상부에 보고될 수 있었겠지만,⁵⁴⁾ 개별 휴가 하나

51) 다만 앞서 고려 때 관인의 병가에 최대 100일이 주어졌던 것처럼, 신라도 휴가 일수에 상한이 있었다. 자세하게는 다음 장에서 후술.

52) 김호, 2015, 앞의 글, 112쪽. 京官의 職事官 3품 이상은 3일, 5품 이상은 10일을 준다는 조문이 있다(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앞의 책, 409쪽의 「假寧令」(역주 김호) <舊5>). 일본의 養老令에도 거의 같은 규정이 보인다(이근우 역주, 2014b, 앞의 책, 255쪽). 고려에도 參上官과 參外官 간에 차이를 두는 예종 4년(1109)의 判이 있다(이정희, 2017, 앞의 글, 37~38쪽 참고).

53) 상대등이 위화부의 령을 겸직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이인철, 1993, 『신라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38~39쪽), 분명한 사례는 없다(박수정, 2016, 『三國史記』 職官志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5쪽의 주38).

54) 고려의 경우, 관리의 1년 근무일과 휴가일을 집계하는 ‘年終都歷’이 있었다(『고려사』 권75 지29

하나까지 매번 허가를 구하거나 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충공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위 관직자의 청가라면 사전에 최종적으로 국왕에 보고되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일반적으로는 소속 관청을 통해 보고하여 재가를 받고, 상대등과 같은 경우에는 왕에게 주상하여 허락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4. 신라 휴일·휴가의 종류와 규정

이처럼 신라에서도 휴일·휴가의 존재뿐 아니라 그 절차와 제한 등 나름의 규정을 갖고 운영되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이제 신라가 고려와 연속성을 갖는다는 시각에서, 휴일·휴가의 성격에 따라 계통을 세우고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라의 휴일과 휴가 양상을 복원할 만한 간접적 기록도 아울러 살펴야 할 것이다.

1) 정기 휴일과 특별 휴일

신라에도 고려나 주변 나라들처럼 정기 휴일이 있었을까? 분명한 자료를 찾기는 어렵지만, 아래 기록에서 그 존재가 암시된다.

법사 眞定은 신라인이다. 속인(白衣)이었을 때는 卒伍에 적을 두었는데, 집이 가난하여 장가들지 못하였다. 郞役을 하고 남는 시간에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집 안에 재산을 계산해보니, 오직 다리가 부러진 철 술 하나뿐이었다. (『삼국유사』 효선9 진정사효선쌍미, 강조는 필자)

고려에서 관인 이외에도 군인이나 기인 등 공적 영역에 속한 이들까지 여러 휴가 규정이 적용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중국과 일본 역시 수졸(戍卒)이나 노비에게도 순가 등의 정기 휴일을 주었다. 마찬가지로 졸오에 속해 부역을 지던 진정이 생계 유지를 위해 가뭇일을 할 수 있던 것에서 볼 때, 신라에도 주기적으로 쉬는 날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다만 그것이 며칠마다 쉬는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이 당령 이전의 중국 율령에서 6가를 수용했듯이, 신라도 그러했을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한다.⁵⁵⁾ 하지만 그보다는 고려 이전부터 이어져 온 ‘7일 단위’의 독특한 역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⁵⁶⁾ 다른 나라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일찍부터 한반도 사람들은 7일을 한 단위로 즐겨 해야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삼칠일(三七日)’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간에서 삼칠일은 아이를 낳은 산모가 몸을 조심하는 기간을 가리킨다. 이는 단순히 합계 21일이 아니라, 7일씩 세 번의 주기를 뜻한다. 일찍이 웅녀(熊女)가 쑥과 마늘을 먹은 기간이 삼칠일이고,⁵⁷⁾ 진표율사가 보

선거3 銓注). 일본에서는 관인의 근무일을 집계하는 考課 관련 목간이 상당수 확인된다.

55) 홍승우,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243~247쪽 ; 이정희, 2017, 앞의 글, 14쪽

56) 이정희, 2017, 앞의 글, 20쪽의 주35에서 지적된 바 있다.

57) 『삼국유사』 기이1 고조선왕검조선

살을 만나기까지 정진한 것도 삼칠일이다.⁵⁸⁾ 특히 앞서 현덕왕대 상대등 충공이 병가를 낸 기간 또한 삼칠일이었던 점은, 신라인들이 휴일이나 휴가와 관련해서도 7일을 단위로 헤아리곤 했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민속 신앙이나 주술, 혹은 불교적 관습에서 유래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7일 단위로 헤아리는 전통이 오래 유지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되며, 일정하게 제도상에 적용되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중국·일본과 달리 고유한 주기를 갖는 7가가 고려시기에 갑자기 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신라 때부터 이어져 왔을 개연성이 높다.

만약 신라의 7가도 고려처럼 매달 1·8·15·23일의 주기였다면,⁵⁹⁾ 왕경인 관리가 서석곡에 놀러 온 2월 ‘8일’(계해명)이나, 성류굴에서 먹고 쉰 3월 ‘8일’(입구 각석문) 등의 날짜를 다르게 이해할 여지도 생긴다. 그간 연구에서는 이러한 명문의 일자를 대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로 맞추어보려는 경향이 있었다. 서석곡이나 동굴이 성소(聖所)였다는 이해가 강조되어 온 탓에,⁶⁰⁾ 이곳에 다녀간 특별한 목적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과도한 해석을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는 당시 신라인이 휴일에 평범히 놀러 와서 쉬었다고 하는, 삶의 중요한 일면을 놓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절기나 행사에 따르는 여러 비정기적 휴일의 존재를 생각해보자. 고려에서 휴일이었던 절일·행사 가운데에는 신라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 더러 있어 참고가 된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고려에서만 휴일이었던 정월의 잠가가 대표적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잠가의 유래는 신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1대 毗處王<혹은 소지왕이라 한다> 즉위 10년 戊辰에 … [焚修僧과 宮主] 두 사람은 사형당했다. 이로부터 나라의 풍습에 해마다 正月 上亥日·上子日·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꺼리고 조심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15일을 烏忌日로 삼아 찰밥으로 제사를 지냈다. 지금도 행하는데, 민간에서는 怛怛라고 하니 슬퍼하고 조심하며 온갖 일을 금하고 꺼리는 것을 말한다. (『삼국유사』 기이1 사금갑, ◇ 안은 細注, 강조는 필자)

이는 소지왕 때 궁에서 몰래 간통하던 승려와 궁주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금갑 설화다. 이후 매해 정월 상해일·상자일·상오일에는 몸을 삼가고, 15일은 오기일(烏忌日)로 삼아 제사 지냈다고 한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이 중 상자일과 상오일이 잠가에 해당하며, 고려에서도 삼가는 날이었다.⁶¹⁾ 그런데 신라 때에는 잠가가 단지 풍속으로 삼가는 날이었고, 고려시기에나 비로소 제도적 휴일이 된 것일까? 다음 기록을 살펴보자.

처음 文姬의 언니 寶姬가 西岳에 올라가 오줌을 누는데 그 오줌이 수도에 가득 차는

58) 『삼국유사』 의해5 관동풍악발연수석기

59) 연등회의 기원으로 이해되는 2월의 홍륜사 복회가 ‘8일’에 시작해 ‘15일’에 마쳤던 것도, 정기 휴일을 고려한 일정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하수민, 2015, 앞의 글, 95~96쪽 참고).

60) 기존의 이러한 이해에 대해, 천전리 서석의 명문에서 의례나 제사에 관련된 직접적 흔적을 찾기는 어려운 데다가 ‘가벼운 낙서’도 많아 이곳을 聖所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지적(하일식, 2022, 앞의 글, 116쪽)이 시사를 준다.

61)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禁刑.

꿈을 꾸었다. … 언니가 말하기를 “어젯밤의 꿈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였다. 문희는 비단 치마로 꿈을 잤었다. 10일이 지나 유신이 춘추공과 함께 正月 午忌日<앞의 사금갑조에 보이며 최치원의 설명이다>에 유신의 집 앞에서 蹴鞠을 하였다<신라 사람들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축국이라 하였다>. 일부러 춘추공의 옷을 밟아 저고리 고름〔襟紐〕을 떨어뜨리게 하고 말하기를 “청컨대 저의 집에 들어가서 께맵시다”라고 하니 공이 그렇게 하였다. (『삼국유사』 기이1 태종춘추공, ◇ 안은 細注, 강조는 필자)

이는 김유신과 김춘추에 얽힌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두 사람이 축국을 한 날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점이 주목된다. 바로 ‘정월 오기일(午忌日)’이라 한 것인데, 앞서 사금갑조에 언급된 여러 삼가는 날 가운데 정월 상오일(上午日)에 해당한다.⁶²⁾

유신과 춘추가 어울려 축국을 하던 당시 이들은 대체로 임관한 상태였으리라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문희는 춘추와 만나 곧 임신한다. 문무왕 법민의 생년이 626년이므로, 문희가 춘추와 관계하여 법민을 났 해도 625년에서 626년 사이일 것이다.⁶³⁾ 문희와 춘추의 첫 만남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신과 춘추가 축국을 했던 때는 넉넉하게 잡아도 620년대 초중반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595년생인 유신은 26~31세, 603년생인 춘추는 18~23세 정도가 된다.

22세에 사인(舍人)이었던 이차돈의 사례가 있듯이, 진골 자제들이 20세 전후로 공적 지위를 갖고 활동했던 것은 그리 특별한 일이 아니다. 더욱이 김유신은 얼마 지나지 않은 629년 8월, 고구려와의 낭비성 전투에서 부장군(副將軍) 혹은 중당당주(中幢幢主)로 활약했다. 김춘추 또한 앞서 『삼국유사』 태종춘추공조에서 이어지는 기록을 보면 왕의 행차를 수행한다. 당시 이들은 일정한 관등과 관직을 지닌 관인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들이 사적으로 모여 함께 공놀이를 할 수 있었다면, 당시 정월 오기일은 공휴일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사금갑조에서 보듯이 이날은 본래 “모든 일을 꺼리고 조심하여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유신과 춘추는 공을 차며 놀았던 사실도 흥미롭다. ‘삼가는 날’이라는 관념은 이미 벌어지고, 공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로 인식하며 행동하고 있던 것이다. 해당 시점에서도 이날이 휴일로 정착한 지 꽤나 오래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은 아닐까 한다. 이렇게 볼 때 삼가, 혹은 그 기원이 되는 사금갑조의 기일은 일찍이 신라 때부터 제도상의 휴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고려 때 휴일이었던 추석도 주목된다. 익히 알려졌듯이 추석은 『삼국사기』 유리이사금 기사에서 전하는 가배(嘉俳)에 기원을 둔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구당서』 신라전이나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보면, 이날이 신라 고유의 중요 명절임이 잘 드러난다.

元日を 중히 여겨서 서로 [이날을] 축하하고 연회를 베푸는데, 해마다 이날에는 日月神에게 절을 한다. 또 8월 15일을 중히 여겨서 풍악을 울리고 연회를 베풀며, 群臣을 모아 宮庭에서 활쏘기를 한다. (『구당서』 동이전 신라, 강조는 필자)

62) 김영준, 2019, 「신라 오기일(烏忌日) 축국의 양상과 성격」 『한국학연구』 55, 인하대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축국을 한 날을 ‘烏忌日’이라 하였으나, 午忌日(上午日)과 烏忌日은 구별해야 할 것이다.

63) 이와 관련해서는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44~45쪽을 참고

절에서 饅飩과 餅食 등을 마련하여 8월 15일 명절을 지냈다. 이 명절은 여러 다른 나라에는 없고 오직 신라국에만 유독 이 명절이 있다. … 온갖 음식을 마련하고 가무와 음악을 연주하며 밤낮으로 이어져 3일 만에 끝이 난다. 지금 이 산원에서도 고국을 그리워하며 오늘 명절을 지냈다. (『입당구법순례행기』 권2 개성 4년 8월 15일, 강조는 필자)

『구당서』의 서술에서 보듯이, 이날은 관인들이 통상 업무를 하는 대신 연회와 활쏘기를 즐겼다.⁶⁴⁾ 그러한 만큼 추석 역시 휴일로 규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고려에는 3일이나 7일 연휴인 절일이 있었듯이, 3일간 연회가 이어졌다는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록을 참조할 때 신라의 추석은 최소 3일 연휴였을 가능성도 있다.⁶⁵⁾

한편 고려의 독특한 휴일인 연등(2.15)과 팔관(11.15)도 신라와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연등회는 일반적으로 신라 원성왕대 보이는 복회(福會)에서 이어져 온 것으로 이해한다.⁶⁶⁾ 『삼국유사』 김현감호조에 보듯이, 이는 2월 초8일부터 15일까지 도성의 남녀가 흥륜사의 전(殿)·탑(塔)을 도는 민간 풍속이었다.

팔관회는 진흥왕대인 551년에 고구려의 해량법사가 신라의 승통이 된 이후 처음 백좌강회와 ‘팔관지법(八關之法)’을 베풀었다고 하며, 572년 10월에는 죽은 병졸을 위해 외사(外寺)에서 ‘팔관연회(八關筵會)’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다.⁶⁷⁾ 또 선덕여왕대 자장법사가 당에서 신인(神人)을 만나, 황룡사 9층탑을 세우고 ‘팔관회’를 베풀라고 들었던 것⁶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후 어느 시기부터는 11월마다 팔관회가 행해졌으리라 추정되는데, 898년 궁예가 11월에 연 팔관회는⁶⁹⁾ 이를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된다.⁷⁰⁾

그밖에 원일(1.1)이나 단오(5.5) 등 중국에서 유래하거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여러 절일도, 이미 신라에서부터 관련 기록이 확인된다.⁷¹⁾ 또 고려의 춘사·추사와 같은 행사 관련 휴일도 신라의 사시제(四時祭)와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이런 날들 역시 신라에서 단순한 풍속으로 그쳤던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휴일로 규정되었던 것이라 추정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고려에서는 이를 일정하게 계승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2) 여러 휴가와 해관 규정

64) 비슷한 내용이 『수서』와 『북사』에도 있다.

65) 이는 엔닌이 중국 赤山 法華院에서 겪은 일이지만, 신라 본국도 비슷했을 것이다. 이렇듯 신라 추석이 3일 연휴였다면, 고려에서는 하루로 축소된 셈이다. 중국 역시 나라가 바뀌며 연휴 길이가 변동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이정희, 2017, 앞의 글, 21~22쪽의 표4 참조).

66) 정구복·주영하, 2003,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세시풍속 연구」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삼국·고려시대 편 -』, 국립민속박물관, 441쪽을 참고

67) 『삼국사기』 열전4 거칠부 및 신라본기 진흥왕 33년 10월 20일

68) 『삼국유사』 탑상4 황룡사구층탑

69) 『삼국사기』 열전10 궁예

70) 정구복·주영하, 2003, 앞의 글, 442쪽 ; 최광식, 2019, 「문헌상으로 본 신라의 세시풍속」 『신라사학보』 47, 177쪽을 참고

71) 신라의 단오에 관해서는 김영준, 2020, 「신라 단오고사의 양상과 성격」 『민속학연구』 47을 참고

이제 신라 휴가에 관해 검토해보자. 앞의 <표 1>에서 고려의 휴가를 성격에 따라 분류했듯이, 신라에서도 일부나마 이에 대응하는 휴가의 존재를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직접 사례를 찾기는 어렵지만 ㉠ 상장 관련 휴가는 일찍이 신라 관인들에게도 주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신라는 지증왕대인 504년에 상복법(喪服法)이 반포되었는데, 이를 통해 관인의 복상 기간이 등급별로 규정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이때 관련 휴가를 주는 법제도 함께 마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⁷²⁾ 고려나 중국에서 망자와의 친소(親疏)를 따져 복기(服期)에 차등을 두고, 휴가 일수도 비례하여 준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율령 조문이 상호 연동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이 있다.

또한 ㉡ 질병 관련 휴가는, 앞서 충공의 사례에서 보듯이 신라에서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주었던 것이 확인된다. 실상 관인에게는 이처럼 병을 치료하기 위해 얻는 경우가 다른 휴가들보다 일반적이고 빈번했으리라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일본 정창원 문서 중에는 나라[奈良] 시대의 청가해(請暇解), 곧 휴가 신청 서류가 2백 건 이상 남아 있다.⁷³⁾ 문서를 쓴 이들은 동대사(東大寺) 사경소(寫經所)에서 일했던 하급 관인인데, 그들의 청가 사유를 정리한 것이 아래 <표 3>이다.⁷⁴⁾ 이를 보면 관인 본인의 질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사경소 하급 관인의 청가 사유

사유		건수	비율	사유		건수	비율
질병		97	39.1%	사망		12	4.8%
	본인	(85)	(34.3%)		처자·부모	(4)	(1.6%)
	처자·부모	(8)	(3.2%)		그 외 친족	(8)	(3.2%)
	그 외 친족	(4)	(1.6%)	개인적 이유	7	2.8%	
업무가 일단락됨		52	20.9%	計帳・田租의 奉納		3	1.2%
神祭・佛事		22	8.9%	도둑이 들킴		3	1.2%
의복 세탁		13	5.2%	기타・불명		39	15.7%
계						248	

한편 이밖에도 <표 3>에는 다양한 청가 사유가 보이는데, 특히 반드시 위급하거나 공적인 사유가 아니더라도 휴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주목된다. 앞서 득오가 죽지랑과 함께 돌아가기 위해 청가했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라에서도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얻을 수 있었을 듯하다. 이 또한 상급자나 소속 관부의 판단·재가를 거쳐 주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으나, 앞서 <표 1> ㉠~㉢과 같은 성격의 특별 휴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⁷⁵⁾

그런데 관인에게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아무런 기간 제한 없이 휴가를 계속 줄 수는 없다. 휴가 기한에 관해서는 아래 기사가 참고되는데, 신라 휴일·휴가 제도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직접 전하는 유일한 사료이기도 하다.

72) 홍승우, 2020, 「지증왕대 喪服法과 律令」 『역사교육논집』 74, 364~371쪽 및 381~382쪽

73) 榮原永遠男, 1987, 「平城京住民の生活誌」 『日本の古代 9 都城の生態』(岸俊男 編), 中央公論社, 200쪽

74) 榮原永遠男, 1987, 앞의 글, 220쪽의 표8을 재편집함. 다만 사경소의 하급 관인들은 퇴근 후에도 합숙하며 생활하였고, 휴가를 얻어야만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75) 혹시 이것이 정기 휴가(연가)를 사용했던 것일 가능성은 없을까 한다.

敎를 내려 内外官으로서 휴가를 청하여 60일을 채운 자는 解官하게 하였다. (『삼국사기』 경덕왕 17년 2월)

이처럼 758년 경덕왕이 내린 교서의 내용은, 정해진 휴가 기한을 다 쓴 중앙과 지방의 관리가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해관 규정은 일찍이 율령 연구에서 주목받았는데, 고려는 물론 당과 일본의 율령에서 유사한 조문이 존재했던 탓도 있다. 고려 선종대의 규정은 앞에서도 인용했지만, 비교의 편의를 위해 다시 제시한다.

선종 10년(1093)에 “휴가를 청하여 100일을 채운 자는 解官한다”라고 判하였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직제)

무릇 직사관으로서 응당 부모를 모셔야 할 경우 및 질병으로 사직해야 할 경우 기한을 넘겨서는 안된다. <자신이 병을 앓은 지 100일이 된 경우와 친속이 병을 앓은 지 200일이 된 경우 및 마땅히 시봉해야 할 경우에는 모두 해직하고 상서성에 보고하여 황제께 아뢰어야 함을 말한다.>⁷⁶⁾ (『唐六典』 권2 尙書吏部)

무릇 직사관이 병이 들어 120일이 지났거나, 부모의 병환으로 인하여 휴가를 받아 200일을 채웠거나 부모의 시중을 들어야 할 경우 모두 관직에서 해임한다.⁷⁷⁾ (양로령 「選敍令」)

이처럼 관인 자신의 질병이 사유일 때 고려⁷⁸⁾와 당에서는 100일, 일본은 120일을 기준으로 해관되었다. 고려·당·일본 모두 휴가의 상한이 100일 이상인데 비해, 신라는 60일에 불과해 기존에 여러 해석이 있었다.

이 60일을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이른바 ‘진내멸촌주(眞乃滅村主)’ 목간(가야5598)의 ‘육십일대법(六十日代法)’과 연관짓기도 한다.⁷⁹⁾ 그러나 해당 목간에서의 60일은 일반적으로 역역 동원에 관한 일수로 이해하므로,⁸⁰⁾ 단순히 숫자가 같다 하여 이를 직접 연결시키기에 는 무리가 있다.

혹은 신라에서의 기한도 원래 당·일본과 같이 100~120일이었는데, 경덕왕이 절반 정도로 줄여 60일이 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⁸¹⁾ 곧 휴가 기한을 엄격하게 조정하면 그만큼 해임될 관리가 늘어나게 되므로, 그들에게 돌아갈 급여를 줄여 재정 부담을 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얻었을 관인의 휴가를 줄여 긴축책으로 삼겠다는 발상은 곤란하지 않았을까 한다. 휴가 상한을 대폭 축소하는 데에서 생기는 피해나 불편함에 비해,

76) 김택민 주편, 2003,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201쪽

77) 이근우 역주, 2014a, 『영의해 역주 상』, 세창출판사, 306~307쪽

78) 이에 대해서는 II장의 주21.

79) 김창석, 2020, 앞의 책, 282쪽

80) 이와 관련해서는 강나리, 2023, 『新羅 中古期 稅役制度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48~160쪽을 참고

81) 윤선태, 2003, 앞의 글, 122~124쪽.

얼마나 유의미하게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었을 지도 의문이다. 오늘날의 법률 용어를 빌자면 ‘비례의 원칙’에 지나치게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무엇보다 이는 경덕왕대의 교서가 기존 규정의 일수를 축소해 ‘개정’한 것이라는 전제가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위의 사료로만 놓고 볼 때는 그렇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휴가 기한의 축소가 관료사회의 기강을 세우고 귀족들에 대한 국왕의 통제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 이해하기도 한다.⁸²⁾ 이 또한 다소 지나친 해석이 될 것이다.

한편 ① 경덕왕 때 당령을 참고하여 새로 해관 규정을 마련했거나, ② 이전 규정의 일수를 변경했거나, 혹은 ③ 내관 혹은 외관에만 적용되었던 것을 내·외관 모두로 개정했을 경우 등을 제시한 다음, ①의 가능성을 높게 본 견해도 있다.⁸³⁾ 그러면서 당과 달리 휴가 기한을 60일로 삼은 것은, 신라의 정기 휴일이 ‘6가’였던 데에서 비롯된 차이가 아닐까 추측하였다. 이는 6가였던 한(漢)·진(晉)의 율령에서 60일 휴가의 규정이 전하는 점에 주목해, ‘6가’와 ‘60일’의 연동 가능성을 상정한 것이었다.

해관 규정에서의 휴가 기한이 다른 관련 조항의 일수와 연동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은, 신라 휴일·휴가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강하게 암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시사를 준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이 신라의 정기 휴일은 이후 고려시기로 이어지는 ‘7가’였으리라 생각되는 까닭에, 세부적인 견해까지 모두 동의하기에는 주저되는 면도 있다.

6가와 60일의 연관성이 상정된 데에는, 6가에서 한 달에 5번의 정기 휴일을 주었으므로 1년으로는 5일×12개월=60일이 되어 그 합계가 일치하는 탓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가령 아래와 같이 진(晉) 가녕령의 관련 규정에서도, 60일의 한도가 ‘정기 휴일의 1년 합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서술된다.

휴가(急假)는 1달에 5번 지급하며, 1년 중 60일을 한도로 한다. 1,000리 내에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해〔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20일을 연장해 주고, 도로가 막힌 경우 95일을 연장해 준다.⁸⁴⁾ (『初學記』 권20)

그러나 진령(晉令)의 기원이 되는 한률(漢律)의 유사한 규정을 보면, 이러한 60일 기한을 정기 휴일에 대한 언급으로 간주하기 어렵게 만든다.

吏 및 황제의 近臣·中從騎에게는 1년에 60일의 휴가(告)를 주고, 그밖의 內官에게는 40일을 준다. 吏의 근무지가 家로부터 2천 리 이상 떨어져 있으면 2년에 한 번 귀향하게 하고, 80일의 휴가를 준다.⁸⁵⁾ (『二年律令』「置吏律」)

위와 같이 한(漢)의 휴가 일수를 전하는 규정에서는, 1년 60일 외에도 상황에 따라 1년 40일이나 2년 80일 등의 조항이 있다. 그러므로 이 1년 60일은 정기 휴일과 구분되는 별도

82) 한준수, 2012, 앞의 책, 202쪽 ; 2016, 「지배세력의 갈등과 한화정책 추진」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5』 신라의 왕권 강화와 발전, 경상북도, 243~244쪽

83) 홍승우, 2011, 앞의 박사학위논문, 243~247쪽

84) 程樹德, 임병덕 역주, 2015, 『구조율고 三』, 세창출판사, 351쪽

85) 彭浩·陳偉·工藤元男 주편, 2007,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24쪽 및 177쪽의 217簡 ; 임병덕, 2017, 앞의 글, 373쪽

의 휴가에 대한 기한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⁸⁶⁾ 앞서 진령의 1년 60일 규정 또한 20일 혹은 95일 연장하는 부가 조항이 따라오는 것을 볼 때, 꼭 정기 휴일의 합계를 설명하는 문구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다. 요컨대 이들 60일 한도를 6가와 연동하여 신라에까지 적용하기는 곤란할 듯하다.

다만 이처럼 한률·진령에서의 규정을 고려할 때, 신라의 60일 한도는 고려·당·일본에 비하면 짧지만 유달리 특이한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신라의 휴가 상한이 다른 나라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까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되어야 하겠지만,⁸⁷⁾ 규정이 개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상, 무언가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신라와 고려의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경덕왕의 교서와 고려 선종의 판에 보이는 조문의 유사성이 주목된다. 전자에는 ‘내외관’이라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양자 모두 휴가의 성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그저 일정 기간을 채우면 해관한다고만 했다. 물론 실제 청가 사유는 대체로 질병 치료였겠지만, 이들 규정 자체에서는 별다른 단서 없이 휴가 상한만 언급하는 점이 유의되는 것이다.

당령과 이를 수용한 일본령에서는 대상(‘직사관’)과 청가의 성격(‘질병’), 그리고 기타 단서 조항(환자가 ‘본인’인지 ‘친지’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에 비해 이렇게 고려·신라의 해관 규정에서 조문이 간략한 점은, 이것이 당령을 본받아 제정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히려 당 이전 한·진의 율령에서와 같이, 휴가 한도를 좀 더 단순하게 전하는 규정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렇듯 고려 초부터 이어져 선종대 재확인되었던 해관 규정이 신라의 것과 거의 일치하는 점은, 신라에서 고려로의 일정한 계승도 상징하게 한다. 고려는 처음 당시 실정에 맞춰 휴가의 상한을 60일에서 100일로 조정했을 뿐, 기존의 큰 틀은 동일하게 유지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다. 이후 고려에서 해관 규정이 더 세분화되는 모습은 아래와 같이 문종대의 판에 보인다.

〔문종〕 23년(1069)에, “外官의 처가 서울에 있으면서 몸에 병이 생긴 경우, 휴가 30일을 준다. 또한 외관의 몸에 병이 생긴 경우 100일에 한정하여 휴가를 주며, 부모가 병이 들었는데 세 아들이 모두 외관에 임명된 경우 부모의 희망에 따라서 한 아들에게만 휴가 200일을 주고 나머지 아들은 각각 휴가 50일을 주는데, 기한이 찬 경우 모두 해관한다”라고 判하였다. (『고려사』 권84 지38 형법1 公式 관리급가조)

이 규정은 외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간략한 문장에 그치는 선종의 판보다 당령에서의 조문과 구조적으로 훨씬 유사하다. 나아가 처가 병에 걸렸을 경우나, 부모가 병에 걸

86) 임병덕, 2017, 앞의 글, 375~376쪽

87) 시대와 사회가 다르다 해도 이토록 일수가 차이나는 것은 의아하다. 혹시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던 탓은 아니었을까? 가령 100~120일 한도의 규정에서는 그 사이의 정기·특별 휴일도 포함해 헤아린다고 하고, 반대로 60일 규정에서는 그 사이의 휴일을 제외하고 셈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양자의 실질적인 휴가 일수는 비슷해질 것이다. 이러한 계산 방법과 관련해, 양로령 學俞의 違假 규정에 대한 『영의해』의 풀이(이근우 역주, 2014a, 앞의 책, 281쪽)가 참고된다.

린 관인이 서로 형제일 경우 등 더욱 세밀한 단서 조항을 담고 있다. 고려의 해관 규정이 당령을 모범으로 삼아 체계화되어 간 것은, 이처럼 좀 더 시기가 지난 뒤의 일이 아니었을까 한다.

5. 나머지 문제

지금까지 고려·신라의 휴일과 휴가에 관해 논의하였다. 신라는 사료가 부족해 대체로 소박한 추정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었지만, 금석문과 문헌에 보이는 관련 기록을 최대한 종합하여 그 실상을 거칠게나마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표 1>에 고려의 휴일·휴가를 분류했듯이, 이 글에서 검토한 신라의 휴일·휴가를 <표 4>에 간략히 정리했다.

실제로는 고려처럼 더 다양한 성격의 휴일과 휴가가 있었겠지만, 직접 확인되거나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에 그친다. 그렇더라도 신라 관인들에게 휴일·휴가가 일정한 절차와 규정을 갖고 제도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휴일·휴가에 관한 신라의 제도가 언제, 어떻게 성립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비교적 시기가 분명한 경덕왕 교서의 해관 규정도 전체 제도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미 다른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앞서 상장 휴가는 상복법 제정을 전후로 마련되었을 것이라는 견해처럼, 관련 제도의 기초적 성립은 지증왕대, 혹은 율령을 반포한 법흥왕대를 즈음하여 시작되었으리라 추측하는 편이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성종대 휴일·휴가 제도의 큰 틀이 잡힌 이후로도 말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규정이 더해졌듯이, 신라 역시 통일 이후까지 계속 체계화되어 갔을 것이다.

<표 4> 신라 휴일·휴가의 종류 (*'는 추정)

분 류			예 시
휴 일	정기	(≡일요일)	고려로 이어지는 '7가'의 가능성
	특별 (비정기)	㉠ 절일 관련	정월 午忌日(잡가), 추석, 원정, 단오 등 각종 절일
		㉡ 행사 관련	연등·팔관, 일부 四時祭 등 국가 행사
		※ 일부는 3일 등의 '연휴' 가능성	
휴 가	정기*	(=年暇)	※ 득오의 사례로 추정
	특별 (비정기)	㉢ 상장 관련	※ 상복법과 연동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
		㉣ 질병 관련	본인 질병에 60일 기한으로 지급

※ 휴가 기한 만료 시 해관

※ 청가의 절차·과정은 관품의 고하에 따라 차이

또한 한반도 고대 삼국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신라뿐 아니라 고려 등에도 휴일·휴가 관련 제도가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 일면이 『일본서기』의 아래와 같은 기사에 보인다.

8년(464) 봄 2월 … 신라국이 등지고 속여 예물(苞苴)이 들어오지 않은 자가 지금 8년째였다. 그리고는 일본(中國)의 마음을 크게 두려워해서 고구려와 修好하였다. 이로 인해 고구려 왕이 精兵 100인을 보내 신라를 지키게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고구려 군사 한 사람이 휴가를 얻어 귀국하는데(取假歸國), 이때 신라 사람을 典馬로 삼았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하기를, “너희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망할 것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그 전마가 이를 듣고는 배가 아픈 척하고 물러나 뒤에 있다가, 이윽고 도망쳐 나라로 들어와 … (『일본서기』 雄略 8년, 細注는 생략, 강조는 필자)

이는 이른바 “수탉을 죽여라[殺家內所養鷄之雄者]”로 잘 알려진, 5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 관계의 전환점으로 평가되는 사건의 배경이다.⁸⁸⁾ 신라에 있다가 잠시 귀국하게 된 고구려 군인이 전마(典馬)로 부리던 이에게 실언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이 군인은 앞서 고구려가 파견한 정예 병사 100인 가운데 하나다. 당시 한반도와 그 주변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타국 한복판에 머무르던 이들 고구려 부대는 군사적·외교적으로 긴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의 부대에 소속된 병사 개인이 잠시 휴가를 내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실은 흥미롭다. 이를 위한 규정과 절차, 문서행정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위의 기사는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에서 운영되었을 휴가 관련 제도의 존재를 추정하게 한다. 향후 이 글에서 살핀 신라 휴일·휴가의 양상과 연관지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저서 및 논문

- 김택민 주편, 2003, 『역주 당육전 상』, 신서원
 彭浩·陳偉·工藤元男 주편, 2007, 『二年律令與奏讞書』, 上海古籍出版社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2010, 『고려시대 율령의 복원과 정리』, 경인문화사
 홍승우,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준수, 2012, 『신라중대 율령정치사 연구』, 서경문화사
 김택민·하원수 주편, 2013, 『천성령 역주』, 해안
 이영호, 2014,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이근우 역주, 2014a, 『영의해 역주 상』, 세창출판사
 이근우 역주, 2014b, 『영의해 역주 하』, 세창출판사
 程樹德, 임병덕 역주, 2015, 『구조율고 三』, 세창출판사

88) 이보다 이전인 454~455년에 이미 고구려와 신라 간에 전투 사실이 있는 것을 보아, 이 사건의 연도를 464년이 아닌 454년 이전으로 판단하기도 한다(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36~237쪽).

박수정, 2016, 『『三國史記』 職官志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도학, 2017, 『新羅·加羅史 研究』, 서경문화사

국립경주박물관, 2019, 『신라문자자료Ⅱ』

김창석, 2020, 『왕권과 법』, 지식산업사

김택민 외 편, 2021, 『당률소의 역주Ⅰ』, 경인문화사

강나리, 2023, 『新羅 中古期 稅役制度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榮原永遠男, 1987, 「平城京住民の生活誌」 『日本の古代 9 都城の生態』(岸俊男 편), 中央公論社

윤선태, 2003, 「新羅 中代の 刑律」 『강좌 한국고대사 제3권』(한국고대사학회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정구복·주영하, 2003, 「삼국 및 통일신라시대 세시풍속 연구」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 삼국·고려시대 편 -』, 국립민속박물관

하일식, 2007, 「김대성과 죽지랑 이야기를 따라」 『내일을 여는 역사』 27

채웅석, 2009, 「『高麗史』 刑法志 所在 “判”에 대한 考察」 『동방학지』 148

황향주, 2011, 「고려 起復制와 14세기말 起復論爭」 『한국사론』 57, 서울대 국사학과

서금석·김병인, 2014, 「역사적 추이를 통해본 고려시대 ‘臘日’에 대한 검토」 『한국사학보』 56

김호, 2015, 「唐代 官人の 휴가 - 法令의 규정을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130

하수민, 2015, 「고려시대 천시론적 급가제도와 연(年)·계(季)·월(月) 주기성 구조」 『정신문화연구』 38-1

강중훈, 2016, 「명문의 새로운 판독을 통해 본 울주 천전리각석의 성격과 가치」 『대구사학』 123

이영호, 2016, 「蔚珍 聖留窟 巖刻 銘文의 검토」 『목간과 문자』 16

임병덕, 2017, 「秦·漢시기의 官吏의 休暇」 『역사와 담론』 84

이정희, 2017, 「고려시대 暇寧令과 급가제도」 『지역과 역사』 41

심현용, 2019, 「울진 성류굴 제8광장 新羅 刻石文 발견 보고」 『목간과 문자』 22

홍승우, 2020, 「지증왕대 喪服法과 律令」 『역사교육논집』 74

이정란, 2021, 「시정(侍丁)의 지급과 급가(給暇)로 본 고려시대 양로정책」 『한국중세사연구』 65

하일식, 2022, 「천전리 서석 명문과 생활사의 실마리」 『신라문화』 60

이일규, 「고려·신라 관인의 휴일과 휴가」에 관한 토론문

정덕기(서울대 기초교육원)

이 글은 고려 관인의 휴일·휴가를 주는(給假) 규정(令)과 관련된 연구의 도움을 토대로, 신라 관인의 휴일·휴가에 대해 접근해보려는 시도로 이해됩니다. 한국고대사에서 ‘미시적인 관인의 생활상’을 설명한 자료는 매우 희소하여, 유관 문제는 오랜 기간 전론으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발표자는 희소한 자료 현황을 극복하고자, ‘고려의 솜에 내재된 신라의 솜이나 전통’을 모색하는 방법, 즉 역추의 방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하였습니다. 유관 문제의 연구 현황 및 현존 신라 자료의 현황을 고려하면, 서론·목차 등을 통해 제시한 문제 제기와 연구 방법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글 ‘Ⅳ장 신라 휴일·휴가의 종류’ 말미 및 ‘Ⅴ장 나머지 문제’를 고려하면, 이 글의 초점이 ‘신라의 휴일·휴가 종류 규명’에 있었는지, ‘신라·고려의 휴일·휴가 관련 규정의 관계’에 있었는지 모호하다는 느낌과 더불어 개설적인 설명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또 글 속에서 활용한 용어와 고려령 중 신라에서 기원한 령의 내용, 신라 측 자료의 활용 방식, 3假·7假와 역법의 관계 등을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잘 완성된다면 유관 문제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울만하므로, 숙고한 결과가 반영되어 좋은 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토론자의 소임은 ‘더 좋은 글이 되기 위한 생각거리 제시’이므로, 토론자가 의문을 가진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짚어 토론문에 정리합니다.

다만 약정토론에 배분된 시간이 있으므로, 토론자가 토론장에서 짚을 문제는 ‘1-②·④, 4, 5-②, 7’의 4가지로 한정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발표자의 글 수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토론이 향후 글 수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혹 오해가 있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용어의 문제 : 給假, 휴일, 휴가

“기존 관련 연구에서는 ①‘급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지만, 이 글에서는 가능한 한 현재 표현인 ‘휴일’과 ‘휴가’라는 말을 쓰려 한다. 휴일은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히 쉬는 날이며, 휴가는 신청하여 얻어야 쉴 수 있는 날이다. 또 오늘날과 비슷하게 휴일·휴가를 각각 ‘정기’와 ‘특별’로 대별했다. ②정기 휴일은 지금의 일요일, ③정기 휴가는 年暇에 해당한다. 특별 휴일과 특별 휴가는 다시 구체적 성격에 따라 세분했다.”

①給假 : 『한어대사전』에서 給假는 ‘准予休假’로 정의되며, 『당육전』·『삼국사기』에서 ‘給假’

는 ‘휴가를 준다’라는 ‘구’이고, 휴가·휴일이란 의미는 ‘假’에만 있습니다. 대표 용례를 몇 건 들어 놓았으므로, 참고해 개념·용어를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隋書』 권9, 志4, 禮儀4. “後齊制, 立新學 …… 學生每十日給假, 皆以丙日放之.”

『唐六典』 권2, 尙書吏部. “內外官吏則有假寧之節, 【謂元正·冬至, 各給假七日, 寒食通清明四日, 八月十五日, 夏至, 及臘, 各, 三日.】 …… ”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7년(758) 2월. “內·外官, 請暇, 滿六十日者, 聽解官.”

『三國史記』 권45, 列傳5, 祿眞. “…… “病在心臟, 須服龍齒湯.” 遂, 告暇, 三七日, 杜門不見賓客.”

②정기 휴일≒현재의 일요일 : 이 글에서 휴가·휴일은 ‘현재 용어’를 위주로 설명하였지만, 정기·비정기(특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일견 타당한 구분이나, 이 과정에서 현재의 ‘주휴일’만 정기 휴일로 잡았고, 명절 혹 정해진 날 행사로 인한 휴일(연등·팔관) 등은 연 단위로 보아 항상 규정된 휴일임에도 ‘특별 휴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명절·약속된 날의 휴일(일종의 공휴일) 등은 연래적으로 늘 쉬는 날이므로, 분류 체계를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이해됩니다.

③아울러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Ex : 왕태자 탄신, 왕실의 생활과 관련되어 축하할만한 날)은 특별 휴일에 들어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 모든 휴일·휴가에 대해 ‘유급’을 전제로 이해하였는데, ‘무급’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아가 관인의 考課 일수와 관련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④연가(年暇, 연차 휴가) : 이 글에서는 연가 일수의 상한선 및 해관(解官) 규정을 강조하였습니다. 연가 일수의 상한이 있다면, ‘연가 일수 상한선 - 1일’까지는 관인이 해관에 저촉 없이 쓰는 휴가일 것입니다. 예컨대 ‘60일’이라면, ‘59일’은 휴가를 낼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모든 관인이 연가를 몰아 쓰지는 않겠고, 관청별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연가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겁니다(Ex : 12월 동지 이전). 자연히 연가는 잘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월차’, ‘월에 쓸 수 있는 휴가 일수’의 제한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2. 7假

中 曆 日 序(645년 乙巳년(645.02.02~646.01.21) → 휴일은 빨간색으로 체크																															
月份	旬日									旬日												旬日									
1 小月	02 경오	3 신미	4 임신	5 계유	6 갑술	7 을해	8 병자	9 정축	10 무인	11 기묘	12 경진	13 신사	14 임오	15 계미	16 갑신	17 을유	18 병술	19 정해	20 무자	21 기축	22 경인	23 신묘	24 임진	25 계사	26 갑오	27 을미	28 병신	29 정유	30 무술	03 01 ·	
	03 기해	4 경자	5 신축	6 임인	7 계묘	8 갑진	9 을사	10 병오	11 정미	12 무신	13 기유	14 경술	15 신해	16 임자	17 계축	18 갑인	19 을묘	20 병진	21 정사	22 무오	23 기미	24 경신	25 신유	26 임술	27 계해	28 갑자	29 을축	30 병인	31 정묘	04 01 무진	

6일	6일	7일	소월 6일, 대월 7일
휴일산입 7일	휴일산입 7일	휴일산입 8일	휴일산입 7·8일

①7假의 날짜는 1·8·15·23일, 휴일 간격은 小月이 ‘7-7-8-7’, 大月이 ‘7-7-8-8’이라 하였습니다. ‘간격’에 휴일을 산입하느냐, 산입하지 않느냐에 따른 조건을 넣어 간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7일째에 쉬다고 이해되지만, 임의의 달력(토론문에서는 645년 1·2월)에서 휴일을 산입해 쫓아보면, 간격은 위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의해 역주』 下, 251쪽의 원문은 ‘每六日, 並給休假一日’입니다. 문맥으로 보아 ‘6일에 1일을 쉬다→7일째 되는 날에 쉬다’로 읽히는데, 고려·일본 령의 관련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당서』, 본기를 읽다보면, 대체로 당 전기에는 朔日이 중요하고, 당 후기에는 朔日·望日이 함께 중요해집니다. 이것은 역법의 변화로 인한 것인데, 신라의 삭망일과 관련된 문제와 바로 등치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②중국 달력에서 순일(旬日)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기본적으로 순은 天干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고려에서 7을 하나의 주기로 잡았다면, 하늘의 운행에 대한 문제나 달력의 구성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에서 천문에 대한 문제를 다룰 수는 없겠지만, 필자 나름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휴가의 신청과 결재

이 글에서는 ‘당·일본의 관인 중 5품 이상은 황제에게 보고해 휴가 결재를 받고, 6품 이하의 유사에서 급가한다’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5품 이상이 상급 관인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급·하급 관인의 결재선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라의 관인은 아래 표와 같이 (9)급찬 이상의 간군 관위와 (10)대나마 이하의 비간군을 경계로 상급·하급 관인이 구분되며, 이로 인해 卿 이상 관직과 監 이하 관직이 정원의 단위조차 달리하는 상급·하급 관직임이 논증된 바 있습니다.¹⁾ 유관 문제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는 차치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직관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발표자가 이 규정을 끌어쓰려면, 어떤 형태로든 상급·하급 관인을 구분해 나름의 결재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처럼 구체성이 없는 논증은 논문이 아니라 가설 혹은 감각적인 추정만으로도 생각할만한 부분입니다.

4. 고려 령 속에 내재된 신라 령이란

이 글은 역추의 방법을 활용하며 고려령은 주로 당령+송령의 영향을 받았고, 신라령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이 설명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휴가·휴일’ 규정 중 ‘내재된 신라령’이 거의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의 도입을 보면서 ‘고려령-(당령+송령)=신라령’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기대하였으나, ‘신라의 제도가 영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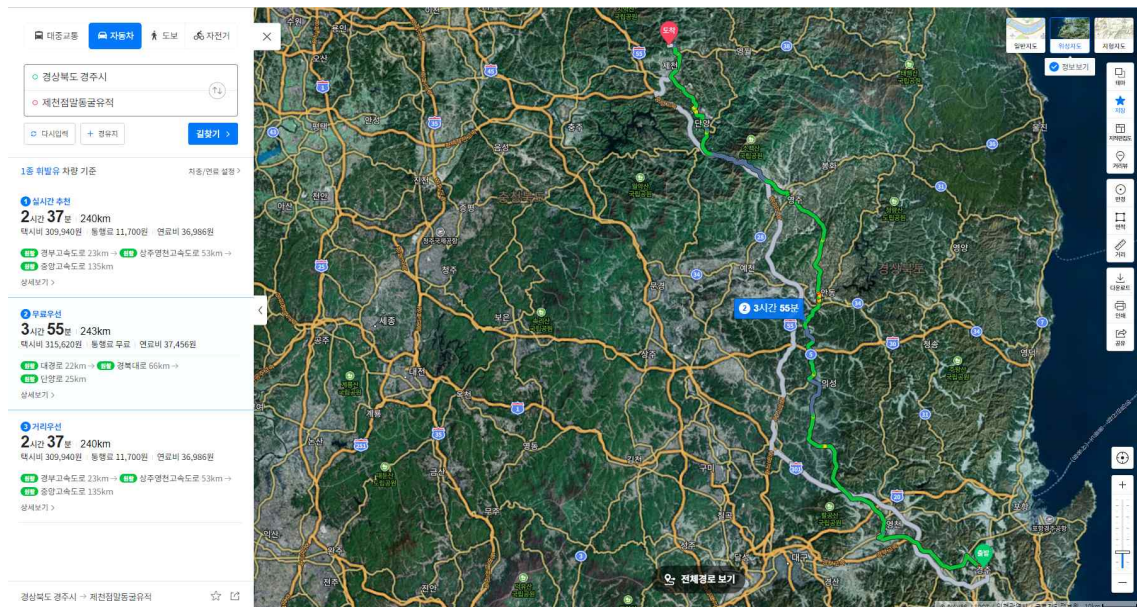
1) 정덕기, 2021, 『신라 상·중대 중앙행정제도 발달사』, 혜안, 217~221쪽.

주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에 그치면서 구체성이 없어졌습니다. ‘휴가·휴일’ 규정과 관련해 발표자가 생각한 ‘고려령 속 신라령’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 점말동굴 명문과 휴가, 도보 1일 간 활동 범위

①이 글에서는 서석곡·성류굴·점말동굴에 남은 ‘예부사’라고 된 명문을 신라 관인의 휴일·휴가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경주와 점말동굴은 거리가 매우 멀어, ‘휴가’의 근거일 수는 있지만, ‘휴일’의 근거로 보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고속도로 240km, 국도 243km이기 때문입니다(<그림-1> 참고). 휴가·휴일의 사례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림-13>경주↔점말동굴(출전 :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



②서석곡은 경주에서 30km 정도이므로 당일 왕복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충 논증이 필요합니다. 휴가는 ‘공무·일’에서 벗어나 ‘쉬는’ 행위입니다. 고대사에서는 1일간 도보 거리를 생각할 근거가 많지 않으나, 이후 시기에는 꽤 많은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조선 후기 읍치와 장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장시의 시장권은 반경 약 9.0km이며, 조선 후기 일반인들의 1일 왕복 기준 멀리 장을 보러 가는 거리는 약 20km(50里)로 알려져 있습니다.② 여기에 산곡에 대한 지형 문제, 조선 시대보다 좋지 않다고 예상되는 도로, 부인과 시종의 동행 및 시종에게 말을 태워주는 경우는 흔치 않았을 것이라는 점, 먹거리 챙기기 혹은 중간에 밥 해먹고 가기, 기타 여정에 필요한 여장을 들거나 지기 등을 두루 생각하면, 이 글에서 설명한 ‘서석곡 당일치기 휴가’란 ‘서석곡 찍고 오기’,

2) 김대길, 2012,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정신문화연구』 35.

‘서석곡에서 고생 많이 하거나 서석곡까지 30km 행군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날 출근을 고려하면, 왕복 60km가 됩니다. 실제 편도로 도보 30km는 절대로 만만한 거리가 아니며, 현대 군인들도 처음에는 무척 벅찬 거리이고, 오늘날에도 군화·밥차 없이 불가능한 행군 거리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 폭넓은 사료 취사 요망

대체로 이 글의 사료 취사와 해석은 재미있어 보이긴 하지만, 주로 명절, 쉬었을 듯한 날 등을 위주로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날에 의미를 부여한 기사는 많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예컨대 18쪽에는 ‘중국에서 유래하거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을 여러 절일’의 하나로 ‘단오(5.5)’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오의 경우는 아래 사료로 보아 ‘금기일’이라는 의미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三國史記』 권50, 列傳10, 弓裔. “5월 5일에 외가에서 태어났는데, 그때 지붕 위에 흰 빛이 긴 무지개처럼 하늘에까지 뻗었다. 日官이 아뢰었다. “이 아이는 重午日(5.5)에 태어났고, 나면서 이가 나고 햇빛이 이상하니, 장차 국가에 이롭지 못할 것입니다.””

위 사료는 궁예가 반역할 운명이라는 암시를 3가지 근거로 설명하였습니다. 생일이 5.5이고, 나면서 이가 있고, 태어날 때 일기가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오에 출생하면 좋지 않다는 관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한 날짜에 일어나는 현상이나 해석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7. 경덕왕대 60일 휴가와 해관 규정에 대한 문제

현존 신라 자료에서 휴가와 해관의 관계를 말한 것은 758년의 규정뿐이고,³⁾ 이 글에서는 이 규정을 1093년 규정, 『당육전』·『영의해』의 규정과⁴⁾ 연결해 해석하였습니다. 원문만 아래 표로 정리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치	인용문(敎·判 내용)					인용문에 대한 글의 해석
758년	下敎.	內·外官,	請暇,	滿 六十日者,	聽	解官.	내·외관으로 휴가를 청해 60일을 채운 자는 解官하게 하였다.(聽=하게 하였다?)
1093년	判.	.	請暇,	滿 百日者,	.	解官.	휴가를 청해 100일을 채운 자는 解官한다.

3) 『三國史記』 권9, 新羅本紀9, 景德王 17년(758) 2월.

4) 『高麗史』 권84, 志38, 刑法1, 職制, 宣宗 10년(1093).

당육전	凡職事官應覲省及移疾，不得過程。【謂，身有疾病滿百日，若所親疾病滿二百日，及當侍者，並解官，申省以聞。】	【……마땅히 시중을 들어야 할 경우 모두 解官한다.】
양로령	凡職事官，患經百廿日[不愈者]，及緣親患，假滿二百日，及父母合侍者，並解官。	……부모의 시중을 들어야 할 경우 모두 解官한다.
‘聽’의 해석		
『한어대사전』	부탁(聽從, 接受). → 『史記』, 白起·王翦列傳. “王聽之, 割韓垣雍·趙六城以和.”	
	판결(審察, 斷決, 治理). → 『周禮』, 秋官, 小司寇. “以五聲聽獄訟, 求民情. “一曰, 辭聽. 二曰, 色聽. 三曰, 氣聽. 四曰, 耳聽. 五曰, 目聽.”	
이병도, 『삼국사기』	…… 解官을 허락하기로 하였다.	
정문연, 『삼국사기』	…… 解官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이 글에서 758년의 규정 중 ‘聽’은 ‘하게 하였다’로 해석되었고, 나머지 3개 자료는 모두 ‘한다’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경우 ‘聽’의 해석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당연한 혹 강제력이 부여된 규정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쓰라는 규정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계에 통용되는 『삼국사기』의 해석은 대개 ‘허락하기로 하였다’, 즉 ‘수용하였다’라는 의미로 설명되고 있고, 이것은 ‘관인의 해관 요청’을 전제하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토론자가 보기에 758년 규정은 굳이 ‘聽’을 쓰고 있어, ‘한다’보다는 ‘수용하였다’라는 뉘앙스로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해석을 풀기 위한 자료로 들어놓은 것은 모두 ‘한다’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고, ‘聽’의 직접적인 해석은 ‘한다’에 가깝게 두었습니다. 『한어대사전』에서 ‘聽’의 의미에 판결(審察, 斷決, 治理) 등이 있어 완전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방증으로 든 3개의 자료에서 ‘[並]解官’만 써도 해석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이 글처럼 해석하려면 하교에 굳이 ‘聽解官’이라고 쓴 이유나 견해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이 기사는 “60일을 채워 (관인의 요청이 있다면) 해관을 수용하라”라는 의미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해석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8. <표 1>과 <표 4>의 정리에 필드를 맞추어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쪽을 합쳐보면, ①표현이 약간 다르거나, ②비교 대상 및 같은 범주의 내용 나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에서 표는 내용을 명료하게 보여주는(Showing) 수단이므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분류		신라	고려
휴일	정기 (=일요일)	고려로 이어지는 ‘7가’의 가능성 ·	약 7일마다 하루, ‘七暇’ 매달 초하루·초8일·15일·23일
	특별 (비정기)	정월 午忌日(잠가) 추석, 원정, 단오 등 각종 절일 ·	授衣·蠶暇(농업), 매달 入節日 및 여러 명절 三元日(도교) 등
		연등·팔관 일부 四時祭 등 국가 행사	燃燈·八關(불교) 春社·秋社(사직제) 등
		·	日食·月食(재이) 등

휴가	정기	(= 年暇)	※득오의 사례로 추정	※별도로 존재했는지 분명하지 않음
	특별 (비정기)	㉠상장	※상복법과 연동되어 지급되었을 가능성	※별도로 존재했는지 분명하지 않음
		㉡제사	.	부모·조부모 기일에 一日兩宵 매달 朔望祭에 1일 등
		㉢질병	본인 질병에 60일 기한으로 지급	본인 질병 100일 부모 질병 200일 등
		㉣효도	.	定省暇 3년마다 1회 30일 掃墳暇 5년마다 1회 15일 등
		㉤정무	.	과거 출제자(兩大業 3개월, 醫·卜·律 ·書業 2개월, ...) 등

이상입니다.

조선 세종대 수령 파견 양상의 변화와 인견 확대

심보람(고려대)

1. 머리말
2. 세종대 수령 인견 확대의 배경
3. 세종대 수령 인견의 확대와 인견 양상
4. 세종대 이후 수령 인견의 상례화
5. 맺음말

1. 머리말

군현제는 중국의 진·한 이래로 동아시아에서 실시된 지방 행정체도로 전국에 동일한 정령을 가지고 행정구획을 정하여 중앙정부에서 선임한 수령이 지방행정을 취급하게 하는 제도였다.¹⁾ 조선 창업의 주역이었던 정도전은 조선의 ‘주현’에 대해 고려의 옛 제도를 이어받아 주·부·군·현에 각각 수령을 두고 이들을 바탕으로 임금의 교화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 조선 역시 군현제를 바탕으로 전국을 구획하고 통치한 것이다. 수령에게는 왕을 대신해 군현 단위에 임금의 교화를 펼치는 역할이 주어져 있었다.

군현제에서 수령은 각 군현을 통치하는 주체였지만 고려 말과 조선 초 수령의 위상은 한 군현을 맡아 다스리는 위치와 어울리지 않았다. 고려 말 수령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양적 증가는 질적 하락을 불러왔다. 고려전기 전시과 체제에서 수령직은 처음 관직에 진출한 사람이 임명되는 초사외관직(初仕外官職) 중 하나였으며 관인의 입장에서 초사외관직 부임은 자신의 능력을 보일 기회였다. 그러므로 고려는 초사외관직 운영을 통해 민생 보호와 외관의 안정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³⁾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지방에 파견된 수령의 수가 점차 증가해갔고 고려 예종대에 처음 파견되기 시작해 조선 초까지 200여 곳 이상의 군현에 파견된 감무는 수령의 양적 증가로 인한 질적 하락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세종대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며 조선시대 수령제의 중요한 방향이 결정된 시기였다. 『경국대전』에 보이는 수령에 관한 많은 규정은 세종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경국대

1) 이수건, 1989, 「조선조 지방행정사연구 서설」,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 19쪽.

2) 『삼봉집』, 「朝鮮經國典」上 賦典 州郡. “國家因前朝王氏之舊而有所沿革 京畿分左右道 國之南曰楊廣道 其外曰慶尙全羅道 西爲西海道 東爲交州江陵道 [按交州江陵道即嶺東西地] 置監司曰都觀察 黜陟使 東北爲東北面 西北爲西北面 置監司曰都巡問使 以宣教化 以總錢穀刑名兵馬之事 其州府郡縣 各置守令焉 可見其疆理之整齊 而王化之攸行也”

3) 이진한, 1999, 「초사외관직의 운영과 녹봉」 『고려전기 관직과 녹봉의 관계 연구』, 일지사, 53~84쪽.

전』 외관직조 총론 중 수령과 관련된 규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외관의 관계(官階), ②임기 및 근무일 계산 기준, ③농번기 교체 금지, ④수령직 회피자 서용 제한, ⑤나 이 관련 규정이 그것인데 모두 세종대에 관련 사항이 처음 결정되었다.⁴⁾ 이 밖에 부민고소 금지법도 세종대에 만들어진 만큼 조선시대 수령을 이해하는데 세종대의 수령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조선 초 수령제에 관한 연구는 조선시대 지방제도 연구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조선시대 지방제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이 건국되면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앙집권화의 계기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를 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이 중앙집권을 추구하면서 수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강조된 연구가 있었다.⁵⁾ 반면 전국이 국왕의 직할지였다는 점이나 외관이 파견되는 군현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제적이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했다.⁶⁾ 해방 이후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진행된 연구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한 후 중앙과 연결된 수령의 지위가 향상되어 간 것으로 이해되었다.⁷⁾ 정치 세력에 초점을 맞춰 정도전과 달리 하륜으로 대표되는 정치 세력이 관료직을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는 연구도 있었다.⁸⁾ 이상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집권화라는 틀 속에서 조선시대 수령제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세종대의 수령제 연구는 세종대를 제도 개편의 보완기로 평가했다.⁹⁾ 세종대를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지위가 안정화된 시기로 본 것이다.¹⁰⁾ 특히 수령 임기 연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도 세종이 동요하지 않고 수령 관련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선정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했다.¹¹⁾ 이상의 세종대 수령제에 대한 논의들 역시 태종대 변화를 이어받아 중앙집권화 혹은 왕권강화의 방향으로 발전해갔음을 전제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여말선초 사회적 발전에 맞춰 조선 초 수령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보이도록 한다.

하지만 중앙집권화 과정의 일부로 세종대 수령제 변화를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따른다. 실제로 세종대의 수령제 개편은 지방통치체제 강화 측면만이 아니라 전체 경관과 외관을 연결하여 관료기구를 원만히 운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본 연구도 있다.¹²⁾ 세

4) 『경국대전』 이전, 외관. “①階及遷官·加階·行守 竝同京官 觀察使·都事仕滿三百六十 ②守令仕滿一千八百 堂上官及未挈家守令·訓導仕滿九百 乃遞 移任守令 通計前仕遷官 ③當農月 則勿遞 春分前不足五十日以下者遞 ○崇義殿職 授奉祀一人 ○畿外諸陵·殿參奉 觀察使擇本道人擬啓 ○教授 牧以上 則文臣 都護府 則生員·進士中擇差 ○永安道洪原以北 平安道博川以西 教官除授時 加一階 ④○守令·教官托故規免者 准其遞期不敘 敘時還除外官 ⑤○年過六十五歲者 勿外敘 堂上官及未挈家者不在此限 親年七十歲以上者 勿差三百里外遠邑守令”

5) 中村榮孝, 1931, 「朝鮮時代地方制度の歴史的考察」, 『朝鮮』159, 조선총독부.

6) 旗田巍, 1961, 「高麗·朝鮮時代における郡縣制の一形態 -慶尙道安東府の屬縣·部曲編成と飛地-」,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1997, 「高麗의 郡縣制와 中國의 郡縣制 -漢字文化의 共通性과 特殊性-」, 『文理大學報』1.

7) 이수건, 1989, 앞의 책; 이준희, 1990,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 연구』, 일지사; 임선빈, 1990, 「朝鮮初期 守令制運營과 地方統制」, 『청계사학』7.

8) 임용환, 2002, 『조선전기 수령제와 지방통치』, 해안.

9) 이준희는 조선초 수령제를 과도기(태조대)-확립기(태종대)-보완기(세종대)-강화기(세조대)로 구분해 평가하였다(이준희, 1990, 앞의 책).

10) 임선빈, 1990, 앞의 논문.

11) 이수건, 1989, 앞의 책.

종대는 수령 파견 방식과 절차에 변화가 생기고 그 결과 파견 대상자에 질적 변화가 생긴 시점이다. 그에 맞물려 수령직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 시기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에서는 수령에 대한 인식변화나 실제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사람들이 수령으로 파견되었는지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세종대에 수령 인건이 확대되었었다는 것 역시 기존연구를 통해 정리된 바 있지만 인건이 실제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는지 밝힌 연구는 없다. 조선 초 수령의 인건을 언급한 연구가 있었지만, 업무 권장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고 수령 인건의 실체에 대한 분석은 소략했다.¹³⁾

본 발표문의 2장에서는 먼저 세종대 수령 인건 확대의 배경이 되는 조선초기 수령에 대한 인식과 세종대 수령 파견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세종대 수령으로 파견된 인원의 질적 변화의 일부를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수령 파견 과정에서 실시된 ‘인건’이 확대되는 과정과 목적, 그리고 부임 과정에서의 절차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세종대 수령 인건 양상을 『세종실록』을 통해 확인하고 인건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세종대 이후 수령 인건이 조선에서 지속되는 모습을 통해 수령 및 수령 인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의미를 확인할 것이다.

2. 세종대 수령 인건 확대의 배경

1) 조선초기 수령 제도 개선의 한계

태조의 즉위 교서에는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하는 직책으로 무겁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守令近民之職 不可不重)’며 수령 인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다.¹⁴⁾ 이런 인식 속에 고려 말부터 조선 태종대까지 수령의 직질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이어졌다. 공민왕 8년(1359)에는 수령 중 직질이 가장 낮은 현령과 감무도 5~6품의 관리를 임명했다.¹⁵⁾ 태종 13년(1413)에는 감무가 현감으로 개칭되면서 부윤·대도호부사·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으로 이어지는 조선 수령직제의 외형적 틀이 정해졌다.¹⁶⁾ 하지만 수령제의 외형적 정비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위상은 태종대까지도 낮았고 세종대에도 수령직은 기피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조선초기 수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반유무(飯有無)·거반상(舉飯床)·수관(守官)과 같은 관습이었다.

A) “수령은 백성의 사수(師帥)로 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소사(外所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지위가 높은 자라도 마땅히 예로 대해야 하고 천하게 업신여겨서는

12) 구완희, 1988, 『世宗朝의 守令六期法』 『북현사람』 11.

13) 이수건, 1989, 앞의 책, 248~250쪽; 임선빈, 1990, 앞의 논문, 136쪽.

14) 『태조실록』 권1, 원년 7월 28일 정미.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其令都評議使司臺諫六曹各舉所知 務得公廉材幹者 以任其任 滿三十箇月政績殊著者 擢用 所舉非人 罪及舉主”

15) 『고려사』 권75, 지29 선거3 공민왕 8년.

16) 『태종실록』 권26, 13년 10월 15일 신유.

안 됩니다. (수령이) 사신을 응접하는 예는 아직도 전조(前朝)의 구습을 좇아서 반유무·거반상·수관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없고 감사도 관인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너(汝)’라고 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대부가 수령에 임명되는 날에는 그 뜻과 기운이 꺾여 다시 기운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원컨대 감사와 크고 작은 사신이 예를 두텁게 하여 대접하고 반유무·거반상·수관과 같은 일은 직접 행하지 않게 하소서” 하였다. 무릇 수령이 사신의 식사를 받들 때 반드시 먼저 큰 소리로 ‘반(飯)’이라고 외치는데 이것을 반유무라고 부른다. 잠잘 때가 되면 반드시 ‘수관무사(守官無事)’라고 외치는데 이것을 수관이라고 한다. 모두 속된 풍습이다.¹⁷⁾

반유무·거반상·수관은 수령이 중앙에서 파견된 사신이나 감사의 식사와 침실 시중을 드는 것이었다. 이런 관습은 수령의 관품이 낮고 출신이 한미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파견된 경관이나 감사가 수령을 천대하는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었다. 고려말 이래로 수령의 직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수차례 반복되었지만 태종대에도 수령을 무시하는 관습이 일상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태종대 집권세력이 수령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 역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정권을 장악한 태종과 그 주변 세력이 수령 및 외관제에 관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인식은 외관이 지나치게 많이 파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B) 도평의사사에서 각도의 주현과 역의 용관(冗官)을 마땅히 줄여야 한다고 아뢰니, 그 대로 따랐다. 아뢰어 말하길 “지금 각도 각 주현은 거리가 멀지 않은데, 수령을 너무 많이 설치하고, 비록 한두 역마다 또한 각각 승(丞)을 두었기 때문에, 늪전(廩田)을 많이 주어서 군량이 소비되고, 또 한도가 있는 인리(人吏)를 가지고 번거롭고 쓸데없는 사무를 시키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니 용관을 태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각도 관찰사로 하여금 각 주현·각 역의 거리의 멀고 가까운 것을 참작 요량하여, 원래 정했거나 새로 정한 지관·현령·감무·역승을 가지고, 아무 주현의 수령과 아무 역의 승을 혁파하여 아무 주현과 아무 역에 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사하게 하여, 합병할 것은 합병하고 감할 것은 감하여 영구히 폐단이 없게 하소서.” 왕이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행문(行文)을 이첩하게 하였다.¹⁸⁾

B)는 정종 2년(1400) 2월 4일에 도평의사사가 올린 각 도 주현과 역의 용관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계문의 일부이다. 도평의사사는 주현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은데 수령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조선은 정종 원년(1399)부터 태종 원년(1401)까지

17) 『태종실록』 권5, 3년 6월 17일 계해. “守令民之師帥職任最重 故謂之外所司 雖位高者 宜以禮接 不可以賤狎待之 其應接使臣之禮 尙循前朝舊習 如飯有無 舉飯床 守官等事 無不爲之 而監司亦不以官人待之 或稱爾汝 甚至罵詈 故士大夫出補之日 志氣摧挫 無復激昂 願令監司及大小使臣 從優禮接 其飯有無 舉飯床 守官等事 勿使親行 凡守令於奉飯使臣之時 必先高聲呼飯 謂之飯有無 及其將寢 必呼守官無事 謂之守官 皆俗習也”

18) 『정종실록』 권3, 2년 2월 4일 기해 “使司啓宜汰各道州縣及驛冗官 從之 啓曰 今各道各州縣 不遠程途 多設守令 雖一二驛 亦各置丞 故多給廩田 軍糧耗費 且以有限人吏 差煩冗事務 其弊不織 是冗官之可汰者也 宜令各道觀察使 酌量各州縣 各驛程途遠近 將原定新定知官縣令監務驛丞 革某州縣守令某驛丞 當合某州縣某驛 可并者并之 可減者減之 永使無弊”

3년간의 군자금 비축액이 2만 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¹⁹⁾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배치한 군현의 수령이나 역의 승을 병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해당 계문이 올라오기 직전인 정종 2년(1400) 정월 28일에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정종은 정안공 이방원을 왕세자로 책봉하고 나라의 중대사를 맡도록 했다.²⁰⁾ 따라서 B)는 중대사에 대한 처결권을 장악한 태종과 그 주변 인물의 생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집권 세력은 수령직 중 일부는 재정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줄일 수 있는 용관, 즉 ‘쓸모없는 관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태종대 수령은 목민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되기도 했다. 태종 3년(1403) 6월 사간원에서는 수령에 관한 사목을 올렸다. 사간원은 백성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원인으로 수령을 지목했다. 사간원은 “임금이라는 것은 부모이고, 백성이라는 것은 갓난아기[赤子]이며 군수라는 것은 유모와 같은데(君者 父母也 民者 赤子也 郡守者 乳保也)”, 수령이 어질지 못해 백성이 어진 정사(仁政)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¹⁾ 수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현령이나 감무와 같은 낮은 등급의 수령에 대해 더욱 강했다. 이런 인식 속에서 조정의 관리들 사이에서는 수령으로 제수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

C) 현령·감무는 전조(前朝) 말에 모두 부사(府史)·서(胥)와 같은 용렬한 무리가 제수받았으므로, 지금의 조사(朝士)가 그 이름을 익히 들어서 수령에 제수되면 모두 다 싫어하니, 지금 마땅히 모두 고쳐 현을 만들어서 현사(縣事)라 칭하여, 그 이름을 새롭게 하소서.²²⁾

C)는 태종 3년(1403)에 사간원이 건의한 지방조직 개편 방안 중 일부이다. 사간원의 건의안에 대해 사헌부에서 사간원이 주부의 관호(官號)를 상정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다면 탄핵하면서 사간원의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현령’이나 ‘감무’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을 ‘현사’로 고치자는 사간원의 주장을 통해 수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현령이나 감무는 자질이 부족하고 낮은 지위의, ‘용렬한 무리’가 배치되는 자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수령의 능력 부족은 고려 말부터 대두된 문제였다. 고려 말부터 수령의 자질을 높여 안정적으로 지방을 통치하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²³⁾ 조선 건국 이후 태조~태종대에도 수령 포섭 방식을 정비하는 등 수령 관리에 신경을 썼다.²⁴⁾ 하지만 태종대에도 수령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관리들 사이에서 수령직은 기피 대상이 되고 있었다.

19) 『태종실록』 권5, 3년 6월 6일 임자.

20) 『정종실록』 권3, 2년 2월 4일 기해.

21) 『태종실록』 권5, 3년 6월 17일 계해.

22) 『태종실록』 권6, 3년 윤11월 19일 임술 “縣令監務 在前朝之季 皆府史胥徒閹茸之徒所得除授 今之朝士 習聞其號 當守令除授之時 率皆厭之 今當例改爲縣 稱縣事以新其號”

23) 임용한, 2002, 앞의 책, 59~88쪽.

24) 『세종실록』 권23, 6년 1월 28일 을사; 권72, 18년 5월 12일 정축.

2) 세종대 수령 파견 정책의 변화

태종대에는 부적절한 사람을 천거한 자의 처벌이나 포폄제도의 정비와 같이 이미 파견된 수령 자원에 대한 대응이 수령 자질 향상책으로 사용되었다. 태종대에도 경관의 외직 회피가 문제였지만 경관으로 돌아온 후 바로 체임되는 것을 막는 정도가 대책으로 제시되었을 뿐이었다. 수령직 회피 현상은 자연스럽게 유능한 자질을 갖춘 관리가 수령으로 파견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

태종 사망 이듬해인 세종 5년(1423), 세종은 수령에 관해 태종과는 다른 방향의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세종은 경관을 수령으로 파견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시행했다. 세종 5년(1423) 6월 5일에 이조에서 수령육기법을 건의했다. 육기법은 수령의 임기를 기존의 두 배인 60개월로 늘리는 것이었다. 당시 이조판서는 허조였는데 세종이 허조의 의견에 따르면서 수령육기법이 시행되었다.²⁵⁾ 그중 이조가 계문을 통해 가장 먼저 제시한 육기법의 시행 목적은 경외관의 운용에 관한 것이었다.²⁶⁾ 육기법의 시행 자체가 경외관 운영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D) 우리 태조께서 창엽하시면서 적폐를 청산할 것을 생각하여 마침내 외관은 30개월을 임기를 채우는 것으로 정하시고 서울의 관리는 자주 바뀌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중외에 관리의 성적을 평가하는 법을 세웠으나 큰 난리가 이어지면서 대체를 세우지 못하고 일시적인 권도를 세웠습니다. 태종께서 선지를 이어 경관을 구임하고 옛것을 회복하고자하여 고만지법(考滿之法)을 세웠으나 각사의 관원 수는 제한이 있고 수령으로 임기를 채운 자는 반드시 자리가 비어야 임명될 수 있으니 마침내 좋은 법을 거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²⁷⁾

D)는 이조가 수령육기법을 제안하면서 올린 상소의 내용이다. 수령육기법의 주요 목적은 경관과 외관을 순환시키는 것이었다. 여기서 이조는 중앙 각사의 인원은 적고 수령은 많아서 임기가 만료된 수령에게 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령의 임기를 두 배인 60개월로 연장하면 교체되는 수령의 수가 줄어들고 경관과 외관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²⁸⁾ 육기법은 수령직 자체를 꺼리던 분위기와 맞물려 반대에 부딪혔지만 세종은 육기법 시행 의지를 꺾지 않았다.²⁹⁾ 세종은 육기법을 폐지할 수 없

25) 『세종실록』 권20, 5년 6월 5일 갑인.

26) 수령육기법의 목적은 그간의 연구를 통해 지방 통치의 안정 등 여러가지가 제시되었다(구완회, 1988, 앞의 논문; 임선빈, 1990, 앞의 논문; 임용한, 2002, 앞의 책). 특히 구완회는 수령육기법과 경외관순환제를 경관과 외관을 순환시켜 구임법에 기반한 원활한 순환 근무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연구는 특히 수령육기법을 경외관 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7) 『세종실록』 권20, 5년 6월 5일 갑인. “我太祖創業 思革積弊 遂令外官以三十月爲滿, 在京官吏不許數易 且立中外考績之制 然承大亂之後 未遽大貞 姑爲一時之權 太宗繼承先志 京官久任 思復古昔, 乃立考滿之法 然各司員額有限 而守令簡滿者 必須窺關注擬 遂使良法或難舉行”

28) 구완회, 1988, 앞의 논문, 30~37쪽.

29) 육기법에 반대하던 신하들이 반대 논리로 제시한 대표적인 이유는 임기가 너무 길어지면 수령

는 이유로 신하들이 경직만 제수받으려 하고 수령직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한다.³⁰⁾ 그만큼 육기법은 경외관 순환을 염두에 두고 실시된 정책이었다.

세종 13년(1431), 세종은 수령직을 회피하는 자의 서용을 6년 동안 금지시켰다.³¹⁾ 수령육기법을 시행하자 수령직 제수 자체를 피하거나 병을 핑계로 사직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수령의 임기를 늘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령직 회피가 이어지자 세종은 수령 회피자를 10년 동안 서용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지시했다.³²⁾ 세종 13년(1431) 10월에 집현전에서 『문헌통고(文獻通考)』와 『통전(通典)』을 상고해 중국에도 반드시 수령을 역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었음을 아뢰었다. 결국 수령직을 기피한 자를 6년 동안 서용이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논의에서는 수령의 임기를 다시 30개월로 줄이자는 의견과 육기법은 유지하되 대우를 개선하자는 의견은 제시되었지만 신하 중 기피자 서용 금지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다.³³⁾ 수령직 회피자 처벌은 세종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었다.

세종 22년(1440)에는 공식적으로 경외관순환제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수령직 회피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든 후에도 수령육기법에 대한 반대는 이어졌다. 특히 세종 22년(1440) 3월에는 형조참판 고약해가 육기법의 부당함을 강변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³⁴⁾ 고약해는 이미 같은 해 정월에도 육기법의 폐해를 아뢴 바 있었다.³⁵⁾ 그런데 고약해가 재차 수령육기법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세종의 말을 끊고 얘기하는 등 그 태도가 문제가 되었다. 세종은 바로 사헌부에 명해 고약해를 추국하도록 했다. 세종이 강조한 것은 고약해의 무례함보다는 육기법에 문제가 없으며 이것에 반대하는 마음이 사사로웠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대간이 고약해를 추문하지 말고 언로를 넓힐 것을 청하자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실제 고약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³⁶⁾

고약해 사건은 세종의 육기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세종 22년(1440) 5월, 지금까지 수령을 지내지 않은 자 중 5~6품은 4품이 될 수 없고 4품~종3품은 통훈대부가 될 수 없도록 했다.³⁷⁾ 수령직을 거치지 않고는 당상관에 오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지가 있거나 문장·무예·이문·한어를 특별히 잘하는 자만을 예외로 두었다. 의정부 사인이나 육조 낭관, 대간 등 요직에 있는 관리도 특지를 받거나 수령을 거치지 않으면 당상관이 될 수 없었다.

경외관순환제 실시 후에도 세종의 의지와는 별개로 수령으로 파견되는 경관의 반발은 남아있었다. 세종 22년(1440)에 장령 우효강이 지양군군사로, 헌남 권형이 지함안군사로

이 되는 자가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에 의욕을 잃는다는 것이었다(『세종실록』 권88, 22년 1월 19일 임술).

30) 『세종실록』 권52, 13년 5월 17일 경진. “實仕之法 不可削也 大抵守令職專治民 所係匪輕 人皆欲除京職 托以老病親 不赴外官 甚不可也 或授親在近處 而欲辭者 又何意也 或親在慶尙全羅者常任京官 而無爲親辭去者矣 實仕之法 勿削之”

31)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7일 무신.

32) 『세종실록』 권53, 13년 8월 6일 무술.

33) 『세종실록』 권54, 13년 10월 17일 무신.

34)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18일 경신.

35) 『세종실록』 권88, 22년 1월 19일 임술.

36) 『세종실록』 권88, 22년 3월 19일 신유.

37) 『세종실록』 권89, 22년 5월 18일 기미. “今後自六品至拜五品者 非經守令 則不得陞爲四品 自四品至拜從三品者 非經守令 則不得陞爲通訓 通訓以上 未經守令者 隨宜除拜隨宜除拜 其中特旨及文章武藝吏文漢語特異者 不在此限”

임명되었다.³⁸⁾ 이 인사 조치에 대한 반발로 같은 대간이었던 좌정언 박적선은 이들을 다시 경관으로 제수하길 청했다. 박적선은 대간을 외직에 임명하는 법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³⁹⁾ 세종은 대간을 외직에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 정해진 제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임명을 강행했고, 황희 역시 대간이 외임을 맡은 사례가 많다는 것에 동의했다.⁴⁰⁾ 이후에도 경관의 수령직 회피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 같은 해에 사헌집의 조서안이 영흥대도호부사로 제수되자 유사한 반발이 있었다.⁴¹⁾ 세종 25년(1443)에도 수령직을 회피하려한 박충지와 김중권이 적발되기도 했다.⁴²⁾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의 반발 속에서도 경관을 수령으로 파견하려는 정책을 유지했다.

세종은 앞서 재위한 왕들과 마찬가지로 수령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세종은 수령의 임명과 파견 과정에서부터 자질이 확인된 수령을 파견하고자 했다. 그런 세종의 의중이 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경외관 순환을 통한 경관의 수령 파견이었다. 경관의 수령 파견에는 파견 대상자가 될 관인들의 지속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세종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경외관순환제는 폐기되지 않았고 『경국대전』에까지 수록될 수 있었다.⁴³⁾

세종대 수령 파견 정책 변화의 결과 세종대 문과 출신 수령은 군현 읍지의 선생안을 통해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⁴⁴⁾ 경상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읍지가 남아있는 지역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기준 경상도 지역의 66개 군현에 해당하는 선생안 178개를 검토한 결과, 거창, 경주, 안동, 영천, 예안, 진보, 청송, 풍기, 함안의 9개 군현 선생안에 조선 초 수령 명단이 기재되어 있었다. 상기한 9개 군현 이외 지역의 읍지에는 조선 초기 수령이 1~5명 정도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반면 상기한 9개 군현의 읍지에는 세종대에 근무한 수령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9개 군현의 조선건국 이후 세종대까지의 수령 명단 기록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38) 『세종실록』 권90, 22년 8월 7일 병자.

39) 『세종실록』 권90, 22년 7월 18일 무오.

40) 『세종실록』 권90, 22년 7월 18일 무오.

41) 『세종실록』 권91, 22년 12월 20일 기축.

42) 『세종실록』 권101, 25년 7월 25일 무인.

43) 『經國大典』 이전, 경관직. “承文院官員寫字吏文特異者·弘文館官員·諸道教官及遞兒職外 非經守令者 不得陞四品以上階 (兵曹同) 年未滿二十者 勿授東班職 (諸科出身者 否)”

44) 선생안은 부임한 수령의 임기나 교체 사유 등을 연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생안 기록 중 비교적 초기 기록에 해당하는 15세기 기록은 수령 재임 기록에 누락 및 오기가 많다. 하지만 일부 군현의 선생안은 공백기 없이 세종대 수령 재임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선생안을 통해 문과 출신 수령 파견 양상을 확인해 볼 것이다. 앞서 이수건·이원균·권기중 등의 연구에서 각 지역에 부임한 수령의 연혁을 정리한 先生案이 사용된 바가 있다(이수건, 1989, 앞의 책; 이원균, 1987, 『조선시대 지방관의 교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기중, 2018, 「조선시대 任實縣 守令의 출신성분과 在任實態」, 『역사와 실학』67; 2018, 「조선시대 산군(山郡)·해읍(海邑)수령의 재임기간과 교체 사유 - 김제군(金堤郡)·무장현(茂長縣)·운봉현(雲峰縣)·진안현(鎭安縣)을 중심으로」, 『포은학연구』22; 2018, 「조선시대 전라도 수령의 품계와 재임기간-전북 25개 군현을 대상으로-」, 『태동고전연구』41). 특히 구완회는 9개 지역 선생안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 수령의 임기를 살펴본 후, 실제로 세종대에는 수령의 재임기간이 증가했고 육기법은 수령의 구임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구완회, 1988, 앞의 논문).

순번	지역	조선대 기록 시작	기재 단위	수령 수
1	居昌	1392(태조 즉위년)	年	34
2	基川	1397(태조 6년)	年	22
3	咸安	1392(태조 즉위년)	年	29
4	安東	1392(태조 즉위년)	年	36
5	永川	1392(태조 즉위년)	年	28
6	禮安	1392(태조 즉위년)	月	31
7	眞寶	1394(태조 3년)	年	27
8	慶州	1392(태조 즉위년)	月	38
9	青松	1418(세종 즉위년)	月	14
합계				259

<표 1> 경상도 9개 군현 읍지의 조선시대 수령 재임 기록 현황

태조~세종대까지 9개 군현에 부임한 수령은 총 259명이었다. 예안, 경주, 청송의 선생안은 임기가 월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거창, 기천, 안동, 함안, 영천, 진보 등 여섯 개 군현의 선생안은 부임 연도까지만 기록되어 있다.⁴⁵⁾ 자료로 사용한 경상도의 9개 군현은 조선시대 330여 개 군현 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각 군현에 부임한 수령의 임기를 확인할 수 있어 시계열적 공백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초기 수령 파견 양상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중 문과 출신자의 명단을 문과방목류, 『씨족원류』를 통해 확인해 보면 259명의 수령 중 문과 합격자는 총 60명이었다. 조선 건국 이후 문과에 합격한 수령은 40명, 고려 때 과거에 합격한 수령이 20명이었다. 이 밖에 사마시 합격자가 3명, 음서 출신자가 1명, 환자(宦者) 출신자가 1명, 군공을 통해 입사한 수령이 1명 있었다. 문과 합격자들은 조선시대 관료군 중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집단이었다.⁴⁶⁾ 공민왕 이후로 조관을 수령으로 파견하도록 했지만 실제로 문과 합격자들이 수령으로 파견되는 비중은 낮았다. 그런데 경상도 지역의 선생안을 살펴보면 문과 출신 수령은 세종대, 특히 수령 육기법 시행 이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45) 청송의 경우 원래 진보의 속현인 靑鳧懸이었는데 세종 즉위년(1418)에 세종비 소헌왕후의 내향이라는 이유로 승격시켜 진보현과 합쳐 靑寶郡으로 삼았다(『세종실록』 권1, 즉위년 9월 25일 임신; 권150, 지리지 경상도 청송군). 세종 5년(1423)에 청보군의 과거 청부현 지역은 또 다른 독립된 군현이었던 松生縣과 합쳐 청송군으로 이름을 고쳤다(『세종실록』 권22, 5년 10월 27일 갑술). 이때 진보현에 다시 현감을 두면서 청보군에서 분리된다(『세종실록』 권150, 지리지 경상도 진보현). 결과적으로 진보현과 청부현을 합쳐 만들었던 청보군은 세종 즉위년(1418)부터 세종 5년(1423)까지 존재했다. 청보군의 군수는 『眞寶邑誌』와 『靑松郡邑誌』에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청보군 창설 및 군 승격 사유가 청송 심씨인 소헌왕후의 내향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청보군의 수령을 청송군의 수령 명단에 포함시켰다.

46) 이성무, 1980, 『조선초기 양반연구』 일조각.

시기	居昌	慶州	基川	安東	永川	禮安	眞寶	靑松	咸安	합계
태조대	1	5	0	1	1	0	0		0	8
정종대	0	2	0	0	0	0	1		1	4
태종대	2	3	1	2	2	1	0		2	13
세종대	육기법 이전	0	0	0	1	0	0		1	3
	육기법 이후	3	3	2	6	7	0	1	4	32
합계	6	13	3	10	10	1	2	6	9	60

* 眞寶와 靑松 열의 음영처리 된 부분은 군현 치폐 과정에서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함.

<표 2> 경상도 9개 군현의 왕대별 문과 출신 수령

<표 2>를 보면 문과 출신 수령이 세종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육기법이 시행되는 세종 5년(1423) 이후에 문과 출신 수령의 절반 이상이 임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의 재위 기간(33년)이 태조(7년)·정종(2년)·태종(18년)에 비해 길었던 것을 문과 출신 수령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표 3>을 보면 해당 시기에 파견된 전체 수령 대비 문과 출신 수령의 비율 자체가 세종대 육기법 시행 이후 확연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대에는 육기법 실시와 함께 수령의 임기가 증가했기 때문에 문과 출신 수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⁴⁷⁾

시기	부임 수령 전체	문과 출신 수령	문과 출신 수령 비율
태조대	37	8	21.6%
정종대	16	4	25.0%
태종대	94	13	13.8%
세종대	육기법 이전 21	3	14.3%
	육기법 이후 91	32	35.2%
합계	259	60	22.8%

<표 3> 경상도 9개 군현의 시기별 문과 출신 수령 비율

<표 3>은 9개 군현에 부임한 수령 중 문과 합격자 출신 수령의 비율을 왕대별로 정리한 것이다. 세종 5년(1423) 육기법 시행 이전의 문과 출신 수령 비율이 16.7%인데 비해 육기법 시행 이후 문과 출신 수령 비율은 35.2%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건국 초 경주부윤 대부분이 문과 출신으로 파견되던 경주의 영향으로 태조·정종대 문과 출신 수령 비율이 20%대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랬던 경주 지역에 문과 출신 수령의 파견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세종대에는 오히려 9개 군현 수령 중 35% 이상이 문과 출신으로 파견된 것이다. 특히 영천이나 함안, 안동에서 문과 출신 수령이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편 문과 출신 수령은 비문과 출신 수령보다 재임 기간이 길게 나타났다. 9개 군현 수령 25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1.5개월이었다.⁴⁸⁾ 이 중 문과 출신 수령 60명의 평균 재임

47) 실제로 구완회는 9개 지역의 선생안에 등장하는 수령의 재임기간이 수령육기법 시행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구완회, 1988, 앞의 논문, 54~63쪽).

48) 年 단위로 기재된 居昌, 基川, 安東, 咸安, 永川, 眞寶의 개월 단위 재임 기간은 年을 기준으로 재임 기간을 계산한 후 12를 곱했다. 예를 들어 태조 원년(1392)부터 태조 2년(1393)까지 1년 동안 咸安郡守로 근무한 蔡泳은 12개월로 재임 기간을 계산했다.

기간은 약 26.6개월이었다. 반면 비문과 출신 수령 199명의 평균 재임 기간은 약 20개월이었다. 문과 출신 수령이 비문과 출신 수령보다 약 6.6개월 재임 기간이 길었다. 수령의 재임 기간 연장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수령의 잦은 교체[數遞]와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수령의 잦은 교체는 경외관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지방민이 수령을 환영·환송하는[迎送] 폐단을 늘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⁴⁹⁾ 문과 출신 수령의 재임 기간이 길었다는 점은 수령의 잦은 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군현 통치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3. 세종대 수령 인건의 확대와 인건 양상

1) 수령 인건 확대 과정과 인건 절차

1. 대간의 수령 인건 요구와 세종 7년(1425) 수령 인건 확대

조선 건국 이후 국왕의 수령 인건이 처음 제안된 것은 태종대였다. ‘인견(引見)’은 왕이 사람을 ‘불러보는’ 행위를 통칭했다. 인견의 대상이나 목적은 다양했다. 왕이 몇몇 관리를 불러 주요 현안을 논의하거나,⁵⁰⁾ 명이나 일본으로 파견된 사신을 사행 전후로 왕이 불러보는 것을 모두 인견이라고 표현했다.⁵¹⁾ 관찰사나 수령, 경차관과 같이 지방으로 파견된 관리도 인견의 대상이 되었다.⁵²⁾ 그렇다고 인견이 관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공적인 업무만을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입사하지는 않았지만 효렴이나 무재로 천거된 사람들을 인견하기도 했다.⁵³⁾ 조선인이 아닌 내조한 왜인이나 야인을 왕이 만나보는 것 또한 인견이었다.⁵⁴⁾ 남을 번(南乙蕃) 사후에 태조는 그 아들인 남재(南在)와 남은(南闇)을 편전으로 불러 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이때도 인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⁵⁵⁾ 왕이 누군가를 불러서 직접 만나보는 인견은 입사한 관리부터 비입사자, 왜인이나 야인 같은 외국의 사신까지 다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동아시아에서 왕이나 황제가 지방관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조선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동아시아의 군현제에서 수령은 항상 중요한 존재로 거론되어왔다. 중국의 한에서는 수령에 해당하는 군수(郡守)의 직임을 중요하게 여겨 상서령(尙書令)이나 복야(僕射)와 같은 고위 관료가 군수가 되거나 반대로 군수가 중앙으로 돌아와 삼공(三公)이 되는 예도 있었다.⁵⁶⁾ 수령을 중요하게 여긴 만큼 황제가 수령을 만나보는 경우도 종종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통전(通典)』이나 『문헌통고(文獻通考)』의 관직조를 검토해보면 역대 중국에서는 수령으로 파견되는 인원을 일괄적으로 황제가 인견하는 제도나 관련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⁵⁷⁾

49) 임용한, 2002, 앞의 책, 166-167쪽.

50) 『태종실록』 권29, 15년 1월 16일 을묘.

51) 『태조실록』 권6, 3년 6월 27일 을미; 『정종실록』 권1, 원년 5월 16일 을유.

52) 『태종실록』 권34, 17년 12월 15일 병신; 『세종실록』 권52, 13년 5월 17일 경진.

53) 『태조실록』 권14, 7년 5월 17일 계해.

54) 『태조실록』 권10, 5년 12월 21일 을미; 『세종실록』 권82, 20년 7월 6일 무자.

55) 『태조실록』 권7, 4년 2월 13일 정축; 권8, 4년 7월 9일 경자.

56) 『통전』 권15, 郡太守. “後漢亦重其任 或以尙書令僕射出爲郡守 或自郡守入爲三公”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인견은 왕이 누군가를 불러보는 행위라는 의미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지만 고려 후기까지도 수령을 인견했다는 기록은 없다.⁵⁸⁾ 수령 인견에 관한 기록은 고려 공민왕대에 처음 나타난다.

E) 10월에 대간이 상언하기를 “지방이 편안하거나 힘든 것은 수령에게 달려있습니다. 비록 대간과 정조(政曹)에게 천거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모두 면식과 정에 따라 천거하니 글자를 알지 못하는 자까지 있습니다. 바라건대, 인견하시고 그 이름과 실상이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고 적절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하였다면 그 천거한 자를 벌해야 합니다.”⁵⁹⁾

E)를 보면 공민왕 11년(1361) 10월에 처음으로 대간이 수령으로 천거된 사람을 인견할 것을 청했다. 대간이 수령 인견을 청한 것은 수령을 천거하는 과정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이 천거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고려 후기에는 수령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수령제 개혁안이 제시되었다.⁶⁰⁾ 대간의 수령 인견 요청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제시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 대간이 상언한 것은 수령으로 천거된 자에 대한 인견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고려사』에는 수령을 인견한 기록이 한 건도 남아있지 않다. 국왕이 수령을 인견한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적어도 당시에 수령 인견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국왕이 수령을 인견하는 것은 조선 건국 이후 태종대에 다시 제안되었다. 태종 원년(1401)에는 사간원이 수령을 가려 뽑을 것과 함께 새로운 수령이 조사(朝辭)하는 날에 반드시 인견할 것을 청했다.⁶¹⁾ 이때 태종은 사간원의 청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약 석 달 뒤인 태종 2년(1402)에 사간원이 수령이 조사하는 날에 국왕이 인견하기로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다면 백성에게 신의를 보여줄 것을 청했다.⁶²⁾ 태종 2년(1402) 시점에도 태종은 수령 인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수령 인견 확대는 태종 사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세종은 태종이 사망한 후 신하들과 직접 대면해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갔다. 조선에서 신하가 왕을 직접 만나는 것은 한정적으로 주어진 기회였다. 신하가 왕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는 대표적으로 조회, 경연, 윤대, 인견 등이 있었다. 세종은 왕이 직접 신하들을 대면하는 기회를 넓혀가고 있었다.⁶³⁾ 그중에서도 왕과 소수로 대면해 맡은 업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는 경연이나 윤대가 대표적이었다.⁶⁴⁾ 윤대와 수령 인견 확대가 같은 해에 시작되었고 경연이 세종

57) 중국에서도 인견은 ‘황제가 신하나 빈객을 접견하는 것’을 의미했다. (『한어대사전』, “引見, 引導入見。舊指皇帝接見臣下或賓客時由有關大臣引導入見。”)

58) 『三國史記』 권8, 신라본기8 효명왕 7년 춘3월; 『高麗史』 권74, 지28 선거2 숙종 2년 9월.

59) 『高麗史』 권75, 지 권29 선거3 전주. “十月 臺諫上言 田里休戚 在於守令 雖有臺諫政曹保舉之令 皆徇面情所薦 至有不識字者 願自今 臨軒引見 核其名實 舉非其人 舉主必罰”

60) 임용한, 2002, 앞의 책, 19~106쪽.

61) 『태종실록』 권2, 원년 11월 7일 신묘.

62) 『태종실록』 권3, 2년 2월 18일 신미.

63) 장희홍, 1998, 「조선초기 輪對制의 시행과 운영」 『동국사학』32, 5~9쪽; 강제훈, 2004, 「조선 초기의 朝會 의식」 『조선시대사학보』28, 18~26쪽.

64) 세종대 경연은 집현전이 확대·개편된 세종 4년(1422) 11월에 代言 1인과 經筵官 2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남지대, 1980, 「조선초기의 경연제도 - 세종, 문종년간을 중심으로 -」 『한국사론』6). 윤대는 세종 7년(1425) 7월에 처음 시행되었다. 윤대는 왕의

24년(1442) 3월, 윤대가 세종 25년(1443)에 정지되었다는 점에서 수령 인건 확대는 경연·윤대의 실시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세종이 수령 인건 확대의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한 것은 왕이 직접 만나봐야 할 만큼 수령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이었다. 세종은 인건 확대 조치 직후 인건에서 수령은 나가서 100리를 다스리니 그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건하는 것이라고 그 의도를 밝히고 있다.⁶⁵⁾ 다음 인건에서는 지방에 나가면 오랫동안 보지 못한다는 점을 수령을 인건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⁶⁶⁾ 하지만 수령이 중요한 자리라는 점은 여러 번 강조되어왔기 때문에 모든 수령을 인건하는 계기로 꼽기에는 부족하다.⁶⁷⁾

세종이 수령 인건 확대를 결정한 세종 7년(1425)이 부민고소금지법 시행의 부작용이 대두된 시기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⁸⁾ 부민고소금지법에 관한 논의는 세종 원년(1419)에 허조에 의해 시작되어 세종 4년(1422)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정해졌다. 고을의 백성이 그 마을의 관리를 고소할 때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장형 100대와 유형 3천리에 처하도록 했다.⁶⁹⁾ 부민고소금지법의 기본적인 발상과 명분은 강상의 질서에 관한 것이다. 수령은 임금을 대신하여 지방의 정사를 맡고 있으니 고을의 백성은 수령에게 군신의 예를 갖추어야 하는데 도리어 수령을 고소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었다.⁷⁰⁾ 하지만 부민고소금지법은 시행 당시부터 탐오한 수령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려했던 일은 실제로 발생했다. 세종 7년(1425)에 창원부사 안중약이 죄를 짓자 세종은 부민고소금지법은 좋은 기풍을 만드는 법이지만 탐욕스러운 관리들이 부민고소금지법을 믿고 문제를 일으킨다며 수령들의 교체 여부를 논의하기도 했다.⁷¹⁾

부민고소금지법은 세종대 대표적인 수령권 강화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군현의 사법·행정·재정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수령은 그만큼 각종 문제에 연루되기도 쉬웠다. 고을 주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한 만큼 세종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수령들을

이목을 넓히고 언론을 확대하며 신하들의 현부를 확인하고 국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듣는다는 명목으로 시행되었다. 윤대는 세종 재위 동안 실록에 기록된 횡수가 1136회에 달할 정도로 활발하게 시행되다가 세자였던 문종이 정치를 전담하게 되는 세종 25년(1443) 6월부터 정지되었다(장희홍, 1998, 앞의 논문, 5~19쪽).

65) 『세종실록』 권30, 7년 12월 8일 계유. “守令出宰百里 其任匪輕 今日引見 重其任也”

66) 『세종실록』 권30, 7년 12월 19일 갑신. “爾等出宰于外 則久不接見 故今予親見之”

67) 인건 확대의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정리한 바 있다. 이수건은 ① 수령이 왕의 분신으로 읍민을 통치하니 중요한 자리라는 것과, ② 경관은 2명 이상의 동료와 있어 장단점을 보완하지만 수령은 혼자서 일음을 홀로 다스리니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했던 상황을 인건 확대의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수건, 1989, 앞의 책, 248~250쪽).

68) 부민고소금지법은 지방사회의 기존 지배자였던 향리층의 반발을 봉쇄하고 수령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이해되어왔다(이수건, 1989, 앞의 책; 이준희, 1990, 앞의 책; 최이돈, 1993, 「조선초기 수령 고소 관행의 형성과정」, 『한국사연구』82; 송양섭, 2003, 「조선시대 관권과 사족, 타협과 충돌」, 『역사비평』). 최근에는 15세기에 한정되었던 부민고소금지법에 대한 연구 범위를 16세기 중종대 부민고소금지법의 개정까지 확대하여 사족이 지방의 지배층으로 성장하던 16세기에 도 국가는 수령권 우위의 기조를 유지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백승아, 2015, 「15·16세기 부민고소금지법의 추이와 지방통치」, 『한국사론』61).

69) 『세종실록』 권4, 원년 6월 21일 갑오; 『세종실록』 권15, 4년 2월 3일 경인.

70) 조운선, 2006, 「조선후기 강상범죄의 양상과 법적 대응책」, 『법사학연구』34, 66쪽.

71) 『세종실록』 권27, 7년 3월 24일 갑오. “曩者以部民訴守令 其風不美 乃立部民告訴之禁 此乃厚風也 然貪暴之吏 恃其禁令 妄行無忌 故予更使察訪案問民間 今犯法守令被劾者多矣”

직접 만나보고 수령이라는 자리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세종 8년(1426) 정월에 세종은 최근에 부정한 짓을 범하는 지방관들이 있어서 친히 인견한다고 밝히고 있다.⁷²⁾ 같은 해 3월에는 “수령은 혼자서 한 읍을 홀로 다스리는 자리인데 잘못된 사람이 임명되면 백성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한 후 직접 만나보고 내려보낸다(守令 則獨宰一邑 得專政令 苟非其人 民受其害 故擇用賢能 親見以送)”고 인견하는 목적을 밝힌바 있다.⁷³⁾ 세종의 이런 인식은 즉위 이후 뇌물이나 횡령과 관련된 장죄(贓罪)로 많은 수령들이 파직되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⁷⁴⁾ 세종은 문제를 일으키는 수령이 많은 상황에서 부민고소금지법으로 인해 수령 고소가 제한적이었지만 직접 수령 파견자들을 만나봄으로써 그 현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세종 7년(1425) 11월에 세종은 앞으로 2품 이하의 수령이 배사(拜辭)할 때 본인이 직접 보겠다는 뜻을 밝혔다.⁷⁵⁾ 세종은 세종 7년(1425)부터 세종 25년(1443)까지 19년 동안 모든 수령을 인견해 수령의 자질을 시험하고자 했다. 세종의 수령 인견은 세종 7년(1425)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새로 제수되는 수령은 예궐해 배사하고 제수된 수령이 외방에 있더라도 서울로 올라와 배사한 뒤에 부임해야 했다.⁷⁶⁾ 처음에는 한 번에 인견하는 수령을 다섯 명으로 제한했지만 실제로는 10명 이상을 한 번에 인견한 적도 있었으며 인견 순서가 밀려 부임하지 못하자 인견 인원 제한을 없애기도 했다.⁷⁷⁾ 인견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임하지 못한 수령이 문제가 될 정도로 수령 인견은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2. 조선초기 수령 부임 과정과 인견

세종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왕 수령 인견의 절차와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 수령 인견은 신임 수령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수가 결정된 다음부터 부임지로 출발하기 전 어떤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지만 사료적 한계로 조선초기의 관련 규정이나 수령 부임 사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16세기 이후의 일기류에는 그 과정이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이를 바탕으로 조선초기 인견 과정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전의현감과 목천현감에 제수된 바 있는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일기인 『이재난고(頤齋亂藁)』를 통해 국왕의 수령 인견의 실례를 확인할 수 있다. 황윤석은 18세기에 살았던 인물로 그가 수령직인 목천현감에 제수된 것은 정조 3년(1779)이었다. 본 발표문의 배경이 되는 시기와는 약 300년 정도 차이가 있지만 수령 부임 과정에 등장하는 용어와 대략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이재난고』에 따르면 목천현감에 제수될 당시 고향인 전라도 흥덕(興德)에 있었던 황윤석은 40일 내에 서울에 올라가 임금에게 제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해야 했다. 한양에 도착한 황윤석은 사은숙배를 하기 위해 숙배단자(肅拜單子)를 작성해 제출하고 승정원 밖에 나아가 세 번 사배(四拜)했다. 사은숙배를 마친 황윤석은 대간의 서경을 마친 후 조사(朝辭) 단계를 거쳤다. 조사는 서경을 거쳐 관직

72) 『세종실록』 권31, 8년 1월 17일 임자.

73) 『세종실록』 권31, 8년 3월 20일 갑인.

74) 『세종실록』 권10, 2년 10월 17일 임자; 『세종실록』 권22, 5년 10월 19일 병인; 『세종실록』 권23, 6년 2월 5일 신해; 『세종실록』 권24, 6년 5월 11일 을유.

75) 『세종실록』 권30, 7년 11월 24일 기미.

76) 『세종실록』 권30, 7년 12월 4일 기사.

77)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18일 갑자.

제수가 결정된 시점에 비변사의 대신들, 이조 관리, 대간들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표하는 것이었다. 조사는 모든 관직자에 해당하는 의례가 아니라 수령이나 진장으로 제수받은 자가 거쳐야 하는 절차였다. 18세기 당시 수령이 조사 할 대상은 『수교집록(受敎輯錄)』에 시·원임 대신, 육조판서, 양국대장, 시임대간, 이조당상, 낭청, 비국당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조사는 여러 명을 만나봐야 했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기도 했으며 조사를 마친 날 하직숙배(下直肅拜)를 올렸다. 황윤석은 사은숙배 때와 마찬가지로 숙배단자를 올린 뒤 인정전 뜰에 나가 하직숙배를 올렸다. 인정전 뜰에서 이루어진 하직숙배는 반드시 국왕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왕이 신임 수령을 인견한다면 이때 이루어졌는데 정조는 황윤석을 인견해 외읍을 다스린 적이 있는지, 어떻게 다스릴지를 하문했다.⁷⁸⁾ 이상의 『이재난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후기에 수령으로 제수된 자는 사은숙배-조사-하직숙배의 과정을 거쳤으며 국왕이 수령을 인견한다면 그 시점은 하직숙배하는 날에 진행되었다.

사은숙배-조사-하직숙배로 이어지는 절차는 16세기와 18세기 일기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적어도 16~18세기 사이에는 절차상 큰 변화없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 인물인 유희춘은 선조 4년(1571)에 전라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는데 수령은 아니지만 전라도 관찰사도 외관으로 인견의 대상이 되는 관직인만큼 부임 절차는 유사했다. 유희춘은 같은 해 3월 13일에 숙배를 했는데 이는 『이재난고』의 하직숙배(下直肅拜)에 해당하는 절차였다. 유희춘은 이날 일기를 시작하며 배사(拜辭)를 하기 위해 대궐에 갔으며 승정원에 단자를 제출했다고 하고 있어 16세기에도 18세기와 마찬가지로 숙배단자를 제출하고 승정원을 거쳐 숙배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날 조강이 없어 선조는 유희춘을 인견하지 않았다.⁷⁹⁾ 18세기 인물인 노상추는 정조 16년(1792)에 삭주부사에 임명된 바 있었다. 정조는 노상추와 함께 수령에 제수된 남양부사 이익진, 대정현감 남숙, 회인현감 김노영을 인견했다. 노상추는 그의 일기에 당시 상황을 기록했는데 황윤석과 마찬가지로 사은숙배-조사-하직숙배의 과정을 거쳐 하직숙배 하는 날에 정조가 인견했다.⁸⁰⁾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발표문의 배경이 되는 세종대를 수령 인견과 관련된 기사를 살펴보면 수령 인견은 ‘조사(朝辭)’ 혹은 ‘사조(辭朝)’, ‘배사(拜辭)’, ‘숙배(肅拜)’ 등 ‘사(辭)’에 해당하는 절차와 함께 등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종 원년(1401), 사간원은 상소에서 ‘수령이 조사하는 날 직접 인견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을 물을 것(守令朝辭之日 躬親引見 問其所以安民之)’을 요청했다.⁸¹⁾ 사간원의 이 상소를 보면 조선초기에도 신임 수령이 조정에 인사하는 조사와 국왕이 불러보는 인견은 별개의 절차였으며 인견은 조사하는 날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세종 7년(1425)에 인견을 확대하면서 세종은 ‘수령이 배사할 때 내가 직접 볼 것(守令拜辭時 予親見之)’이라고 하여 이때는 ‘배사(拜辭)’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⁸²⁾ 배사에는 대전이나 왕비전, 왕세자궁에 절하는 절차인 ‘숙배(肅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배사하는 날에 수령을 인견하겠다는 것은 세종 7년(1425) 이전부터 3품 이하의 수령도 조사

78) 김혁, 2002, 「조선후기 수령의 부임의례 - 「이재난고」를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22, 157~168쪽.

79) 『미암일기』, 선조 4년 3월 13일.

80) 『노상추일기』, 정조 16년 11월 18일 정미~25일 을묘.

81) 『태종실록』 권2, 원년 11월 7일 신묘.

82) 『세종실록』 권30, 7년 11월 24일 기미.

와 함께 숙배를 시행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견에 앞서 행해지던 쉼에 나가 숙배하며 사은하는 절차, 즉 사은숙배와 조정에 인사하는 절차인 조사는 건국 직후인 태조대부터 존재했던 것이 확인 된다.⁸³⁾ 사은숙배-조사에 더해 수령에 제수되면 조사와 숙배하는 날에 국왕이 수령을 인견하는 절차가 세종 7년(1425)부터 추가되어 사은숙배-조사-하직숙배-(인견)으로 이어지는 부임 절차가 모든 수령을 대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2) 세종대 국왕의 수령 인견 양상

이 절에서는 세종대 수령 인견 확대 시행 이후의 시행 양상과 인견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다룰 것이다. 세종 초에는 새로 제수된 수령이 외방에 있는 경우 조사를 면제해주기도 했지만,⁸⁴⁾ 수령 인견이 확대되는 세종 7년(1425) 이후에는 외방에 있더라도 모두 조사한 후에 부임하도록 했다.⁸⁵⁾ 예외적인 상황도 있었는데 세종 19년(1437)에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흉년이 심각한 충청·경상·전라 삼남 지역의 경우 이미 수령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수령에 제수되면 서울에 와서 조사하는 것을 면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견도 하지 않았다.⁸⁶⁾ 다만 이것은 삼남 지역만 흉년이라는 일시적인 상황으로 인해 인견이 중단된 것이었으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모든 수령을 대상으로 인견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후대에도 특정인에 대해서 조사를 면제시키는 사례가 보이지만 서울에 올라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⁸⁷⁾ 이 밖에 문종이나 단종대에는 국상으로 인견하지 못한 때도 있었지만⁸⁸⁾ 세종 7년(1425)~세종 25년(1443) 사이에는 국상이 없었다. 그만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종 7~25년 동안에는 거의 모든 수령을 인견한 것이었다.

그중 『세종실록』에는 341개의 수령 인견 기사가 노출된다. 수령을 인견한 기사는 341개지만 세종은 한 번의 인견에 적게는 한 명에서, 많게는 열 명의 수령을 인견했다. 결과적으로 341개 기사에서 613명의 수령 명단을 인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시기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세종이 꾸준히 수령을 인견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이 수령 인견을 확대한 세종 7~25년 사이에 실제로 임명된 수령은 613명보다 훨씬 많았다. 규정된 수령의 임기인 60개월마다 330여 명의 수령이 새로 임명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정 임기의 절반 정도를 채우는 정도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5년에 660명 가량의 수령이 새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 7~25년 사이에 약 1,800~2,000명의 수령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⁸⁹⁾ 인견 기사에 수령이 613명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모든 인견 기사가 실록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⁹⁰⁾

83) 『태조실록』 권8, 4년 7월 21일 임자

84) 『세종실록』 권2, 즉위년 12월 21일 병신; 권4, 1년 5월 18일 임술.

85) 『세종실록』 권30, 7년 12월 4일 기사.

86) 『세종실록』 권76, 19년 1월 1일 신묘.

87) 『成宗實錄』 권100, 10년 1월 18일 을해.

88) 『文宗實錄』 권2, 즉위년 7월 24일 병인; 『端宗實錄』 권1, 즉위년 5월 29일 신유.

89) 임용한 역시 전국의 군현이 330여 개이고 수령의 실제 임기가 법정 임기인 60개월의 절반 정도였다는 점을 통해 매년 약 100여 명의 수령이 새로 임명되었다고 추산한 바 있다(임용한, 2002, 앞의 책, 179쪽).

90) 앞서 살펴본 9개 군현의 선생안에 등장하는 수령 중 세종의 수령 인견 확대 기간에 부임한 55명 중 약 35%인 19명이 인견 기사에 중복으로 등장한다. 인견 기사에 등장하는 수령 613명은 당

연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평안	함길	미상*	계
세종 7년	3	5	8	3	1	2	3	0	0	25
세종 8년	10	11	19	14	2	5	9	3	0	73
세종 9년	10	22	16	21	8	4	10	7	0	98
세종 10년	0	0	3	3	0	1	1	0	0	8
세종 11년	0	0	2	3	1	0	0	0	0	6
세종 12년	1	3	2	1	0	0	0	1	0	8
세종 13년	3	4	3	7	3	1	6	1	0	28
세종 14년	1	3	3	2	0	0	5	2	0	16
세종 15년	3	8	8	11	1	3	5	3	0	42
세종 16년	11	10	12	11	3	1	8	3	1	60
세종 17년	7	10	6	8	7	6	7	1	0	52
세종 18년	2	5	5	3	1	5	3	0	0	24
세종 19년	0	2	1	1	0	1	0	0	0	5
세종 20년	0	0	2	2	0	1	5	1	0	11
세종 21년	5	3	13	10	3	1	5	0	0	40
세종 22년	8	2	4	7	1	1	2	2	0	27
세종 23년	8	13	13	6	3	6	1	2	0	52
세종 24년	0	10	7	9	0	2	6	1	0	35
세종 25년	0	2	1	0	0	0	0	0	0	3
계	72	113	128	122	34	40	76	27	1	613

*미상은 세종 16년(1434)에 金達成이 파견된 平章 지역으로 소속 도를 알 수 없다.

<표 4> 세종 7년~세종 19년 수령 인건 기사에 등장한 수령의 연도 및 지역별 분포

인건한 수령 숫자가 가장 많은 시기는 세종 9년(1427)으로 98명의 수령을 인건했으며 가장 적을 때는 세종 25년(1443)으로 3명의 수령만 인건했다. 세종 9년에 유독 적은 수의 수령만 인건한 것은 세종의 건강 악화로 인건 대상이 다시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세종 7년(1425) 수령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던 인건은 세종 25년(1443)에 세종의 건강 악화로 인해 다시 축소되었다. 세종 24년(1442) 첨사원(詹事院)이 설치되고 세자인 문종이 궁중 서무를 처리하게 되었다.⁹¹⁾ 세종의 눈병이 심해지면서 세자였던 문종에게 서무를 처결하게 한 것이었는데,⁹²⁾ 이듬해인 세종 25년(1443), 외관직으로 나가는 인원과 사신으로 나가는 인원 중 2품 이상만 인건을 허락하면서 수령 인건 대상은 다시 3품 이하의 수령으로 축소됐다.⁹³⁾ 세종 7년(1425), 여러 수령제도 개편과 함께 확대되었던 국왕의 수령 인건이 세종 25년(1443), 세종의 건강 악화와 함께 기존 규정대로 축소된 것이다.

한편 19년 동안 활발하게 진행된 수령 인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령의 인건 기사에는 세종의 여러 지시·당부사항이 등장한다. 인건에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인건 확대 기간 내내

시 부임한 수령의 대략 1/3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91) 『세종실록』 권97, 24년 7월 28일 병술.

92) 『세종실록』 권96, 24년 5월 3일 임신.

93) 『세종실록』 권99, 25년 1월 7일 계해.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가 하면 특정 시점에만 강조되거나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언급되는 사안도 있었다. 인견의 주제는 발화자인 세종의 유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자주 등장하는 유시의 내용은 ①부임 군현 현안, ②인접 지역과의 관계나 거의 전 시기에 걸쳐 문제가 되었던 ③구휼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인견 자리에서는 부임 군현 현안만을 특정해 언급했다. 세종 24년(1442)에 세종은 강원도 이천으로 온행을 떠났다. 당시 세종의 이천 온행은 병을 고치기 위한 온행이면서 춘등강무를 겸하는 자리로 세종비 소헌왕후와 왕세자도 함께하는 대규모 행차였다.⁹⁴⁾ 이천으로의 온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천에 새로 옥실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다.⁹⁵⁾ 온행에 필요한 물자 책임자로 병조판서 정연이 따로 임명되었지만,⁹⁶⁾ 별도로 세종 23년(1441) 7월에 이천현감이 된 홍보에게 온행 준비 과정에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쓸 것을 당부했다.⁹⁷⁾ 그뿐만 아니라 황주목사 권호를 인견한 자리에서 다음 해 이천으로 거동하는데 그 영향으로 황해도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비용을 많이 부담하게 된다면 역을 균등하게 해 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⁹⁸⁾ 온행과 관련된 이천 및 황주의 수령에게 전한 당부처럼 인견을 통해 특정 지역과 관련된 개별 사안을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북쪽의 변경이나 남쪽의 해읍에 파견되는 수령에게는 외적에 대한 방비를 당부하는 식이었다.⁹⁹⁾

수령이 파견되는 군현의 인접 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¹⁰⁰⁾ 수령 인견 확대 초반부터 끝날 때까지 세종이 강조하는 내용으로 ‘요역을 가볍게 하고 열게 하고 세금을 적게 할 것[輕徭薄賦]’이 있다.¹⁰¹⁾ 세종은 항상 수령에게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것을 강조했다. 한 예로 경상도와 함길도는 비교적 농사가 잘된 해임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결실을 알 수 없으니 수령은 홀민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요박부’와 ‘홀민’은 농사의 성과와 관계없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된 것이다.

앞의 세 경우가 수령에 대한 유시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라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언급되거나 특정 시점부터 언급되기 시작하는 사안도 있었다. ①유이민에 대한 대응, ②형벌을 삼가는 것(慎刑罰), ③환자미 수급, ④공법에 대한 문제가 그것이다.

세종 11년(1429)부터 세종 13년(1431) 사이에는 유이민에 대한 당부가 인견 자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세종 12년(1430)과 13년(1431)에 전라도는 비교적 농사가 잘되었지만, 그 외에 전국의 다른 도는 흉년이 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도의 굶주린 사람이 전라도로 넘어오는 사태가 발생했다.¹⁰²⁾ 자연스럽게 작황이 비교적 괜찮은 지역에 부임하는 수령에게

94) 『세종실록』 권95, 24년 3월 3일 갑자.

95) 『세종실록』 권92, 23년 4월 7일; 권92, 23년 5월 15일 경술.

96) 『세종실록』 권94, 23년 11월 17일 경술.

97) 『세종실록』 권93, 23년 7월 22일 병진.

98) 『세종실록』 권93, 23년 9월 11일 병진.

99) 『세종실록』 권52, 13년 5월 11일 갑술. “知蔚山郡事李山斗辭 上引見于思政殿曰 蔚山在海門 防禦最重 且職兼民事 勸課農桑 尤所當急 勿以一時喜怒 謬加笞杖”

100) 『세종실록』 권50, 12년 12월 2일 무진. “羅州牧使趙環辭 引見曰 羅州境連濟州 人多逃移 汝往撫綏”

101) 『세종실록』 권37, 9년 7월 18일 갑진. “知甲山郡事金希鏡知麟山郡事安德希玄風縣監蔡倫等辭 上引見曰 天心譴怒 大旱若茲 予恐懼修省 罔知所措 爾等體予至懷 賑恤飢民 今聞慶尙咸吉道禾穀稍盛 然將來結實 未可知也 平安道 則農事甚爲不實 尤不可不盡心 大抵守令之職 恤民爲最”

102)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2일 정묘. “珍原縣監李大從辭 引見于思政殿曰 全羅道近年稍稔 然他道流民皆就食 穀甚貴 與他道無異 往勤撫字 毋令飢餓”

는 유이민에 신경 쓸 것을 당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12년(1430) 윤12월부터 세종 25년(1443)까지는 남형을 경계시키는데 인건의 내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12년(1430) 11월부터 관충주목사 윤하가 남형을 이유로 직첩을 회수당하는 등 남형으로 관리들이 처벌받은 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다.¹⁰³⁾ 그 직후인 12월 창원부사 양활과 지영천군사 노진을 인견한 자리에서 “근일에 수령이 법을 어기고 형벌을 과하게 하는 자가 자못 많이 있다(近日守令 非法過刑者 頗多有之)”며 “이러한 무리를 본받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옥사를 처결할 것(汝等勿効此輩 哀矜折獄)”을 당부했다.¹⁰⁴⁾ 이 시기는 『삼강행실도』의 편찬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윤리서를 통한 교화를 강조하는 흐름도 인건을 주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⁰⁵⁾ 이전까지는 인견 자리에서 거의 거론되지 않던 남형 문제는 세종 12년(1430)부터 세종이 2품 이하 수령에 대한 인견을 그만두는 세종 25년(1443)까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세종 7~9년(1425~1427)과 세종 19~20년(1437~1438) 사이에는 의창과 환곡에 관한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¹⁰⁶⁾ 의창이나 환곡 문제는 백성 진휼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유독 이 시기에 강조되고 있다. 두 기간의 직전인 세종 5년(1423)과 세종 18년(1436)은 공통적으로 세종대를 통틀어 가장 큰 흉년이 있던 해였다.¹⁰⁷⁾ 흉년으로 인해 진휼미를 많이 나눠준 후 그것을 거두는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환자를 나눠주는 것은 감사의 재량하에 있었지만,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은 수령의 몫이었다. 진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수령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해당 시점에서 수령의 업무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환자와 관련된 것이었다.

세종 24년(1442)부터는 인견 자리에서 공법에 대한 언급이 많아진다.¹⁰⁸⁾ 당시는 전세 개정이 진행되어 세종 22년(1440)에는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23년(1441)에는 충청도에서 공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작황을 무시한 세제 운영에 대한 반발이 컸고 공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¹⁰⁹⁾ 인견 상황에서도 이런 정황이 반영된 것이다. 세종은 ‘화곡을 답험하는 것에는 폐단이 많아서 공법을 쓰는 것[踏驗禾穀 其弊多端 故用貢法]’이라는 공법의 뜻을 강조하기도 한다.¹¹⁰⁾ 공법 시행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던 세종 24년(1442)에는

103) 『세종실록』 권50, 12년 11월 20일 정사; 권50, 12년 윤12월 10일 병오.

104) 『세종실록』 권50, 12년 윤12월 25일 신유. “昌原府使梁活知榮川郡事盧珍忠州判官楊美辭 引見曰 近日守令 非法過刑者 頗多有之 罪如簡孚 則宜加拷訊 若因忿怒枉法濫刑 則甚爲不可 汝等勿効此輩 哀矜折獄”

105) 세종이 설순에게 『삼강행실도』의 편찬을 명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지만 적어도 세종이 설순에게 춘추관에서 충신의 이름을 뽑아 보냈는지 묻고, 설순과 『충신도』 찬수에 관해 논의하는 세종 12~13년에는 『삼강행실도』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이었을 것이다(『세종실록』 권50, 12년 11월 23일 경신; 『세종실록』 권54, 13년 11월 4일 을축).

106) 『세종실록』 권86, 21년 7월 8일 갑인. “井邑縣監吳璉辭 上引見曰 還上斂散之法 不可緩也 然督徵之 則民甚病焉 勸農亦守令之所當先務也 若刻期督之 則反爲廢農 汝往厥邑 務盡其職 以副予意”

107) 15세기 동안 큰 흉년이 든 해로 태조 7년(1398), 태종 5년(1405), 태종 18년(1418), 세종 4년(1422), 세종 5년(1423), 세종 18년(1436), 세종 26년(1444), 성종 4년(1473), 성종 12년(1481)를 꼽을 수 있다. 특히 15세기 중에서도 1430~1440년대에 자연재해가 가장 심했다(오종록, 1991, 「15세기 자연재해의 특성과 대책」, 『역사와 현실』5, 32~33쪽).

108) 『세종실록』 권98, 24년 12월 17일 계묘. “知永川郡事權自弘辭 引見曰 損實踏驗 稍有民弊 故乃行貢法 但公家所入 比前差多 慮民之起怨 爾其知之”

109) 강제훈, 2002,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민족문화연구원, 232~243쪽.

110) 『세종실록』 권97, 24년 7월 27일 을유.

당시 영동, 연풍으로 파견되는 수령들에게 공법의 편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¹¹¹⁾

이상과 같이 확대된 수령 인건을 통해서 세종은 시기별로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를 신임 수령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 인건 자리에서 오간 내용을 통해 소기의 목적처럼 수령으로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지방 현안을 해결하거나 환자곡의 징수·공법의 편부 조사를 지시하는 등 수령 인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종의 인건 확대 시행은 수령으로 파견되는 인원 점검의 강화와 지방 통치 현안의 논의 확대로 이어졌다.

4. 세종대 이후 수령 인건의 상례화

1) 문종~성종대 수령 인건 양상

수령을 인건한 것은 세종 사후 명에 부고를 알리고 시호를 청할 때 세종의 업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당시 중요하게 여겨지던 일이었고 세종대 19년간 이어진 수령 인건은 후대 왕에게 수령을 인건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게 했다.¹¹²⁾ 왕이 직접 만나봐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령의 위상이 향상된 것이었다. 세종 사후 수령 인건이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성종대까지 수령 인건은 선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지속해서 시행되었다. 다음 <표 5>는 실록에 나타난 세종~성종대 수령 인건 기사와 왕이 인건한 수령의 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종과 예종대에는 수령 인건에 관한 기록이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행장에도 인건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지 않는다. 치세가 짧거나 선왕의 국상 기간이 재위 기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수령 인건을 시행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¹¹³⁾

왕대	재위 기간(年)	인건 횟수	연평균 인건 횟수	인건 수령 수	연평균 인건 수령 수
문종	3	61	20.3	100	33.3
단종	4	1	0.3	1	0.3
세조	14	16	1.1	17	1.2
예종	2	0	0.0	0	0.0
성종	26	140	5.4	204	7.9

<표 5> 문종~성종대 수령 인건

문종은 문종 즉위년(1450) 7월부터 수령 인건을 시행했는데 졸곡제 이후 정사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서 인건 역시 확대했다.¹¹⁴⁾ 별도의 인건 재개를 지시한 기록은 없지만 같은 달인 즉위년 6월에 관직 이동에 관한 것을 문종 자신이 직접 처리하고 구례를 참고해 시행하게 했는데 이때부터 인건이 다시 시작되었을 것이다.¹¹⁵⁾ 특기할만한 점은 세종 25년

111) 『세종실록』 권98, 24년 12월 17일 계묘.

112) 『세종실록』 권127, 32년 2월 22일 정유.

113) 『단종실록』 권1, 즉위년 5월 29일 신유.

114) 『문종실록』 권13, 2년 9월 1일 경인.

115) 『문종실록』 권13, 즉위년 7월 8일 경술. “傳旨吏兵曹 自今於都目及轉動 予當親聽 其考舊例施

(1443)에 수령 인건 대상을 2품 이상 수령으로 축소했지만 문종은 자연스럽게 중6품 현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령을 인견하고 있다는 점이다.

E)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수령이 배사할 때 내가 모두 인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교체된 자를 인견하는 법은 없었다. 대신은 곧 내가 특별히 보는 것을 허락하니 돌아오는 수령도 모두 인견하는 것이 어떠한가? 집현전에 명해 고제를 상고한 후 그것을 들을 것이다.”라고 하였다.¹¹⁶⁾

이 기사를 통해 당시 문종이 수령을 지방에 파견하는 과정에서 모든 수령을 직접 만나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국왕이 신임 수령을 인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업무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종이 인견 자리에서 보이는 수령에 대한 인식 역시 세종과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수령이 임지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인견하겠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문종은 수령을 통해 지방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¹¹⁷⁾ 문종은 임지에서 돌아온 수령을 직접 불러보기보다는 서울로 복귀한 수령에게 봉서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지방의 상황을 파악했다.¹¹⁸⁾ 비록 서울로 돌아온 수령까지 인견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수령은 왕이 만나봐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었다.

세조는 즉위 다음 달부터 수령을 인견하는 기사들이 확인된다.¹¹⁹⁾ 『세조실록』에는 수령에 대한 인견 기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세조대에도 응당 국왕이 수령을 인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다. 세조 11년(1465) 4월에 평안도 도사로 새로 임명된 최연이 왕이 자신을 인견하고 임지로 보내는 것으로 착각해 출발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¹²⁰⁾ 도사는 수령에 해당하지는 않았지만 수령 인견이 확대되면서 함께 인견이 시작된 외관이었다. 세조가 외관을 인견하지 않았다면 최연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세조가 수령을 비롯한 외관을 인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조 2년(1456) 7월에는 승정원에 수령이 업무차 서울에 왔을 때 이들을 불러 인견하고자 했을 정도로 세조 역시 수령을 직접 만나보는 것을 중시했다.¹²¹⁾

성종 초 정희왕후가 청정하던 시기에는 정희왕후가 수령을 인견한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정희왕후는 첫 인견에서 승정원을 통해 수령이 시행해야 할 사목을 정리하도록 했다.¹²²⁾ 정희왕후 자신이 인견하지 못할 때는 이 사목을 수령에게 전하도록 했다.¹²³⁾ 실제로 성종 원

行”

116) 『문종실록』 권7, 원년 4월 24일 임진. “傳敎承政院曰 守令拜辭 予皆引見 其遞還者 無引見之法 大臣則予特賜見 遞還守令 竝皆引見 何如 令集賢殿 考古制以聞”

117) 『문종실록』 권7, 원년 4월 24일 임진. 해당 기사를 통해 왕이 수령을 인견한 것 중 상당 수가 실록에 누락되어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앞선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문종이 인견한 수령은 46명이다. 문종의 재위 기간이 28개월이었다는 것과 당시 수령의 임기가 대략 3년 남짓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200명 정도의 수령이 새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118) 『단종실록』 권1, 즉위년 5월 21일 계축. “凡朝臣之除外任朝辭者 皆引見丁寧勉諭 愛民恤刑 務農訓兵之意以遣之”

119) 『세조실록』 권1, 원년 7월 14일 정해.

120) 『세조실록』 권35, 11년 4월 26일 임인.

121) 『세조실록』 권4, 2년 7월 10일 정축.

122) 『성종실록』 권2, 원년 1월 20일 기해.

년(1470) 2월에 구치명(具致明)이 성주목사로 임명되었는데 정희왕후는 본인이 재계 중이라 인견하지 못하게 되자 이전에 만들어둔 하교한 일을 바탕으로 유지하도록 승정원에 명했다.¹²⁴⁾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을 인견하지 못할 경우까지 상정하고 대비한 것이다.

성종의 수령 인견은 친정 이전인 정희왕후의 청정 당시부터 시작되었다. 성종대 수령 인견은 <표 5>에서 보이듯 세종대 다음으로 활발하게 시행되었다. 정희왕후와 마찬가지로 성종도 수령을 직접 인견하고 ‘치민사목(治民事目)’ 17조를 새로 부임하는 수령들에게 내리기도 했다.¹²⁵⁾ 성종은 인견 자리에서 수령칠사를 대답하지 못한 무과 출신 신창현감 김숙손의 제수를 취소하고 대신 다른 사람을 신창현감으로 임명하는 등 인견 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¹²⁶⁾ 성종대 인견은 특히 인견에서 오간 대화가 잘 남아있다. 세종대와 마찬가지로 인견 자리에서 관련 지역의 인사 문제나 공물 문제 등이 오가기도 했다.¹²⁷⁾ 『연산군일기』에도 성종은 수령이 배사하면 반드시 불러보았다고 되어있다.¹²⁸⁾ 다만 모든 수령을 인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성종 20년(1489)에는 수령의 임무가 중요하지만 일일이 다 인견하는 못하고 있다고 성종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다.¹²⁹⁾ 이런 상황 속에서 수령 인견에 관한 내용은 『경국대전』에 조문화로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세종 사후에도 후대 왕들에 의해 전체 수령을 대상으로 하는 인견이 지속되고 있었다.

2) 수령 인견에 인식과 의미

세종대 말, 세종의 건강 악화로 수령 인견의 범위가 다시 축소되었지만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인견이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15세기에도 이미 수령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왕이 만나봐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F-1) 무릇 조신이 외직에 제수되어 조사하는 자는 모두 인견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에 힘쓰고 병사를 훈련시키는 뜻을 간곡하게 전하고 보내셨습니다.¹³⁰⁾

F-2) 감사와 수령을 거듭 경계하게 하고 혹 사신을 파견해 백성의 폐해를 제거하도록 했으며 외임에 임명되어 배사하는 자를 반드시 인견하고 꼭직히 백성을 사랑하는 의미를 나눠 걱정할 것을 유지하고 파견했습니다.¹³¹⁾

123) 『성종실록』 권2, 원년 1월 25일 갑진.

124) 『성종실록』 권3, 원년 2월 18일 정묘; 권3, 원년 2월 20일 기사; 권153, 14년 4월 1일 계해.

125) 『성종실록』 권4, 원년 3월 5일 갑진. “礪山郡守金元信 珍原縣監金繼智辭 御崇文堂引見 命諭以治民事目十七條”

126) 『성종실록』 권15, 3년 2월 25일 임진.

127) 『성종실록』 권27, 4년 2월 22일 계미; 권55, 6년 5월 11일 기미.

128) 『연산군일기』 권45, 8년 8월 13일 임자.

129) 『성종실록』 권225, 20년 2월 23일 신해.

130) 『단종실록』 권1, 즉위년 5월 21일 계축. “凡朝臣之除外任朝辭者 皆引見丁寧勉諭 愛民恤刑 務農訓兵之意以遣之”

131) 『세조실록』 권47, 14년 9월 16일 임신. “每申徹監司守令 或遣使廉訪 盡祛民瘼 赴外任拜辭者 亦必引見 曲諭分憂字民之意乃遣”

수령 인건에 대한 기록은 15세기 왕과 왕비의 행장 등에도 꾸준히 언급될 만큼 대표적인 선정의 한 방식이 되었다. F-1)은 문종 사망 소식을 명에 전할 때 같이 보낸 행장 내용이다. 조선에는 문종의 업적으로 세종의 고사를 본받아 ‘외임을 제수받고 조사한 자를 모두 인견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F-2)는 세조의 부고를 명에 알릴 때 보낸 행장의 내용 중 일부이다. 세조는 실록에 남아있는 기록으로 보아 세종이나 문종, 성종처럼 인건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왕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세조의 행장에 외관을 인견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 수령 인건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정희왕후나 성종의 행장에는 당연히 수령이 배사할 때 반드시 인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¹³²⁾ 세종대 19년간의 외관 인건이 ‘고사(故事)’면서 하나의 선정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연산군대에는 수령 인건 기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중종반정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져 수령 인건 기록이 자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비롯한 외관은 이미 왕이 인견해야 하는 대상이고 인건은 과거부터 행해져 온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G) 석강에 임하니 참찬관 한세환이 말하길 “㉔신이 요즘 성종조의 『일기』를 보니 한갓 수령만이 아니라 비록 만호와 첨사일지라도 모두 인견하였습니다. 하루는 성종께서 수령을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칠사 외에도 항상 할 일이 많은데 네가 그것을 모두 아는가? 너는 그것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수령은 백성을 책임지기 위해 보내는 것인데 너는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것인가?’라고 하시니 대답하기를 ‘칠사로서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하니 또 분부하기를 ‘너희들이 한갓 말만 하고 실이 없지 않은가?’라고 하셨습니다. 관찰사와 절도사를 보낼 때도 또한 모두 인견했습니다. 신정이 평안도 관찰사가 되어 배사하는 날에 교유하시길 ‘경이 탐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가서는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신정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감사의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인견할 때의 가르침에 깊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변장·수령 등을 인견해 교유하시고 보내시옵소서. (중략) 상께서 말씀하시길 “㉕인견하라는 말은 지극히 당연하다. 근래에 내가 인견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나의 과오다. 이후로는 마땅히 인건을 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¹³³⁾

G)는 중종 4년(1509)에 있었던 석강 자리에서 참찬관 한세환이 수령 등 외관을 인견할 것을 청하는 기사이다. ㉔를 보면 한세환은 성종대의 일기를 통해 인견했던 사실을 환기시키고 있다. 당시 수령 인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㉕에서 볼 수 있듯이 중종은 인견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 중종도 수령을 인견하는 기록이 보인다.¹³⁴⁾ 당시 사관은 수령 인건을 형식적이라고 평가했다. 중종 11년(1516), 고양군수 조문

132) 『성종실록』 권153, 14년 4월 1일 계해; 『성종실록』 권297, 부록 행장.

133) 『중종실록』 권9, 4년 10월 2일 경인. “御夕講 參贊官韓世桓曰 臣近見成宗朝日記 非徒守令 雖萬戶僉使 皆引見 一日 成宗引見守令而教曰 七事之外 所爲尙多 爾盡知之乎 爾其勉哉 又曰 守令專爲民而遣 爾何以治民 答曰 以七事治之 又教之曰 爾等無奈徒有言而無實乎 遣觀察使節度使時 亦皆引見 申澍爲平安道觀察使 拜辭之日 教之曰 聞卿有貪名 其往愼之 以澍之貪 能善於監司之任者 無他 以其引見之教 有以感之深也 今之邊將守令等 請引見諭教而遣 (중략) 上曰 引見之言至當 近來不引見 是予之過 後當行之”

134) 『중종실록』 권10, 4년 11월 7일 을축.

수에 대한 인견 기사의 사론은 인견이 형식화되면서 수령에 대한 질문이 칠사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³⁵⁾ 하지만 형식적이었다는 것은 그만큼 100년 가까이 수령 인견이 시행되면서 이미 수령 인견이 상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신하들에게 인견은 신하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 태종 14년(1414) 4월에 태종은 좌정승 하륜, 완산부원군 이천우 등을 인견했다. 하륜은 노비의 신분과 소유 문제를 판정하는 방식에 대해 다른 재상들과 의견이 달랐는데 인견 자리에서 태종에게 직접 자신의 의견을 아뢰고 태종의 동의를 받아냈다. 이날 인견 직후 의정부는 하륜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사항을 아뢰고 태종의 윤험을 받았다.¹³⁶⁾ 이렇게 인견자리를 통해 신하는 의견이 모이지 않아 수개월을 끌고 있던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였다.

조선시대 모든 관직자의 최종 인사권자는 국왕이었다. 하지만 모든 관직자가 국왕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관리들에게 국왕을 직접 만나본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황윤석은 관직생활 중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장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¹³⁷⁾ 아래 사료는 『노상추일기』의 일부로 삭주부사에 제수된 노상추가 인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것이다.

“네가 수령의 정사를 하는 것이 어떠해야 하겠는가?”하시니, 황공하고 감격스러워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할지를 몰랐다. 이어서 우러러 대답하기를, “임금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삼겠습니다.”하니, “네가 가서 잘 하여라.”라고 하교하고 이어서 물러가라고 명하셨다. 곡배(曲拜)를 드리고 전에서 내려오는데 감격의 눈물이 마구 흘러 함문 밖으로 재빨리 달려 나오는데 감격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이와 같은 은혜가 이처럼 미천한 신하에게까지 미쳤으니, 어찌 평소에 꿈엔들 생각한 적이 있겠는가?¹³⁸⁾

사료 H)는 노상추의 일기에는 삭주부사에 제수된 노상추가 정조를 직접 만나 수령의 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격려받아 감격한 소회가 잘 드러나 있다. 삭주부사는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낮은 관직이 아니었음에도 신하된 입장에서는 국왕을 대면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수령 인견의 확대와 상례화는 그만큼 수령제 운영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수령 인견은 고려 공민왕 때부터 대간을 중심으로 요청되어 온 것이었다. 공민왕이나 태종 역시 수령 인견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수령을 왕이 직접 만나보는 것은 쉬운 일

135) 『중종실록』 권24, 11년 2월 19일 경오.

136) 『태종실록』 권27, 14년 4월 16일 기미.

137) 김혁, 2002, 앞의 논문, 157~168쪽.

138) 정해은 등 번역, 2018, 『국역 노상추일기』5, 403쪽

이 아니었을 것이다. 수령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았고 필요에 따라 도태시켜야 하는 자리라는 인식까지도 존재했다. 하지만 세종 7년(1425)부터 19년 동안 모든 수령을 대상으로 하는 인건이 시행되면서 수령은 왕이 반드시 대면하는 관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세종 사후 즉위한 왕들 역시 실제 인건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령을 인건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고 신임 수령을 인건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 세종대 수령 인건 확대를 통해 수령은 왕이 직접 만나봐야하는 존재가 되었고 왕조사회에서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행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경국대전』에서 수령은 의정부·육조·한성부·승정원 등과 함께 결원이 생길 경우 바로 후임을 임명해야 하는 자리였으며 장리의 자손은 임명될 수 없는 중요한 자리로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조선 건국 당시부터 수령의 지위가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수령의 자질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고려 말 이래로 50년 이상 수령제 개혁이 이루어졌다. 외형적으로 수령직은 종6품 이상의 조관이 임명되는 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규정과는 달리 태종대까지도 수령은 서울에서 파견된 사신의 수발을 들어야 하는 위치였으며 기피 대상이었다.

세종 초반까지도 수령은 역량 미달인 자들이 파견되어 장죄를 지속적으로 일으키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세종 22년(1440)부터 경외관순환제를 실시하여 고관, 특히 당상관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령직을 거치도록 했다. 경외관순환제는 하급 관료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지만 고위직을 희망하는 관료군에게는 수령직을 강제하는 정책이었다. 경관의 수령 파견 정책은 세종 22년(1440)의 경외관순환제로 갑자기 실시된 것이 아니었다. 세종 5년(1423)에는 수령의 임기를 기존보다 두 배 늘려 경관과 외관의 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수령육기법을 실시했다. 세종 13년(1431)에는 수령직 회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면서 경관 파견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세종대 문과 출신 수령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대 수령 인건의 확대는 수령 파견 방식의 변화와, 부민고소금지법 실시라는 달라진 수령제 운영 환경에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수령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세종은 수령을 모두 직접 만나보고 임지로 파견했다. 인건 자리에서는 수령의 일반적인 업무부터 해당 지역의 현안이나 전국 단위의 정책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이를 통해 세종은 파견되는 수령의 됃됨이를 확인하고 개별 수령이 지역에 내려가서 해야 할 일을 직접 지시할 수 있었다.

왕조 국가에서 왕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었다. 세종 7년(1425)부터 확대 시행된 수령 인건은 이런 수령직에 대한 인식과 위상이 향상의 계기가 마련된 사건이었다. 수령은 신하가 왕을 직접 대면하고 각 지역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세종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령 인건은 15세기 내내 왕이 지방관을 관리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인식되었다. 문종, 세조, 성종, 중종 등 후세 왕들은 수령을 왕이 직접 대면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세종대 만들어진 인건을 포함하는 수령 부임 절차는 16, 17세기를 넘어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상례화되었다.

심보람, 「조선 세종대 수령 파견 양상의 변화와 인견 확대」에 관한 토론문

송웅섭(충신대)

본고는 조선전기 수령제 운영 양상을 수령의 파견과 국왕의 인견을 중심으로 검토한 뒤 그것이 갖는 의미를 모색한 연구라 생각됩니다. 대체로 세종 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세종이 수령제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사실들을 천착하며, ‘수령육기법’ 및 ‘경외관순환제’의 시행을 통해 자질을 갖춘 인사가 수령에 선발되어 부임지에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이 수령을 직접 만나보는 수령 인견제 시행을 주목해 수령 인견 횟수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했으며, 세종 이후의 국왕들이 수령 인견을 왕의 기본적인 업무로 수용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고를 통해 조선 전기 수령제 운영에 대한 이해가 보다 상세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왕의 수령 인견에 대한 검토는 본고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인 부분이자 본고가 갖는 독창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고가 갖는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토론을 맡은 입장에서 한 두 가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종의 수령제 운영 개선 노력에 대한 입체적 설명

세종이 왜 그토록 수령제 운영의 개선을 위해 노력했는지 좀 더 입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려 후기 이래 지방관 파견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의 수령제 개선에 대한 관심 또한 이런 추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방관 파견의 확대가 일종의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셈인데, 그렇다면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해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비록 세종이 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또 일정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더라도, 지방관 확대의 당대적 맥락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보니 다소 소제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 초기의 향리 정책 및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관련한 연구들의 문제의식을 본고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해 조선 초기 국가가 향촌사회를 어떻게 운영하고자 했고, 또 정책 달성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부분이 세종의 수령제 운영 개선과 연계되어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논문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발표자가 갖고 있는 이와 관련된 입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2. 국왕의 수령 인견의 효용성 문제

국왕의 수령 인견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문제로, 세종이 수령 인견을 상례화 시킨 것이 수령제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개선 효과를 가져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물론 본고에서 국왕이 수령을 인견하는 절차와 횡수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왕의 수령 인견이 자질을 갖춘 지방관을 선발하고 책임감 있는 지방 통치를 가능하게 한 것일까 하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왕의 수령 인견 시행이 갖는 의미와는 별도로 수령제 운영의 효용성 차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3. 세종 및 이후 국왕에 있어 수령 인견이 갖는 의미

세종은 물론 그 이후의 국왕들에게 있어서 수령 인견이 갖는 의미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정과 덕정을 시행하는 부지런한 군주와 같은, 일종의 여정도치(勵精圖治)하는 군주상에 부합하고자 했던 측면도 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문종과 성종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는데요, 세종 이후 국왕들의 수령 인견을 다룰 때 이와 관련한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 각각의 시대성을 서술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세기 후반, 평안도 시장 통합과 견사의 방적·유통

김태홍(연세대)

1. 머리말
2. 청천강 하류 개발과 도내 시장의 통합
3. 植桑-양잠 분리와 견사 방적·유통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기 ‘西北兩界’로 표현되었던 평안도와 함경도는 변경으로서 국토 체제의 하부단위를 구성하였다. 특히 평안도는 곡창지대인 삼남과 비교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았다. 또한 지배층의 거주와 성장이 미약하여 냉대와 차별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였다.¹⁾ 그러나 지리적으로 대륙과 연결되는 정치경제의 요충지였고, 다른 지역보다도 무역에 유리하였다. 그 이점을 기반으로 평안도에서는 독자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거나, 1811년 농민전쟁이 일어나는 등의 지역성을 분명하게 나타난 지역이었다.

다만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집권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평안도 역시 한성 중심의 재정 및 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아갔다. 우선 양난 이후, 확대한 평안도 재정은 중앙 재정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나아갔다.²⁾ 아울러 평안도의 유통 역시 도내를 통합하던 수준을 넘어서서 전국 유통과의 연계가 확대되었다. 평안도는 의주와 한성을 연결하는 대로가 일찍이 발전하였고, 서해안, 청천강, 대동강을 활용하는 수로 역시 발달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평안도의 장시는 도내를 통합하는 수준을 높여 나아갔다.³⁾ 18세기 말에는 서해안의 험탄인 장산곶 해로가 商船에 의해 극복되면서 평안도 시장은 한성 중심의 전국적 시장과 원활하게 연계되었다.⁴⁾

중앙 재원이 확대하고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되면서 한성 중심의 전국 물류는 성장하였다.⁵⁾ 이러한 배경에서 평안도의 상품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였다. 대표적으로 평안도에서 방직한 견사와 방직한 명주는 19세기 전반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품 중 하나가 되었다. 19세

1)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2) 권내현, 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3) 고동환, 2000,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한국사』, 한길사 ; 고동환, 2008, 「지방에서의 상업과 시장」 『지방사연구집문』, 민속원 288쪽.

4)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80쪽.

5) 대동법을 계기로 하였던 한성 중심의 시장 발달에 관한 연구 성과 정리는 최주희의 연구가 참조된다(최주희, 2023, 「2000년대 이후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의 흐름과 과제」 『한국사연구』 200, 123쪽~125쪽).

기 전반 이후 평안도 군현에서는 명주 방직을 전업화 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군현 명칭을 내세운 명주 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⁶⁾ 아울러 평안도에서는 견사 역시 상품화하여 직물 방직의 원료나, 약기의 현 원료로 활용도가 높아졌다.⁷⁾

그러나 평안도의 견사·명주 상품이 유명해진 계기는 수공업 발전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평안도는 이미 조선 전기부터 뽕나무 재배와 양잠이 이루어졌다. 15세기 전반부터 뽕나무 재배가 가능하였던 평안도에서는 조정의 양잠 보급을 계기로 양잠업이 활성화하였다.⁸⁾ 따라서 조정에서는 평안도에서 삶은 고치[熟繭], 繭絲, 眞絲를 공물로 수취하였다.⁹⁾ 16세기에는 안주와 중화에서 양잠업을 확대하였다.¹⁰⁾ 그러함에도 유독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사이에 평안도의 견사·명주 상품이 특산물로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배경은 길쌈 노동¹¹⁾ 및 물레를 활용한 방적 기술의 발전에¹²⁾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8세기 후반 평안도의 시장 통합과 방적 기술을 결합하여 검토함으로써 견사 상품화의 배경을 추적하고자 한다. 이를 전개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18세기 후반 평안도 장시의 통합적 발전 양상이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정에서는 안주와 청천강 하류를 중심으로 평안도의 지역 경제 성장과 중심부 확대를 모색하였다.¹³⁾ 이러한 노력은 18세기 중반 이전까지 분산되었던 평안도의 유통권 및 생활권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통합적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는지, 장시의 입지와 연계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⁴⁾

두 번째는 평안도 견사 방적 기술의 상대적인 위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①견사 방적은 면사 방적과 다른 공정을 거쳤다. 면사의

6) 홍희유, 2012, 『조선수공업사』, 사회과학출판사, 208쪽~213쪽.

7) 김미성, 2017, 『조선후기 면주전과 명주 생산·유통구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미성, 2018, 「조선후기 시전인과 공인의 병존 관계 - 지전·지계, 진사전·진사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73.

8) 남미혜, 2009,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95~100쪽.

9) 『세조실록』 권 39, 세조 12년 5월 24일 갑오.

10) 남미혜, 2003,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경영에 대한 일고찰 - 『목재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26.

11) 남미혜, 2008, 「18세기 잠상으로 치산한 전주이씨」 『여성과 역사』 9 ; 남미혜, 2016,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治産과 경제활동 - 길쌈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4 ; 남미혜, 2019, 「방적과정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의 길쌈노동」 『사학연구』 133.

12) 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67쪽.

13) 권내현, 2004, 앞의 책, 195쪽.

14) 장시의 분석 방법은 선행 연구 성과 덕으로 발전해 왔다. 우선 홍희유의 연구(홍희유, 1962, 「18~19세기 전반기 장시(場市)들에서의 상품 유통의 발전」 『력사과학』 5)에서 상품 화폐경제의 발전 맥락에서 장시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한상권의 연구(한상권,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 : 慶尙道地方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는 도내 중소장시가 대장시로 통합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현창의 연구(이현창, 1997,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場市網)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에서는 개시일이 연동하는 장시 사이의 연계, 즉 장시망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김종혁의 연구(김종혁, 2001, 「『東國文獻備考』(1770)에 나타난 漢江流域의 場市網과 交通網」 『경제사학』 30)에서는 도로망과 장시망을 연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고동환의 연구(고동환, 2006, 「조선후기 錦江水運과 浦口市場圈」 『역사와 담론』 43)에서는 원격지 수로와 포구 장시를 결합하는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안도 수로·육로에서의 장시 입지와 장시 사이의 연계를 확인하고, 18세기 후반 그 형태가 어떻게 형성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경우, 목화 재배와 면사 방적으로 생산되었다면, 견사의 경우는 뽕잎 재배[植桑], 양잠, 견사 방적의 단계를 거쳐야 했다. ②지리지에서 뽕잎 재배[桑]와 양잠[蠶] 지역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지리지 상에는 桑蠶과 蠶桑이 표현되기도 하였지만, 桑과 蠶을 구분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③수작업으로 만든 견사와 물레로 만든 견사는 품질이 달랐다. 더욱이 물레의 종류 역시 纜車와 紡車가 구분되어 방적 기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곡창지대인 삼남과 곡물 생산에 불리한 평안도의¹⁵⁾ 견사 방적이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는 조선후기의 방적 기술이 農家 여성의 부업 수준에 한정되었는지, 농업과 수공업[農工] 분리를 계기로 한 전업화를 이루었는지 논점을¹⁶⁾ 검토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상의 작업은 평안도 시장의 통합 수준과 방적 기술의 발달상을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의 직물 직조 수준을 밝히는 첫 단계이다. 19세기 전반 이후, 평안도의 시장 확대와 명주 방적의 전업화를 통한 명주의 전국 유통, 교직물과 염직물 생산 원료로서 평안도의 견사·명주의 조달 배경을 설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5) 인정식, 1948, 「朝鮮農業의 經營地帶」 『조선경제연보』(『인정식전집』 4권, 1992), 167~173쪽.

16) 직물업 전업화의 계기는 農工 분리이다. 예컨대 면직업의 발전은 ①면화 재배(농업)와 면포 직조(수공업) 간의 분리(農工 분리) ②방적기를 활용한 면포 제작을 배경으로 ③면포 직조의 전업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조선후기 면직업에서 農工 분리를 인정할 것인가가 논점이 된다. 이에 대해서는 가지무라 히데키의 연구(梶村秀樹, 1983,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와 하원호의 연구(하원호, 「광공업과 면방직업의 전개」 『신편 한국사』 44,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점이 확인된다.

우선 가지무라 히데키의 연구에서는 農工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①조선후기 土布 직조는 농민의 직접 근육노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전제하였다. ②장시를 통한 면화·면포 거래를 인정하였지만, 면포 직조는 대체로 자급자족을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따라서 ③면포 직조는 농가의 부업 수준으로 발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부농에 고용된 부녀자의 저임금 고용노동은 확대하였지만, 봉건 권력의 수탈로 면포 생산을 통한 자본 축적은 가능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하원호의 연구에서는 農工 분리, 면직업의 전업화, 분업을 통한 자본 축적 가능성을 주장하였다. ①농공결합 단계 → ②면자·직포 분리와 농가 부업을 넘어서는 대규모 면직호의 존재 → ③선대제적 생산과 직기를 활용한 고용노동 생산의 공존 → ④고용노동 생산의 확대와 고용주의 자본 축적을 주장하였다.

견직업에 관해서도 유사한 논점이 있다. 견직업의 전업화는 양잠과 견직물 직조 간의 분리(農工 분리)를 계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스가와 히데노리의 연구와 홍희유의 연구에서 논점이 있다.

우선 스가와 히데노리의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견직업의 농공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견직업이 농가 여성의 부업 수준에 머물러서 대규모 방직업자가 등장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19세기 일본의 견직업에 비교하여 조선의 견직업은 停滯的이라고 평가하였다. 조선 견직업이 정체한 원인으로 ①국가에 의한 물자수취체제가 갖는 집권적 제약성 ②중국과 조공 무역을 통한 견직물 수입과 이를 일본에 중개하는 무역으로 인한 조선 견직업의 제약성을 제시하였다(須川英徳, 1994, 『李朝商業政策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262~263쪽).

이와 달리 홍희유의 연구에서는 평안도 지역의 견직업 전업화 사례를 확인하였다(홍희유, 2012, 앞의 책, 208~213쪽). 이후 김미성의 연구에서는 평안도의 견사 방적 전업화를 확인하였다(김미성, 2017, 앞의 논문, 165쪽).

2. 청천강 하류 개발과 도내 시장의 통합

1) 안주와 청천강 하류 개발

18세기 중반 『택리지』에서는 평안도의 대동강과 청천강 하류가 상업 이익을 축적하는 물류 중심지임을 확인하였다. 평안도는 험난한 장산곶으로 인해서 남쪽의 배는 드물게 들어오고, 조운을 위해서 한성을 왕복하는 법규도 없기에, 드물게 일부 상선만 한성을 왕래한다고 하였다. 그러함에도 중국과 무역하여 이익을 얻는 부상대교가 한성, 개성에 이어서 안주와 평양에도 많아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¹⁷⁾ 안주와 평양은 대동강과 청천강 하류를 활용한 서해안 해운에 유리하였고, 의주대로 활용에도 유리하였다. 따라서 장산곶 이남과의 교류가 불리하였음에도, 평안도 내에서는 안주와 평양을 중심으로 부가 축적되고 있었다.

특히 청천강은 평안도의 생활권을 구분하는 주요한 기준선이었다. 『택리지』에서 평안도는 크게 네 개 생활권으로 구분되었다. 『택리지』에서는 우선 평안도를 동쪽과 서쪽으로 구분하였다. 동쪽은 산이 많고 평지가 드물며 인구가 적다고 하였다. 서쪽은 바닷물을 막아서 논을 만들었지만, 밭보다 적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안도는 언제나 쌀값이 삼남보다 비싸다고 하였다. 아울러 청천강을 기준으로 청남과 청북의 상황을 다르게 보았다. 우선 청남은 한성과 가까워서 풍속이 문화를 숭상하며, 평양과 안주는 큰 도회지로 시장에는 중국의 물건이 넘쳐나고, 대 중국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축적한 자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와 달리 청북은 풍속이 거칠고, 武를 숭상하며 정주만이 과거에 급제한 자가 많다고 정리하였다. 특히 청북은 지대가 높고, 기온이 낮으며 국경에 가까워서 화훼와 과일이 없고, 산출되는 물산도 종류와 양이 적어서 민들이 근근이 살고 있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택리지』의 정보는 평안도가 크게 4가지 생활권으로 구분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①청북의 서쪽 연안 ②청북의 동쪽 내륙 ③청남의 서쪽 연안 ④청남의 동쪽 내륙으로 구분된다. ①유통권은 의주대로 상의 박천, 가산, 정주, 꾀산, 선천, 철산, 용천, 의주와 동쪽 지선도로로 연결되는 구성, 태천으로 구성된다. ②유통권은 지선도로와 청천강 중상류로 이어지는 영변, 회천, 강계, 위원, 초산, 벽동, 창성, 운산, 삭주로 구성되었다. ③유통권은 의주대로와 서쪽 지선도로로 연결되는 중화, 평양, 순안, 영유, 숙천, 안주, 삼화, 용강, 강서, 함종, 증산으로 구성되었다. ④유통권은 동쪽 지선도로와 대동강, 비류강, 남강으로 연결되는 양덕, 삼등, 상원, 성천, 강동, 자산, 은산, 순천, 맹산, 영원, 덕천, 개천으로 구성될 수 있었다.

18세기 중반 이후, 조정에서는 청천강 치수 사업을 진행하여 청천강 하류의 유통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¹⁹⁾ 1748년 형조판서 홍상한은 당대 청천강 물길이 알아지며 병영으로서 안주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천강 상류에서 시작하는 물줄기가 곧바로 楓橋로 흘러들어서, 청천강 하류의 물길이 점차 막히고 있다고 하였다. 이미 17세기 후반에 청

17) 이중환 저, 안대회 역, 2019, 『택리지』, 휴머니스트, 180~181쪽.

18) 이중환 저, 안대회 역, 2019, 『택리지』, 휴머니스트, 53~54쪽.

19) 권내현, 2004, 앞의 책, 193~195쪽.

천강을 준설하고 풍교를 막았지만, 다시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형조판서 김상로는 직접 경험한 바를 언급하였다. 당대 청천강 물줄기가 알아지면서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더욱이 관원의 출장 행로[使星之行]에 모두 楓橋路가 활용되면서, 기존의 안주-가산을 연결하는 노정 70리의 驛路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영의정 김재로는 안주 북부의 청천강을 소착하여 물길을 살리는 작업이 필요함을 왕에게 재가받았다.²⁰⁾

<지도 1> 『동여도』(奎10340)에서 방죽과 연탄 위치 추정



이후 청천강 하류의 물길을 복구하는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속되었다. 하나는 楓橋로 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防築을 세우는 작업이었고, 다른 하나는 청천강 하류로 물이 흘러들게 하는 작업[疏鑿]이었다. 우선 楓橋는 안주의 북쪽 10리에 자리한 돌로 만든 무지개다리[虹橋]였다. 조수에 따라서 바닷물이 밀려들 시[潮]에는 배가 물로 건너고, 얇을 시[淺]에는 발로 밟아서 건널 수 있었다.²¹⁾ 청천강 상류의 물줄기가 楓川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楓橋에 방죽을 설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疏鑿을 통해서 燕灘을 확보하여 청천강 하류의 물길을 복원하였다.²²⁾ 소착을 통해서 연탄이 복원되면서 소착지점 북쪽은 인공섬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은 1749년 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성과를 보였다.²³⁾ 1754년 홍상한은 楓橋를 막는 것과 燕灘을 뚫는 작업을 병행하여, 작년 여름 큰 홍수에도 독이 무너지고 터지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20) 『승정원일기』 1033책, 영조 24년 8월 19일 신축 ‘象漢曰 安州兵營之城 恃清川江爲險 而江水上流 直通於楓橋 故清川江歲漸堙塞 …(중략)… 曾在先朝庚午年間 亦發近邑烟軍 濬清川 而防楓橋 若不及今疏鑿 則前頭 將不免斷流而失險 …(중략)… 在魯曰 楓橋之水 與清川江之水 爲並流之兩歧 而近年以來 其上流之水 直趨楓橋 故清川江漸至堙塞 而細淺也 …(중략)… 尙魯曰 臣亦於夏初 西行時 見之 則清川江水淺泥淖 不得行舟 故使星之行 皆從楓橋路往來 自安州抵嘉山 程道爲七十餘里 驛人馬亦可慮矣 在魯曰 役事則雖大 疏鑿則決不可已矣 上曰 依爲之’

21) 『안주군읍지』(奎10925) 「교량」 「楓橋」 ‘在北北十里 以石爲虹橋矣 今無而潮則舟渡 淺則跣之’

22) 『여지도서』 上, 「평안도」 「안주」 「산천」 ‘燕灘(在北北十三里清川江上流而清江水勢橫湊於楓橋故引當寧癸酉因 朝令疏鑿燕灘爲水舊道之地)’

23) 『승정원일기』 1035책, 영조 24년 10월 11일 임진 ‘在魯曰 平安兵使 李義豐狀啓以爲 清川江疏鑿 楓橋防築事 既有朝令 當於秋收後卽爲始役 …(중략)… 待開春卽爲舉行之意 稟請矣 依所請 使之待春舉行 何如 上曰 依爲之’

1754년 봄에도 방축을 세우고, 물길을 트는 작업을 이어가도록 제안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평안병사가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만약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무겁게 책임을 묻도록 결정하였다.²⁴⁾

그러나 평안병사의 책임하에서 방축을 세우는 작업은 지속되었지만, 물길을 트는 작업은 소홀해졌다. 1759년에는 물길 트는 작업이 소홀해지면서 청천강 하류의 수세가 다시 악화하였다.²⁵⁾ 청천강 물길이 막히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지속되었다. 하나는 관방으로서 안주의 위상이 약화된다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민간의 급수 문제였다.²⁶⁾ 1763년 영의정 홍봉한은 청천강 물길을 바로 잡는 일을 다시 건의하였다. 홍봉한은 청천강이 휘돌아 가는 안주에 병영을 설치하여 관방을 방비하였고, 안주의 민들은 항물에 의지하여서 생활을 유지하였음을 다시 강조하였다. 그런데 새롭게 트인 강줄기가 안주에서 점차 멀어지면서 민들이 점차 흩어지게 되었음을 우려하였다. 방축 설립과 물길 트는 작업을 방기한 이후, 청천강 하류의 新舊 강줄기의 높낮이가 현격히 달라졌고, 물길을 바로 잡기가 더욱 어려워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평안병사의 주도로 물력을 동원하여 청천강 물줄기를 다시 바로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재가받았다.²⁷⁾

따라서 조정에서는 1764년에는 청천강 물길을 복구하는 작업을 다시 논의하였다. 우선 평안병사 김성우가 청천강의 『新舊江圖形』을 상송하고, 강의 疏鑿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정에서는 청천강의 물길을 트이는 역사를 진행하자는 의견과 안주의 병영을 다른 곳에 옮기자는 의견이 나뉘었다. 우선 홍상한은 대도회가 된 안주의 민생을 위해서 역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홍상한은 안주의 남당에 수천 호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물길이 바뀌면서 ①5리 밖에서 물을 길러와야 한다는 점 ②어염의 이익을 잃는다는 점 ③선박이 통행이 어렵다는 점 ④민 역시 생업을 잃어서 흩어지면 병영을 옮길 만한 곳이 없을 것이라 강조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부호군 구선복은 준설이 해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병영을 옮기는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병조판서 이창수 역시 준설 효과가 없다면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하여 영조는 비변사에서 다시 논하여 시행할 것을 결정하였다.²⁸⁾

24) 『승정원일기』 1104책, 영조 30년 3월 1일 신해 ‘洪象漢曰 在前則欲防楓橋故不成矣 今番疎鑿燕灘 故水道復古 昨夏大水 亦免潰決 今春若加築加鑿 則永無後患矣 …(중략)… 分付兵使 使之舉行 而若或不善疎鑿 以致潰決 則從重論責之意 嚴飭 何如 上曰 依爲之’

25) 『승정원일기』 1167책, 영조 35년 4월 10일 경신 ‘故洪象漢爲道臣時 狀請疎鑿 而其時兵使金潤不欲深鑿 只防下流 聞今則水勢如前橫決云矣’

26) 『승정원일기』 1167책, 영조 35년 4월 18일 무진 ‘安州爲關西莫重關防 而各道如此 第一關防甚緊 第二民間汲水於五里許 亦可矜’

27) 『승정원일기』 1223책, 영조 39년 10월 25일 무신 ‘鳳漢曰 臣於安州清川江事 有可仰達者 此江環本州 爲關西大城池 兵營之移設於此州者 可見朝家壯關防之意也 …(중략)… 邑底許多居民之賴此江爲生者 生理乏絕 日漸離散 固已可悶 …(중략)… 歷路親審 則新舊江流 高低顯異 就下之勢 誠難挽回 …(중략)… 卽今兵使 本自勤鍊 必有料量 苟可以一分着手 則監·兵營各出物力 自朝家亦爲區劃顧助 及時經紀 斷不可已 爲先令帥臣 更爲詳審基地 量度事力 論理狀聞後稟處 何如 上曰 依爲之’

28) 『승정원일기』 1226책, 영조 40년 1월 5일 정사 ‘平安兵使金聖遇 以清川江疏鑿便否 更爲狀聞 …(중략)… 故新舊江圖形上送 請令廟堂稟旨指揮矣 …(중략)… 象漢曰 …(중략)… 安州之爲大都會 以其有南塘數千戶也 一自水道之橫潰 汲水於五里之外 漁鹽失利 舟楫不通 民生亦隨而失業 日漸流散 兵營之無可移處 猶屬餘事 及今不鑿 更待何時 …(중략)… 善復曰 …(중략)… 臣所目擊者 見今水道橫流處 地勢低下 土品柔軟 非人力所可防築 …(중략)… 臣意則移營似無妨矣 …(중략)… 昌壽曰 …

청천강 하류에 방축을 세우는 작업은 예전대로 평안병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였다. 1766년에 평안병사 이장오의 주도로 청천강 하류에 築筒을 쌓으면서, 청천강 물길이 회복되고 商賈船이 곧장 청천강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²⁹⁾ 평안병사 이장오의 축통을 쌓는 역사는 병사의 재량으로 조정의 도움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방축 설치 이후, 물길을 트는 작업[疏鑿]이 후속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추후 필요한 물력은 조정에서 마련되어야 함이 논의되었다.³⁰⁾ 따라서 비변사에서는 평양병영에서 소작에 필요한 물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안도 遼軍木 1백동과 비변사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평안병영에 유치하였던 돈 5,000냥을 사용하여 역사를 완료하도록 하였다.³¹⁾

다만 청천강 물길을 트는 작업[疏鑿]에는 조정이 깊게 관여하였다. 영조가 직접 청천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노력을 옛 공과[舊功]로 강조하면서 작업을 이어가도록 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1767년에는 5월에 평안병사로 제수된 원중회에게³²⁾ 청천강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영조는 평안병사가 축대를 보완하는 작업[補築]에 집중할 것인지, 물길을 트는 작업[疏鑿]에 집중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명하였다.³³⁾ 그러나 평안병사 원중회의 장문에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확인하지 못한 영조는, 평안병사인 원중회를 체차하고, 새로운 평안병사로 구선행을 제수하였다.³⁴⁾ 영조는 신임 평안병사 구선행에게 청천강 옛 물길을 복원하는 작업을 봄에 얼음이 풀리면 착실하게 거행할 것을 당부하였다.³⁵⁾

조정의 관여로 청천강 소작에는 분명한 성과가 나타났다. 1768년 6월 영조는 평안병사 구선행이 청천강 소작을 시작하였는지 질문하였고, 작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다.³⁶⁾ 청천강 소작 작업은 평안병사 구선행이 京軍職으로 추천되고³⁷⁾ 후임으로 의천이 천거되기³⁸⁾ 이전인 10월 말에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청천강의 물길을 트는 작업[疏鑿]은 전전 평안병사 이장오가 착수한 작업을 전 평안병사 구선행이 마무리하는 성과로 이해되었다. 12월에는 역사를 완수하는데 공을 세운 장사들에게 상을 주도록 하였다.³⁹⁾

(중략)… 今若鑿之 而終無實效 則反不如不始之之爲愈 …(중략)… 上曰 備局回啓 以姑觀前頭爲之可也’

29) 『승정원일기』 1257책, 영조 42년 7월 10일 무인 ‘鳳漢曰 安州清川江 卽一境蒙利者也 而圯溢已久矣 聞帥臣 方始疎濬之役云矣 …(중략)… 今聞不煩民力 其能竣役 凡諸商賈船 直下清川江云’

30) 『승정원일기』 1258책, 영조 42년 8월 5일 임인 ‘平安兵使李章吾清川江築筒事 …(중략)… 深得其要 水由舊道 民已蒙惠云 此兵使 以將臣出去 不煩朝家 …(중략)… 此後所入財力 從當自廟堂區劃’

31) 『승정원일기』 1258책, 영조 42년 8월 23일 경신 ‘以備邊司言啓曰 平安兵營清川 疎鑿物力區劃事 既已筵稟定奪矣 本道遼軍木一百同 備局句管本營錢五千兩 使之取用完役之意 分付 何如 傳曰 允’

32) 『비변사등록』 150책, 영조 43년 5월 9일.

33) 『승정원일기』 1275책, 영조 43년 12월 9일 기사 ‘上曰 …(중략)… 惜其前功 欲爲補築乎 依今者之議 只疏鑿灘口乎 其勿若是模糊 詳細狀聞事 令備局分付帥臣’

34) 『승정원일기』 1275책, 영조 43년 12월 25일 을유 ‘予則曰 其猶人事勝 而計量不足 …(중략)… 時任兵使元重會遞差, 行司直具善行除授’

35) 『비변사등록』 151책, 영조 44년 2월 17일 ‘傳曰 頃者特以卿授此任 意蓋深矣 …(중략)… 春氷纔解 卽爲始役 …(중략)… 清川江復舊道 專付于卿 着意舉行事’

36) 『승정원일기』 1281책, 영조 44년 6월 18일 갑술 ‘上曰 然則不窄矣 具善行能疎鑿清川江乎 樂仁曰 臣聞於臣父 方始役云矣’

37)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0월 23일.

38) 『비변사등록』 152책, 영조 44년 10월 28일.

39) 『승정원일기』 1287책, 영조 44년 12월 1일 을묘 ‘鳳漢曰 安州清川江疏鑿時 勤勞者甚多 本營宜有論賞之請 而前帥臣李章吾 前帥臣具善行 嫌於自銜 俱不狀聞 致使服勞之將士 舉懷抑鬱 令新兵使 往復前後兩帥臣 從實狀聞 以爲施賞慰悅之地 …(중략)… 上曰 依爲之’

나아가 1769년 조정에서는 청천강 물길 복원을 경영하기 위한 물력과 민들을 모집하는 계책으로 장시를 개설하였다. 우선 조정에서는 어사 민홍렬은 이전 평안병사 이장오가 축동을 쌓을 당시의 계책을 재확인하였다. 당시 이장오는 청천강 작업 이후, 축동을 쌓은 옆에 將臺와 창고를 지었다. 창고에는 미곡과 돈을 저축하여 나중에 방축을 쌓는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다. 아울러 倉廩 아래에 민가를 수 백호를 모집하여 살게 하였다. 특히 부근 읍인 안주, 박천, 개천의 각각 1개 장시와 영변의 2개 장시, 총 5개 장시를 창사 아래의 마을 앞으로 임시로 이전하여 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거로 방축 수축과 불시의 부역에 재물과 민을 동원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임시로 불러들였던 5개 장시가 과하여 본터로 돌아가면서 민호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다시 5곳의 장시를 이설하게 하여 민들을 불러 모아 수축이 필요한 때 많은 힘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을 건의하였다.⁴⁰⁾ 이에 영의정 홍봉한, 좌의정 김양택, 우의정 김상철 역시 해당 장소에 장시를 설치하여 민을 모으는 작업이 유용함을 인정하고, 시행하도록 제안하여 재가를 얻었다.⁴¹⁾

조정의 청천강 하류 물길 복원은 평안도 유통망의 결절 지점으로서 안주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이었다. 우선 청천강 하류의 수로를 유지함으로써 안주로 상선 유입이 지속되게 하였다. 이장오의 축통 설치 성과 역시 상선의 청천강 운항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대로의 물동량을 유지하기 위함이기도 하였다. 청천강 하류의 물길이 약화하면서 안주-적현-광통원-가산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 대신, 안주에서 물이 얇은 疏鑿 지점을 건너고 楓橋를 건너 광통원에 이르는 길[楓橋路]이 발달할 수 있었다. 이는 대로 거점으로서 안주의 입지를 약화할 수 있었다.⁴²⁾ 따라서 조정에서 직접 안주의 육운과 수운 편의를 복원함으로써 도회처로서의 위상을 높이고자 소착창을 설치하여 유지 비용을 마련하였다.⁴³⁾

2) 도내 시장의 형성과 통합

40) 『승정원일기』 1289책, 영조 45년 2월 7일 경신 ‘前兵使臣李章吾 疏鑿築筒後 仍作將臺於其傍 又設倉廩 儲留米錢 以爲日後修築時所需 募民數百戶 奠居倉底 移設付近邑 价川·博川·本州及寧邊二處 合五處場市於村前 以爲居民聊生之地 蓋爲其常時修築, 及不時赴役時 數百軍丁 不煩遠民 卽地募聚之計 其經遠之慮 誠不草草 …(중략)… 移設場市者 稍稍罷歸 居民難於聊生 幾盡離散 于今保居者 不過數十戶 此甚可惜 臣意則五處場市 更令依前移設 則人民自可還入 而前頭修補之時 必多得力 俯循大臣 處之 何如’

41) 『승정원일기』 1289책, 영조 45년 2월 7일 경신 ‘鳳漢曰 苟有利於清江 則些少民弊 有不足顧 況數十里之間 初無爲弊之可言者乎 此皆守令之過也 雖不可追咎 依繡衣所請 嚴飭施行好矣 陽澤曰 隣邑附近處 距新設場市 不過數十里 則不至大爲民弊 而亦有補於修築之役 依前設場 似便宜矣 尙喆曰 民情利害 雖在道里之遠近 當初移場 既爲募民聊生之計 而使清江補築之役 因此有賴 則此[些]少民弊 有不足恤 依前施行 似好矣 上曰 依爲之’

42) 『도로고』(古985-1)에서 의주대로는 안주(10리)-청천강(5리)-적현(15리)-광통원(10리)-대정강(10리)-가산(20리)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청천강에서 동북쪽으로 소착강변창(20리)-수현(15리)-영변(15리)의 지선도로가 존재하였다. 소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 지점의 물길이 열어지고 육운이 활성화하였다면, 지선도로의 일부 경로가 대로보다 발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대로의 기능이 약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43)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소착창을 설치하여 소착 작업을 유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소착창의 존재는 19세기 후반 『안주목지도』(奎10625)에서 확인되고, 소착창 인근은 州新島 지역으로 표현됨으로써 새롭게 섬이 된 지역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19세기 후반 제작된 『평안병영은전목포중기』(奎16922)에서도 疏鑿에 쓰일 자원과 창고의 운영이 확인되었다.

18세기 후반, 청천강 하류와 안주 개발은 평안도 생활권의 경계 지역 물류를 확대함으로써 거점 상권이 형성되는 배경이었다. 우선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의 장시 개설 현황에서 확인된다. 평안도 장시는 『도로고』,⁴⁴⁾ 『동국문헌비고』, 『동여기략』(奎6240),⁴⁵⁾ 『택리지』(K2-4190),⁴⁶⁾ 『증보문헌비고』 등에서 거의 유사하게 확인된다. 먼저 1770년 『동국문헌비고』와 1795년에 편찬된 『도로고』에서는 평안도 133개 장시와⁴⁷⁾ 개시일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4가지 유통권의 장시는 『대동여지도』, 『대동방여전도』, 『동역도』와 19세기 후반 조정에서 제작한 지방지도를 참조하면 대체적인 지리를 파악할 수 있다.⁴⁸⁾ ①유통권인 박천, 가산, 정주, 곡산, 선천, 철산, 용천, 의주, 태천, 구성 10개 군현의 30개 장시,⁴⁹⁾ ②유통권인 영변, 희

44) 『도로고』는 규장각 소장본인 『도로고』(奎7327)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인 『도로고』(古985-1)를 확인하였는데, 편찬 시기는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고』(규장각, 奎7327)		『도로고』(국립중앙도서관, 古985-1)	
지명	편찬 시기 추정	지명	편찬 시기 추정
稔川	1776년~1785년	始興	1795년~1796년*
長津柵堡		長津新邑	

* 『도로고』(국립중앙도서관, 古985-1)에서는 華城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성이 건설된 1796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45) 규장각 소장본인 『동여기략』(奎6240)은 기록된 군현을 토대로 편찬 시기를 추정하면 아래와 같다.

『동여기략』(奎6240)		
군현	군현 승강	편찬 시기 추정
報恩郡	1810년 현 → 군	1822년~1828년
德山縣	1828년 현 → 군	
安岳郡	1813년 현 → 군	
嘉山郡 郭山郡 安州牧	1822년 현 → 군	

46) 장서각 소장본인 『택리지』(K2-4190)는 2책으로 분권하여 1책에서는 人心篇, 道路篇을 편성하였고, 2책에서는 山水篇, 生利篇, 可居論, 地理篇을 편성하였다. 1책의 도로편에는 의주로, 경흥 서수로, 평해로, 부산로, 제주로, 강화로, 제주 3읍로, 각 영문으로의 대로와 장시를 정리하였다.

『택리지』(K2-4190) 1책 장시 기록		
지명	글귀	제작 시기 추정
始興	歲在甲寅七月晦日	1854년
利原		

47) 『동국문헌비고』와 『도로고』의 장시 개수는 134개이지만, 평양의 가홀장(5·10일)과 영유의 가홀장(5·10일)은 위치와 개시일로 보아 같은 장으로 판단하여 133개로 정리하였다.

48) 19세기 후반 지방지도는 『가산군지도』(奎10636), 『강계자성후창지도』(奎10558), 『강동현지도』(奎10598), 『개천군지도』(奎10602), 『곡산군지도』(奎10596), 『구성부지도』(奎10620), 『덕천군지도』(奎10585), 『강서현지도』(奎10633), 『영변부지도』(奎10624), 『자산부지도』(奎10575), 『맹산현지도』(奎10592), 『박천군지도』(奎10609), 『벽동군지도』(奎10563), 『삭주부지도』(奎10631), 『삼등현지도』(奎10567), 『삼화부지도』(奎10593), 『상원군지도』(奎10601), 『선천부지도』(奎10559), 『성천부지도』(奎10600), 『숙천부지도』(奎10634), 『순안현지도』(奎10566), 『안주목지도』(奎10625), 『양덕현지도』(奎10611), 『영변군지도』(奎10617), 『영유현지도』(奎10575), 『용강현지도』(奎10599), 『용천부지도』(奎10578), 『운산군지도』(奎10561), 『위원군지도』(奎10583), 『은산현지도』(奎10576), 『정주목지도』(奎10568), 『중화부지도』(奎10635), 『증산현지도』(奎10586), 『창성부지도』(奎10595), 『철산부소속서림진지도』(奎10570), 『철산부소속선사진지도』(奎10619), 『초산부지도』(奎10584), 『태천현지도』(奎10560), 『함중부지도』(奎10594), 『희천군지도』(奎10562) 등이 참조된다.

49) ①유통권의 30개 장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천, 강계, 위원, 초산, 벽동, 창성, 운산, 삭주 9개 군현의 29개 장시,⁵⁰⁾ ③유통권인 중화, 평

군현	1770년 『동국문헌비고』		1795년 『도로고』		1822년~1828년 『동여기략』		1854년 『택리지』		20세기 초 『증보문헌비고』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박천	진두장	5·10일	좌동							
	양비애장	1·6일								
가산	읍내장	4·9일								
	흑압장	2·7일								
정주	읍내장	1·6일								
	納淸場	3·8일	納淸亭場	3·8일	부재	納淸場	3·8일	좌동		
곽산	읍내장	2·7일	좌동							
	관장장	4·9일								
	신읍장	4·9일								
선천	읍내장	3·8일								
	남창장	5·10일								
철산	읍내장	1·6일	좌동		읍내장	3·8일	읍내장	1·6일	좌동	
	거련참장	4·9일	좌동							
	서림장	2·7일								
용천	선사장	3·8일	좌동				선사장	1·6일	선사장	3·8일
	읍내장	1·6일	좌동							
	남창장	5·10일								
	①북창장	2·7일								
참장장	3·8일	참장장	3·8일							
미곶장	4·9일	미곶장	4·9일							
의주	읍내장	1·6일	좌동							
	麟山場	4·9일								
	양하장	3·8일	좌동							
	산성장	2·7일								
	청성장	4·9일								
	②석교장	5·10일	좌동							
태천	읍내장	3·8일								
	원장장	2·7일								
구성	읍내장	4·9일								
	남창장	5·10일								

※용천 북장장, 의주 석교장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기 어렵다. 다만 ①용천 북장장은 양책참 인근으로 추정하였다. ②의주 석교장은 용천에서 의주를 잇는 대로 위에 용천 서북쪽의 大橋로 추정하였다.

50) ②유통권의 29개 장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현	1770년 『동국문헌비고』		1795년 『도로고』		1822년~1828년 『동여기략』		1854년 『택리지』		20세기 초 『증보문헌비고』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영변	읍내장	2·7일	좌동																		
	동래장	4·9일																			
	무산장	1·6일																			
	개평장	3·8일																			
회천	읍내장	2·7일	읍내장	부재	읍내장	1·6일	읍내장	2·7일	좌동												
	장동장	3·8일	좌동																		
	柔院場	4·9일									좌동	柔遠場	4·9일	柔院場	4·9일						
	강계	읍석장									2·7일	좌동									
위원	읍내장	3·8일	좌동																		
	栢波場	3·7일									栢波場							3·7일	부재	栢波場	3·7일
	울노항장	2·5일									좌동							울노항장	2·7일	울노항장	2·5일
초산	읍내장	1·6일	좌동																		
	동창장	5·10일																			
	동진장	4·9일																			
	강창장	2·7일																			
	고면장	3·8일									좌동	부재	고면장	3·8일							
벽동	읍내장	1·6일	좌동																		
	평장장	2·7일																			
	동장장	5·10일																			
	서장장	5·10일																			
	우장장	3·8일																			
창성	읍내장	4·9일	좌동																		
	청산장	5·10일																			
운산	읍내장	5·10일	좌동																		
	고연주장	4·9일																			
삭주	읍내장	3·8일	좌동																		
	관장장	5·10일																			
	幕嶺場	2·7일									좌동	幬嶺場	2·7일	幕嶺場	2·7일						
	胡場場	1·6일									胡口場	1·6일	胡場場	1·6일							

양, 순안, 영유, 숙천, 안주, 삼화, 용강, 강서, 함중, 증산 11개 군현의 34개 장시,⁵¹⁾ ④유통권인 양덕, 삼등, 상원, 성천, 강동, 자산, 은산, 순천, 맹산, 영원, 덕천, 개천 12개 군현의 40개 장시가 확인되었다.⁵²⁾

51) ③유통권의 35개 장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현	1770년 『동국문헌비고』		1795년 『도로고』		1822년~1828년 『동여기략』		1854년 『택리지』		20세기 초 『증보문헌비고』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증화	읍내장	3·8일	좌동															
	요포장	4·9일																
	장교장	5·10일																
평양	읍내장	1·6일																
	태평장	5·10일																
	둔전기장	2·7일																
	①막산통장	4·9일																
	한천장	1·6일																
	장수원장	3·8일																
	소선장	4·9일																
	무진장	2·7일																
	猿巖場	4·9일	좌동		猿岩場	4·9일	猿巖場	4·9일										
	장지장	4·9일	좌동															
	가차산장	3·8일	좌동															
	②加屹院場	5·10일									좌동		加屹漢場	5·10일	加屹院場	5·10일		
순안	읍내장	5·10일	좌동															
	신교장	1·6일	좌동	신교장	5·10일	신교장	1·6일	좌동										
	巖赤場	2·7일		巖赤場	5·10일	岩赤場	2·7일	巖赤場	2·7일									
영유	읍내장	4·9일	좌동	읍내장	5·10일	읍내장	4·9일	좌동										
	②가홀원장	5·10일		좌동														
숙천	읍내장	3·8일	좌동															
안주	읍내장	4·9일																
	소착장	2·7일									소착장	3·8일	좌동				소착장	2·7일
	입석장	2·7일									좌동							
	대교장	1·6일																
삼화	읍내장	4·9일	좌동															
	加甌浦場	2·7일									좌동	加增浦場	2·7일	加甌浦場	2·7일	좌동		
용강	읍내장	3·8일	좌동															
	노동장	5·10일																
	③선교장	2·7일																
	황산장	2·7일																
강서	읍내장	2·7일	좌동															
	丹地峴場	4·9일									좌동				丹地現場	4·9일		
함중	읍내장	1·6일	좌동															
증산	읍내장	4·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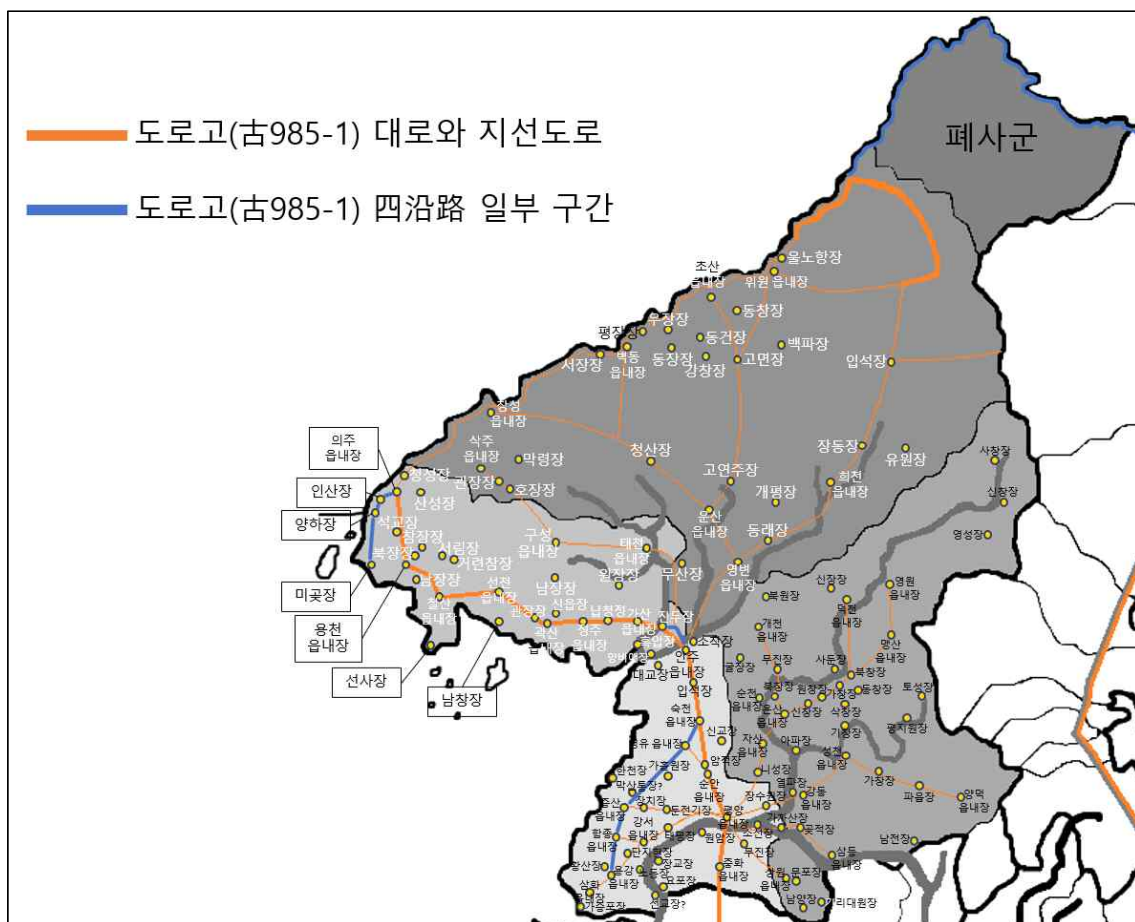
※ 평양 막산통장, 용강 선교장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기 어렵다. 다만 ①평양 막산통장은 수화봉 북쪽에 가막포자리로 추정하였다. ②평양 가홀원장과 영유 가홀원장은 지명과 개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장시로 추정하였다. ③용강 선교장은 망해리장과 개시일이 같다는 점에서 같은 장시로 추정하였다.

52) ④유통권의 40개 장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현	1770년 『동국문헌비고』		1795년 『도로고』		1822년~1828년 『동여기략』		1854년 『택리지』		20세기 초 『증보문헌비고』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장시명	개시일
양덕	읍내장	1·6일	좌동							
	파읍장	5·10일								
	평지원장	4·9일								
	①가창장	4·9일								
	토성장	1·6일								
삼등	읍내장	4·9일	좌동							
	읍내장	4·9일								
상원	남양장	3·8일	좌동							
	②岐里 大院場	4·9일								
	문포장	1·6일								
성천	읍내장	1·6일	좌동		문포장	부재	문포장	1·6일	좌동	
	남진장	5·10일	좌동							
	γ波場	4·9일								
	삭창장	5·10일	좌동		γ坡場	4·9일	γ波場	4·9일	좌동	
	岐倉場	3·9일	좌동				岐倉場	4·9일	岐倉場	3·9일
강동	읍내장	3·8일	좌동							
	곶적장	5·10일								
	열파장	2·7일								
자산	읍내장	3·8일	좌동							
	이성장	5·10일								
은산	읍내장	2·7일	좌동							
	북창장	3·8일								
순천	읍내장	4·9일	좌동							
	신창장	1·6일								
	동창장	4·9일								
	북창장	3·8일	좌동	부재	북창장	3·8일	좌동			
	원창장	2·7일			원창장	2·7일	원창장	1·6일		
	가창장	5·10일			가창장	5·10일	좌동			
	③사둔장	2·7일			사둔장	2·7일				
맹산	읍내장	4·9일	좌동							
영원	읍내장	3·8일								
	신창장	2·7일								
	사창장	3·8일								
	영성장	1·6일								
덕천	읍내장	2·7일	좌동				영성장	3·8일	영성장	1·6일
	신창장	1·6일	좌동							
개천	읍내장	1·6일								
	굴창장	2·7일								
	북원장	3·8일								
	무진장	5·10일								

※양덕 가창장, 상원 기리대원장, 순천 사둔장은 구체적인 위치를 알기 어렵다. 다만 ①양덕 가창장은 별창장 자리로 추정하였다. ②상원 기리대원장은 두미령 서북쪽으로 추정하였다. ③순천 사둔장은 잡사진 일대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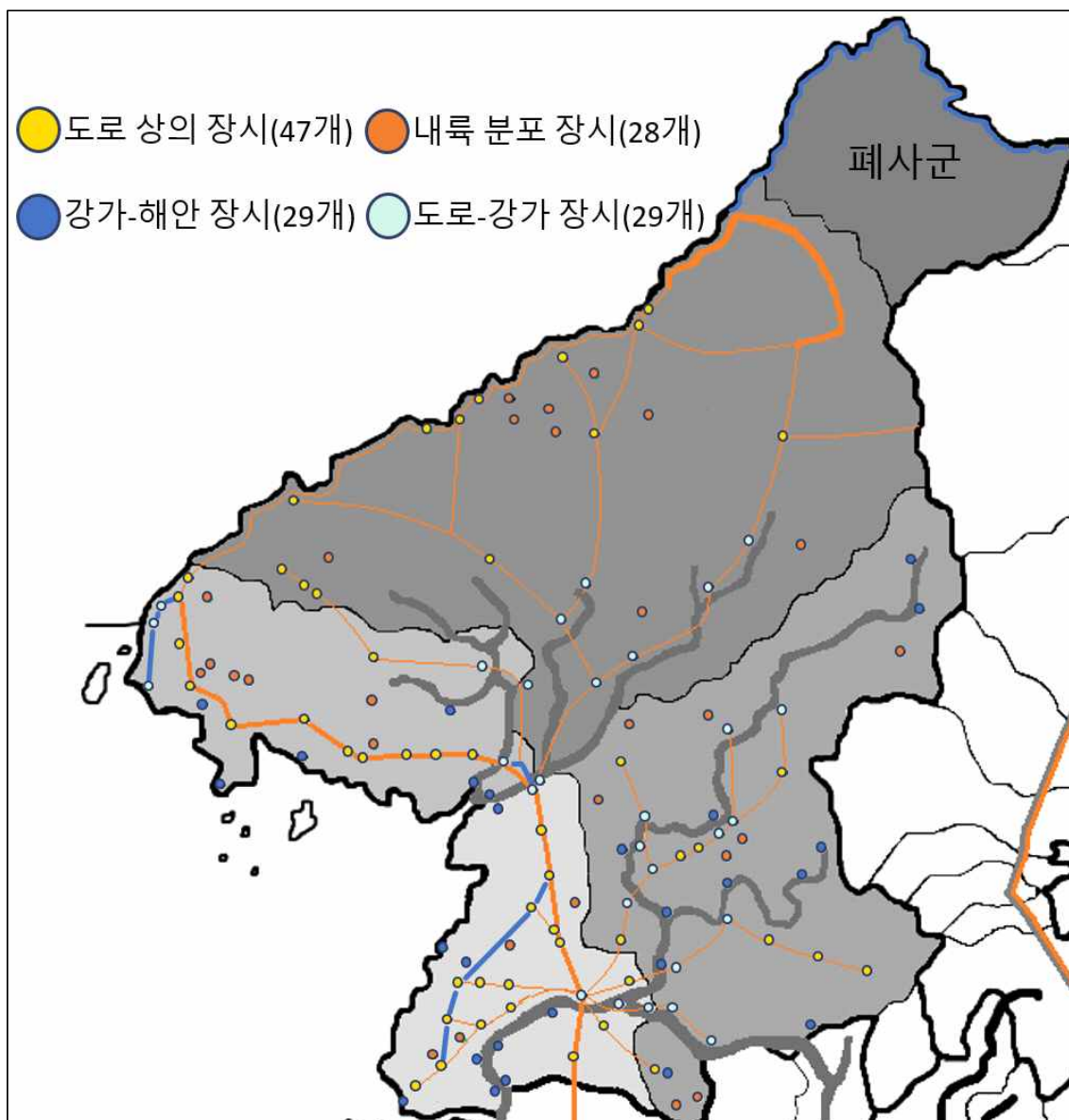
<지도 2> 18세기 후반 평안도 유통망과 장시 위치



18세기 후반 평안도 장시의 입지를 유통망과 결합해 보면, 평안도 장시는 도로를 중심으로 폭넓게 편성되었음이 확인된다. 우선 평안도 ①유통권의 30개 장시는 대로-지선도로에서 12개, 내륙에서 7개, 강가-해안에서 6개, 도로-강가에서 5개가 개시하였다. ②유통권에서는 대로-지선도로에서 13개, 내륙에서 9개, 도로-강가에서 7개가 개시하였다. ③유통권에서는 대로-지선도로에서 16개, 강가-해안에서 9개, 도로-강가에서 5개, 내륙에서 4개가 개시하였다. ④유통권에서는 도로-강가에서 12개, 강가에서 11개, 대로-지선도로에서 9개, 내륙에서 8

개가 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①유통권, ②유통권, ③유통권에서는 육로에서 ④유통권에서는 육로와 수로의 결절 지역에서 주로 장시가 발달하였음이 확인된다. 평안도를 총괄하여 확인하여도 도로에서 47개, 강가-해안에서 29개, 도로-강가에서 29개, 내륙에서 28개가 개시하였음이 확인된다.

<지도 3> 18세기 후반 평안도 유통망과 장시 위치의 분류



다만 육운과 강운·해운이 결합하는 지점에서 개시한 장시들은 비교적 장세가 컸던 것으로 확인된다. 18세기 말 『부역실총』에서는 평안도 각 군현의 상세전, 장세전이 확인된다.⁵³⁾ 평안도 각 군현의 상세전과 장세전을 유통권으로 분류하여 단순히 합산하면, ④청천강 이남의 동쪽 내륙 유통권, ③청천강 이남의 서쪽 연안 유통권, ①청천강 이북의 서쪽 연안 유통권, ②청천강 이남의 동쪽 내륙 유통권 순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각 유통권의 상세전과 장세전의 합산 값을 각 유통권의 장시 개수로 나누면, 각 유통권의 장시 1기당 평균값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한 각 유통권의 장시 1기당 장세 평균값은, ③청남의 서쪽 연안 유통권, ①청북의 서쪽 연안 유통권, ④청남의 동쪽 내륙 유통권, ②청북의 동쪽 내륙 유통권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황은 대로가 관통하면서도, 서해안과 청천강, 대동강 이용이 유리하였던 ①유통권과 ③유통권의 장시가 다른 지역의 장시보다 장세가 컸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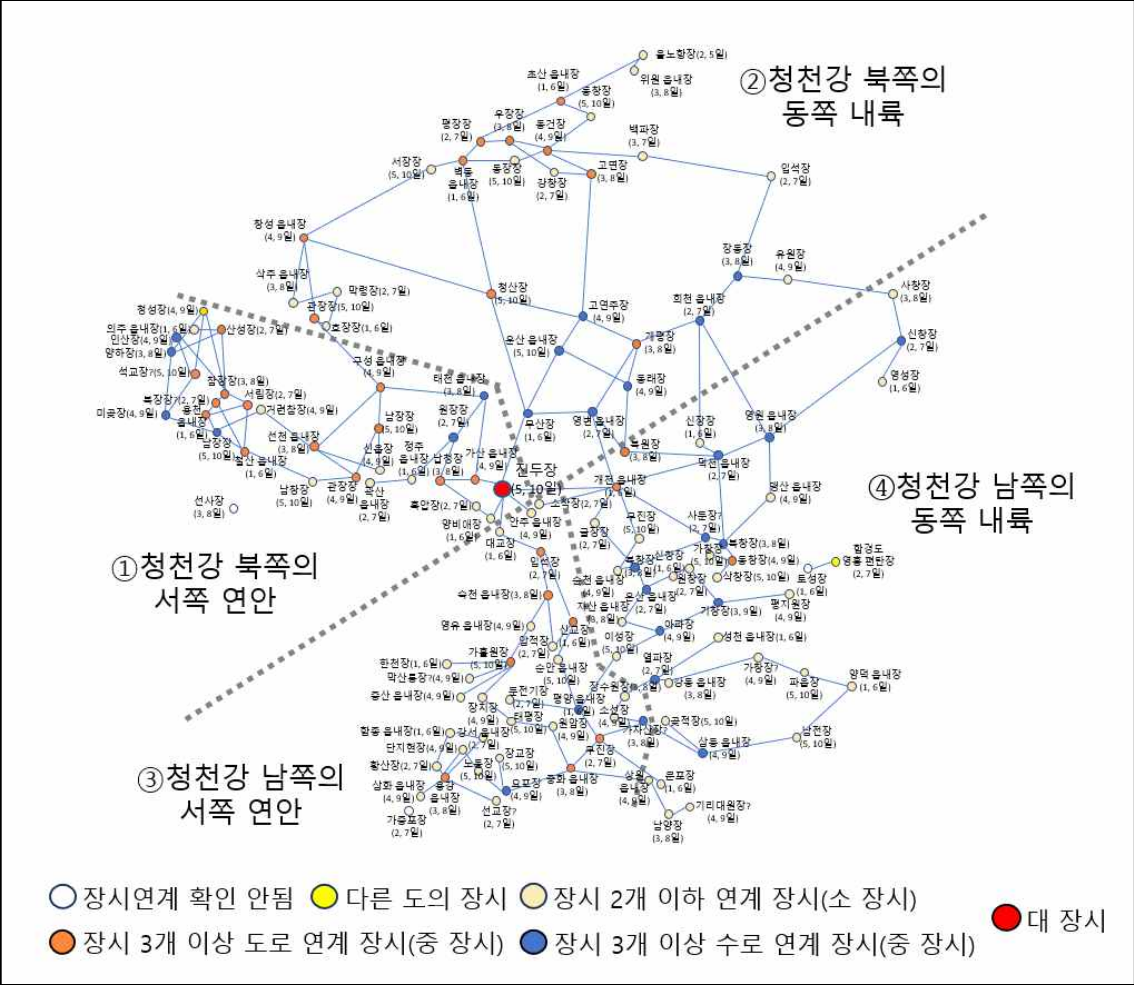
나아가 각 군현의 상세전과 장세전 합산 값을 각 군현의 장시 개수로 나누어보면, 각 군현의 장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박천의 상세전과 장세전 합산 값이 다른 군현과 비교하여 가장 컸음이 확인된다. 박천에서는 장세전 825냥과 장세전 468냥이 거두어졌다. 이어서 중화에서 장세전 1,200냥이 거두어졌고, 성천에서 장세전 820냥과 상세전 158냥이 거두어졌다. 나아가 각 군현 내의 장시 개수로 합산 값을 나누어보면, 박천에서는 장시 2기가 개설되어, 장시 1기에 평균 646냥 5전이 거두어졌다. 중화에서는 장시 3기가 개설되어, 장시 1기에 평균 400냥이 거두어졌고, 숙천에서는 장시 1기가 개설되어, 240냥이 거두어졌다. 박천의 津頭는 안주와 가산을 연결하는 대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었고,⁵⁴⁾ 청천강과 인접한 대정

53) 『부역실총』에서 확인되는 평안도 상업세를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유통권 구분	군현	『부역실총』 상업 세금		18세기 후반 장시 수	장시 1기 평균	순위
①유통권	박천	商稅錢	825냥	2	646냥 5전	1
		場稅錢	468냥			
	용천	場稅南草	250근	5	50근 4립	?
		板板	20립			
	의주 인산진	21냥 6전		1	21냥 6전	10
	합계	稅錢	1314냥 6전	8개	164냥 3전	.
場稅南草		250근	31근			
板板		20립	2.5립			
②유통권	희천	場稅塩	5석 11두 4승	3	3두(1석=15두)	?
		錢文	60냥		20냥	11
	벽동	場稅錢	43냥	5	8냥 6전	12
	창성	場稅錢	7냥 5전	2	3냥 7전 5푼	13
	삭주	.	7냥 2전	4	1냥 8전	14
	합계	稅錢	117냥 7전	14개	8냥 4전	.
場稅塩		5석 11두 4승	6승			
③유통권	중화	場稅錢	1,200냥	3	400냥	2
	안주	場塵稅錢	339냥 2전	4	84냥 8전	7
	숙천	場稅錢	180냥	1	240냥	3
		商稅錢	60냥			
합계	稅錢	1779냥 2전	8개	222냥 4전	.	
④유통권	상원	場稅錢	560냥	4	140냥	5
	성천	場稅錢	820냥	5	195냥 6전	4
		商稅錢	158냥			
	은산	市塵稅	류기 48부	2	류기 24부	?
	영원	商稅錢	129냥 8전	4	45냥	9
		場稅錢	50냥 4전			
	덕천	場稅錢	146냥 8전	2	73냥 4전	8
	개천	場稅錢	465냥 3전	4	116냥 3전	6
합계	稅錢	2330냥 3전	21개	110냥 9전	.	

강 하류를 활용하기에 유리하였다. 이러한 津頭에 개설한 진두장은 평안도 내에서 장시 규모가 가장 컸으며, 도내의 핵심 장시 역할을 담당하였다.⁵⁵⁾

<지도 4> 18세기 후반 평안도 유통권 구분과 장시망



나아가 진두장은 평안도 내의 4개 유통권을 통합하는 위상을 보였다. 장시의 개시일을 기준으로 장시 간의 관계망, 즉 장시망을 구현하면 <지도 4>와 같은 위상이 형성된다. 진두장은 평안도 서쪽 연안의 중앙에 위치하였다는 점, 청천강과 대정강을 활용하기 유리하다는 점, 대로의 경로에 위치하였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평안도 시장권을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

54) 『도로고』, 『정리표』, 『도리도표』 「분방정리」 안주-정주대로 노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사료	노정											
『도로고』	安州	淸江	赤峴	廣通院	大谷江	嘉山郡	曉星嶺	納清亭	九鼎成撥站		月乃橋	定州
	10리	5리	15리	10리	10리	20리	5리	15리	10리		20리	10리
『정리표』	安州			廣通院	大谷江	嘉山	曉星嶺					定州
	30리			30리	10리	20리	5리					55리
『도리도표』	安州			廣通院		嘉山				求井峯		定州
	30리			20리		30리				30리		30리

55) 『만기요람』 「재용편」 5, 「각전」

하였다. 서북쪽으로 가산 읍내장, 박천 양비에장을 연결하여 청천강 이북의 서쪽 연안에서 시장권이 연결되었다. 서남쪽으로 안주 읍내장, 대교장과 연결되어 청천강 이남의 서쪽 연안 장시가 연결되었다. 동북쪽으로 영변 무산장과 연계되어 청천강 이북의 동쪽 내륙에서 시장권이 연결되었고, 동남쪽으로 개천 읍내장과 연결되어 청천강 이남의 동쪽 내륙 장시가 연결되었다. 물론 진두장 이외에도 서로 다른 유통권을 하나의 시장권으로 연결하던 장시들도 확인된다. 예컨대 구성 읍내장은 청천강 이북의 동서 유통권을 연결하였고, 개천 읍내장과 영변 읍내장, 영원 읍내장과 희천 읍내장 등은 동쪽 내륙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였다. 아울러 평양 읍내장, 중화 읍내장과 상원 읍내장 등은 청천강 남쪽의 서쪽과 동쪽을 연결하였다. 이러한 장시들은 거점 장시인 진두장의 시장권 통합을 보조하였다. 진두장을 거점으로 평안도 장시망은 청천강 이북과 이남, 동북 내륙과 동남 내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3. 植桑-양잠 분리와 견사 방적·유통

1) 뽕잎 상품화와 植桑-양잠 분리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 시장권이 진두장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평안도에서는 뽕잎 생산과 양잠이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우선 18세기 후반 뽕나무는 상품 작물로서 재배가 확대되었다. 일찍이 16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는 뽕나무 재배가 강조되기 시작하여 17세기 초부터 구체적인 재배 정보가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6세기 중반 이후, 민간에서는 집 안에 뽕나무를 심거나 뽕밭을 형성하여 뽕잎을 확보하고, 양잠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⁵⁶⁾ 예컨대 17세기 초 『한정록』에서는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公桑과 蠶室을 두었고, 사대부와 서인 역시 일단 거주할 장소를 정했으면, 집 주위에 뽕나무를 널리 심어야 함을 강조하였다.⁵⁷⁾ 특히 17세기 후반 『색경』에서는 「桑種」, 「種樅」, 「地桑」, 「移栽」, 「壓條」, 「栽條」, 「布行桑」, 「科斫」, 「接桑」 항목을 구성하여 뽕나무의 종류와 가꾸는 방법을 상세하게 분류하였고, 마지막에 「柘」를 편성하여 산뽕나무의 우수성을 소개하였다.⁵⁸⁾

18세기 전반에는 뽕나무 재배와 뽕잎 수확을 효율화하는 방법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전반 『산림경제』의 뽕나무 재배 정보에서는 『색경』과 비교하여 크게 두 가지 변화가 확인되었다. 첫 번째, 뽕나무 재배가 이전보다 조밀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①『색경』에서는 뽕나무를 심는 행 간을 8보 띄우도록 설명하였지만, 『산림경제』에서는 행 간격을 7보 띄우도록 설명하였다.⁵⁹⁾ 이러한 변화는 17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 발전에 따른 토지 생산성 향상 배경에서 뽕나무 역시 더욱 조밀하게 재배할 수 있게 된 상황을 반영하였다. 두 번째, 뽕잎 수확을 효율화하는 방법을 추가하였다. 『색경』에는 없었던 ②매년 때에 맞추어 가지 끝을 잘라주고 가지에 돌을 달라서 늘어뜨리고, 중간 가지 역시 늘어뜨려서 뽕잎을 따기 쉽게 가

56) 남미혜, 2009, 앞의 책, 146~148쪽.

57) 『한정록』 권 14, 「치농」 「蠶繅」

58) 『색경』 하권, 「養桑法」

59) 『색경』 하권, 「養桑法」 「布行桑」 ‘地內闊八步一行 行內相去四步一樹 相對栽之’ ; 『산림경제』 권 2, 「種樹」 「種桑」 ‘橫行闊七步 長行離四步 對栽’

꾸어야 한다는 정보 ③정월 초하루에 햇불로 뽕나무를 그을려 벌레가 생사지 않도록 한다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이는 『색경』에서 소개하였던 剝桑法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⁶⁰⁾

<표 1> 『색경』, 『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의 뽕나무 재배 정보 비교

『색경』 하권 「養桑法」		『산림경제』 권 2, 「種樹」「種桑」	『증보산림경제』 권 3, 「種樹」「桑」
桑種	魯桑	魯桑	魯桑
	荊桑		.
	白桑		白桑
	青桑		.
	.		④金桑(비선했음)
種楨		부분 인용	부분 인용
地桑		.	.
移栽		부분 인용	내용 유사
壓條		부분 인용	부분 인용
栽條		.	.
布行桑	행 간격 8보 /4보에 한그루	①행 간격 7보 /4보에 한그루	⑥행 간격 7보 /4보에 한그루
	科斫	부분 인용	부분 인용
附 榮葉		.	.
接桑		.	⑦닥나무에 접붙이기
柘		.	부분 인용
.		②每年及時科斫~採葉	⑧인용
		③元日~無虫	⑨인용
		.	⑩嫁法
		.	⑪忌午日~四日尤甚
		.	⑫桑下埋鼃甲~入藥

나아가 18세기 후반에는 뽕잎의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더욱 구체화 되었다. 18세기 후반 『증보산림경제』에서는 이전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정보가 추가되었다. 우선 ④金桑과 ⑤鷄脚桑의 뽕잎은⁶¹⁾ 누에를 기르기에 적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⑥『산림경제』에서 확인된 뽕나무 행 간격을 7보로 줄이는 방법을 계승하였다.⁶²⁾ ⑦닥나무에 뽕나무를 접붙이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뽕잎이 기름지고 커짐을 강조하였다. 剝桑法을 준용하였던 『산림경제』를 따라서 ⑧뽕나무 가지 끝을 늘어뜨리는 방법과 ⑨정월에 햇불로 그을려 벌레

60) 『색경』 하권, 「養桑法」 「布行桑」에서는 중국의 뽕나무 가지 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①섬서, 낙양, 하동 등에서 시행하는 剝桑法과 ②산동, 하삭 등에서 시행하는 가지 치는 방법을 구분하였다. ①가지치기는 모든 가지를 대체로 쳐주는 방법이었다면, ②가지치기는 싹눈이 붙은 가지를 남겨두는 방법이었다. 두 지역은 서로의 풍토에 따라서[風土所宜] 다른 방법이 활용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61) 『산림경제』 권 1, 「섬생」의 내용에서 鷄桑은 사람이 섭취하기 위하여 집 정원[家園]에서 가꾸기에는 좋은 것으로 정리하였다.

62) 『증보산림경제』 권 2, 「種樹」「種桑」 ‘橫行闊七步 長行離四步 僅栽’

가 생사지 않도록 한다는 정보를 인용하였다. 나아가 ⑩뽕나무를 옮겨심는 방법 ⑪뽕나무 정원[桑園]에서 김매기를 피해야 하는 날짜 ⑫뽕나무 아래 두꺼비 껍질을 묻어놓아 뽕잎을 무성하게 만드는 방법 등을 추가하였다.

한편 18세기 후반 이후, 조정에서도 양잠을 진흥하기 위한 植桑 정책을 추진하였다. 양잠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원료가 되는 뽕나무 재배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했다. 영조는 각 지역의 수령을 통해 植桑을 적극 권장하였다. 민들에게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잠의 재원인 상목 재식을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수령 칠사의 첫 번째 임무 역시 농상에 힘쓰는 것이며 수령의 업무에서도 농상 권장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⁶³⁾

뽕나무 보급에 대한 민간과 조정의 노력이 맞물렸던 18세기 후반, 뽕나무 재배는 전국에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뽕나무 재배 지역의 확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의 토산과 풍속 관련 항목의 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⁶⁴⁾ 우선 강원도에서는 16세기 울진, 회양, 강릉, 삼척, 정선에서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였다. 특히 울진에서는 농업과 뽕나무 재배를 겸하여 힘쓰는 풍속이 성행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18세기 후반에는 회양에서 뽕나무 재배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새롭게 양양, 평해, 낭천에서 농업과 뽕나무 재배를 겸하여 힘쓰기 시작한 상황이 확인되었다.⁶⁵⁾

경상도에서는 16세기에 남해, 안동, 풍기, 의성, 봉화에서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진주에서는 농업의 부업으로서 양잠이 성행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지역에 더하여 진주, 함안에서 뽕나무 재배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뽕나무 재배 지역이 더욱 확대되었다. 우선 북부 내륙인 문경, 영양, 인동과 남부 내륙인 영산에서도 재배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동해안인 연일과 기장에서도 재배가 확대되었다.⁶⁶⁾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우선 충청도는 17세기 중반 청주, 천안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청주와 천안에서는 뽕나무 재배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주 인접인 진천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졌다. 전라도는 17세기 중반 익산, 광주, 순천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뽕나무 재배 지역이 내륙과 서남해안으로 확대하였다. 익산, 광주, 순천에서는 더 이상 뽕나무 재배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

63) 남미혜, 2009, 「18세기 영조대 양잠정책과 양잠업」 『한국문화연구』 16, 242~243쪽.

64) 지리지의 풍속과 토산 관련 항목을 분석하여 양잠업이 확대하였던 정황을 추적한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남미혜, 2002, 『조선전기 양잠업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본 연구에서는 지리지 풍속과 토산 항목에서 확인된 뽕나무[桑], 養蠶, 繭絲(絲)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65)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강원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관동	울진	弓幹桑	務農桑	弓幹桑	力農桑	.	務稼穡種桑麻
	강릉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桑(물산)	知種麻養蠶
	삼척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桑(물산)	.
	정선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桑(물산)	.
	회양	弓幹桑	.	弓幹桑	.	.	.
	양양	務農桑
	평해						力農桑
	낭천						專務農桑

66)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경상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북부 내륙의 용담, 고산, 남부 내륙의 구례, 동북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서해안에서는 영광, 남해안에서는 강진, 장흥, 낙안, 홍양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⁶⁷⁾

경기도와 함경도에서는 18세기 후반부터 뽕나무 재배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양주, 과천, 양지에서는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였지만, 남양과 인천처럼 서해안에 인접한 곳에서는 재배가 활발하지 않았다. 함경도 남관인 문천과 북청에서 뽕나무 재배가 이루어졌지만, 온성과 무산 등 북관에서는 재배가 활발하지 않았다.⁶⁸⁾

무엇보다도 18세기 후반, 황해도와 평안도에서는 뽕나무 재배 군현이 현격히 증가하였다. 우선 16세기~17세기 중반 황해도에서는 서해안인 장연, 내륙인 황주, 서흥, 수안, 곡산에서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기존의 뽕나무 재배 지역에 더하여, 내륙인 송화, 문화, 신천, 재령, 봉산, 평산, 금천, 신계, 토산에서 재배가 이루어졌다. 서해안으로 연결되는 안악, 장련, 은율, 풍천, 해주, 연안에서도 뽕나무 재배가 확대되었다.⁶⁹⁾ 16세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영남	남해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桑	.
	진주	.	農夫蠶婦	.	農桑服勤	.	農夫蠶婦服其勤
	안동	.	尙勤儉務農桑	경상좌도 내용 누락		.	尙勤儉務農桑(地理志)
	풍기	.	民樂耕桑			.	民樂耕桑
	의성	.	尙儉率務農桑			.	尙儉率務蠶桑(觀風案)
	봉화	.	尙節儉務蠶桑			.	尙節儉務蠶桑(觀風案)
	문경	尙朴素務農桑
	영양	俗尙勤儉務農桑
	인동	人務農桑
	함안	.	.	.	務農桑	.	民務農桑
	영산	種桑栽竹(南在詩)
	연일	籬落桑麻(金宗直寅賓堂記)
	기장	俗儉素尙農桑

67)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충청도와 전라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호서	청주	.	.	.	民務耕桑	.	.
	천안	.	.	.	務農桑	.	.
	진천	勤業農桑
호남	익산	.	.	.	務農桑	.	.
	광주	.	.	.	力業農桑	.	.
	순천	.	.	桑寄生	.	.	.
	용담	桑(물산)	.
	고산	務農桑
	구례	農桑爲務
	동북	民多撲野勤於農桑
	영광	士尙文藝民務農桑(前人記)
	강진	居民務農桑
	장흥	桑寄生(진공)	.
	낙안	尙淳厚務農桑
	홍양	桑寄生(물산)	.

68)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경기도와 함경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경기	양주	農桑爲業
	과천	懶於農桑
	양지	良業勤農桑
관북	북청	桑木(물산)	.
	문천	勤儉農桑

69)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황해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기~17세기 중반 평안도에서는 내륙인 운산, 개천에서 뽕나무 재배가 활발하였다. 그런데 18세기 후반 이후, 서해안인 삼화, 용강, 박천, 정주, 내륙인 상원, 삼등, 강동, 은산, 양덕, 맹산, 순천, 덕천, 영변, 희천, 태천, 대륙의 접경인 이산, 삭주에서까지 뽕나무 재배가 확대되었다.⁷⁰⁾ 특히 평안도는 전국 팔도 중에서 뽕잎을 생산하는 일[桑政]을 지역의 업[土業]으로 삼을 정도로 활발하였다.⁷¹⁾

전국적으로 뽕나무 재배와 뽕잎 생산이 증가하면서 양잠에 활용되는 뽕잎 역시 풍족해졌다. 17세기 초 『한정록』에서는 뽕잎이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임시방편[齊蠶]을 설명하였다. 누에를 기르다가 뽕잎이 모자랄 때, 감초수를 뿌리고 쌀가루를 발라서 말린 뒤에 누에에게 먹이면 하룻밤을 지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⁷²⁾ 18세기 후반 『증보산림경제』에서는 뽕잎이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해서	長淵	桑寄生	蠶桑魚鹽爲利	桑寄生	蠶桑魚鹽爲利	桑蠶蛭(진공)	.
	서흥	弓幹木	.	弓幹木	.	桑蠶蛭(진공)	本業農桑
	수안	弓幹木	.	弓幹木	.	桑(진공)	
	황주	.	務農桑	.	務農桑	桑蠶蛭(진공)	務農桑
	곡산	.	務蠶桑	.	務農桑	桑蠶蛭(진공)	俗務蠶桑
	송화	桑皮(진공)	以桑麻爲業
	문화	桑蠶蛭(진공)	
	신천	桑蠶蛭(진공)	赴農桑
	재령	桑蠶蛭(진공)	.
	봉산	桑蠶蛭(진공)	務農勸桑
	평산	桑蠶蛭(진공)	務桑麻
	금천	懶農桑之務
	신계	桑蠶蛭(진공)	務蠶桑
	토산	桑蠶蛭(진공)	以農桑爲業 且尙麻絲
	안악	桑蠶蛭(진공)	務農桑事
	長連	桑蠶蛭(진공)	務農桑事
	은율	桑蠶蛭(진공)	力農桑
	풍천	桑蠶蛭(진공)	.
	해주	皮桑(진공)	.
	연안	農桑爲本業

70) 16세기 전반~18세기 중후반 평안도의 뽕나무 재배 변화는 아래 표와 같다.

도	군현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토산	풍속	물산, 진공	풍속
관서	운산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木(물산)	.
	개천	弓幹桑	.	弓幹桑	.	弓幹桑(물산)	.
	삼화	桑(물산)	.
	용강	勤於農桑
	박천	務農桑
	정주	勤農桑
	상원	崇尙農桑
	삼등	力農桑務耕織
	강동	勤農桑
	은산	務農桑
	양덕	務農桑
	맹산	務農桑
	순천	桑麻本業
	덕천	惟務農桑
	영변	務農桑
	희천	崇尙農桑
	태천	民業農桑
	이산	務桑農
	삭주	勤農桑

71) 『승정원일기』 1471책, 정조 4년 9월 24일 기해 ‘農桑二字 實爲急務之急務 以我國言之 八路之民 非不力農 而但桑政 只是關西一路 作爲土業 而他道則無聞’

모자랄 때 쓸 수 있는 임시방편[齊蠶]을 오히려 누에를 살찌우는 비법으로 설명하기 시작하였다.⁷³⁾ 아울러 뽕잎을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儲葉法]을 추가하였다. 여름에 뽕잎을 많이 따고 말려서 저장하고, 다음 해 봄과 여름에 잎을 적셔서 누에에게 먹이도록 하였다. 뽕잎은 100석에 한정하여 저장하고, 누에를 먹이고 남는 것은 소를 먹여도 좋다고 하였다.⁷⁴⁾ 뽕잎 생산이 확대되면서 뽕잎이 부족한 상황의 임시방편은 누에를 살찌우는 비기로, 뽕잎 저장량 역시 정량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뽕잎[桑葉]은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가산 증식 수단이 되었다.⁷⁵⁾ 18세기 후반 『증보산림경제』에서는 「가정」 항목을 편성하여 가정을 경영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해당 항목의 「力農桑」에서는 집안이 힘을 합해 農桑을 부지런히 하면, 의식이 넉넉해져서 굶주림을 면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⁷⁶⁾ 따라서 땅의 적합함에 따라서 木綿을 많이 심거나 뽕나무와 산뽕나무를 널리 심고, 나아가 부녀자들에게 紡績을 맡기고 노는 일손이 없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⁷⁷⁾

<표 2> 『동국여지지』와 『여지도서』에서 확인되는 뽕나무 재배와 양잠 지역

구분	도	군현	『동국여지지』		『여지도서』	
			토산	풍속	물산	풍속
① 뽕잎 생산과 양잠 일치 지역	해서	곡산	.	務農桑	桑縹蛸(진공)	俗務蠶桑
		신계	.	.	桑縹蛸(진공)	務蠶桑
		의성	.	.	.	尙儉率務蠶桑(觀風案)
	영남	안동	.	.	.	尙勤儉務農桑(地理志) ...(중략)... 父耕婦蠶
		봉화	.	.	.	尙節儉務蠶桑(觀風案)
		진주	.	農桑服勤	.	農夫蠶婦服其勤
	관동	강릉	弓幹桑	.	弓幹桑(물산)	知種麻養蠶
② 뽕잎 생산과 양잠 분리 지역	호서	홍산	.	.	.	俗尙文武勤於蠶農
		직산	.	.	.	養蠶絕無 而或有東南
	관서	용천	.	.	.	勤於田蠶
		안주	.	.	.	不遠禮義田蠶
		성천	.	務田蠶	.	力田務蠶

무엇보다도 18세기 후반 뽕잎 상품화를 계기로 뽕잎 생산과 양잠이 분리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여지도서』 풍속 조항에서 누에고치 기르는 일[蠶]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에서 뽕나무 재배[桑]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①뽕잎 생산과 양잠을 병행하는 지역과 ②뽕잎 생산과 관계없이 양잠이 이루어지는 지

72) 『한정록』 권 16, 「治農」 「養蚕」 ‘育蚕而缺葉者 以甘草水洒葉 次以米粉糝之候 乾與食 可度一日夜 謂之齊蚕’

73) 『증보산림경제』 권 5, 「養蠶」 「飼蠶總論」 ‘育蚕而缺葉 以甘草水洒葉 次以米粉糝之候 乾與食 可度一日夜 成繭亦厚案 謂之齊蚕 惟惧人知(俗方 蚕似有不案 退老之勢 以蚕椒 糝之一新矣)’

74) 『증보산림경제』 권 5, 「養蠶」 「儲葉法」 ‘盛夏多摘桑 晒乾收納空石 待明年春夏間 蚕欲老時 水漬 乾葉含潤 興養食之 則作繭堅韌甚佳 儲葉限百石飼蚕 有餘者 飼牛亦好’

75) 남미혜, 2008, 앞의 논문, 61~64쪽.

76) 『증보산림경제』 권 11, 「家政(上)」 「力農桑」 ‘故一家戮力 勤於農桑 則衣食自足 無飢寒之苦’

77) 『증보산림경제』 권 11, 「家政(上)」 「力農桑」 ‘相地之宜 多種木綿 廣培桑柘 以責紡績之功於諸婦女 無致一日游手閒遂可也’

청천강 이남의 동쪽 내륙에 자리한 개천, 덕천, 순천, 은산, 맹산, 강동, 양덕, 상원, 삼등에서 뽕나무가 무성하여 뽕잎 생산에 유리하였다. ①지역에서 생산된 뽕잎은 의주대로와 태천-박천을 연결하는 지선도로를 통해서 안주에 운송될 수 있었다. ②지역에서 생산된 뽕잎은 희천-영변, 운산-영변, 초산-운산을 연결하는 지선도로와 대정강·청천강 줄기를 따라서 안주 운반에 유리하였다. ③지역에서 생산된 뽕잎 역시 평안도 연로나 대로를 따라서 안주로 운반될 수 있었다. 다만 ④지역에서 생산된 뽕잎은 안주보다는 성천으로 결집하기 유리하였고, 삭주에서 생산된 뽕잎은 거리상 용천으로 결집하기에 유리하였다.⁷⁹⁾

2) 紡車 활용과 견사의 방적·유통

평안도 용천, 안주, 성천에서 양잠한 누에고치는 평안도 내의 紡績 원료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었다. 우선 양잠 지역은 유통 핵심 지점 중 하나였다. 용천과 안주는 의주대로가 관통하였고, 성천은 지선도로가 관통하였다. 아울러 안주는 청천강 하류, 성천은 비류강 유역에 자리하여 강운과 서해안 해운으로 연결되는 이점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안주와 성천의 장시세는 평안도 내에서 4번째와 5번째로 장시세가 많이 거두어진 지역이었다. 성천과 안주의 장시 1기당 장시세 역시 상당히 각각 7번째와 4번째로 높았다.⁸⁰⁾

유통 거점인 용천, 안주, 성천에서 생산한 고치는 평안도 내의 견사 방적 원료로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었다. 실제로 『여지도서』에서는 원사류 방적이 이루어졌던 전국 군현이 확인된다.⁸¹⁾ 해당 정보에서는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 군현의 원사류 방적보

79) 18세기 후반 『여지도서』의 뽕나무 재배 지역과 양잠 재배 지역을 포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구분	군현	『여지도서』		
		뽕잎 생산		양잠
		물산	풍속	풍속
용천 결집	삭주	.	勤農桑	.
	용천	.	.	勤於田蠶
안주 결집	박천	.	務農桑	.
	태천	.	民業農桑	.
	경주	.	勤農桑	.
	삼화	桑(물산)	.	.
	용강	.	勤於農桑	.
	안주	.	.	不遠禮義田蠶
	영변	.	務農桑	.
	희천	.	崇尚農桑	.
	이산	.	務桑農	.
	운산	弓翰木(물산)	.	.
성천 결집	개천	弓幹桑(물산)	.	.
	덕천	.	惟務農桑	.
	순천	.	桑麻本業	.
	성천	.	.	力田務蠶
	상원	.	崇尚農桑	.
	삼등	.	力農桑務耕織	.
	양덕	.	務農桑	.
	맹산	.	務農桑	.
	강동	.	勤農桑	.
	은산	.	務農桑	.

80) 각주 53번 『부역실총』 장세 관련 세액 분석표 참조.

81) 18세기 후반 『여지도서』에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함경도, 황해도의 원사류 방적 지역과 평

다 평안도 군현의 원사류 방적이 원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른 도와 비교하여 평안도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군현에서 원사류 방적이 이루어졌다. 이는 뽕잎 생산 지역과 양잠 지역이 분리되어, 뽕잎 상품으로 누에 생산을 전담할 수 있게 된 정황, 생산한 누에 역시 상품으로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었던 정황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평안도의 방적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기계 공정이 전문화하였다. 우선 18세기 후반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물레를 활용한 방적이 활발하지 않았다. 18세기 후반 중국에서는 견사 방적에 纜車라는 물레가 활용되었다. 纜車는 양 끝에 톱니바퀴가 있어서 스스로 회전하면서 방적하는 기계였다. 고치를 소차의 수십 보 밖에서 삶으며, 고치를 삶는 솥과 소차 사이에 수십 개의 시령을 설치하였다. 시령에 설치한 솥조각의 구멍을 견사가 통과하면서 열레에 감기는 방식이었다.⁸²⁾ 『열하일기』에서는 조선의 일반 蠶家에서 纜車를 활용하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방적하여 견사 품질이 좋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⁸³⁾ 따라서 충청

안도의 원사류 방적 지역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도	군현	『여지도서』	
		원사류 방적	
		물산	진공
경기	연천	絲	.
	용인	絲麻	.
	마전	絲	.
	삭녕	絲麻	.
영남	의성	絲	.
호서	옥천	.	眞紅絲
관북	고원	絲麻	.
	단천	絲	.
	덕원	絲麻	.
	문천	絲	.
	북청	蠶絲	.
	안변	繭絲	.
	정평	絲麻	.
	함흥	絲麻	.
	길주	絲	.
해서	곡산	繭絲	.
	문화	絲麻	.
	봉산	絲	.
	서흥	絲麻	.
	신계	繭絲	.
	신천	絲	.
	안악	繭絲	.
	웅진	絲麻	.
	은율	絲	.
	長連	繭絲	.
	해주	絲	.
	황주	絲	.
		.	.
도	군현	『여지도서』	
		원사류 방적	
		물산	
관서	박천	絲	
	가산	絲	
	경주	絲	
	곽산	絲	
	선천	絲麻	
	철산	絲	
	용천	絲	
	의주	絲	
	삼화	蠶絲	
	용강	絲	
	숙천	絲	
	순안	絲	
	안주	絲	
	영유	絲	
	중화	絲	
	증산	絲	
	평양	絲	
	강동	綿絲	
	함흥	絲	
	영변	絲	
	희천	絲	
	이산	絲	
	벽동	絲	
	창성	絲	
	운산	絲麻	
	삭주	絲	
	개천	絲	
	덕천	絲麻	
	순천	蠶絲	
	자산	絲	
	성천	絲	
	상원	絲	
	삼등	絲	
	양덕	絲	
	맹산	絲	
	은산	絲	

82) 소차의 작동 방식은 『임원경제지』 권 32, 「전공지」 5 「紡織圖譜」 「南纜車」 ; 「北纜車」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83) 『열하일기』局 3, 「車制」 ‘纜車尤妙 宜可效也 爲大牙輪 如轉磨之法 纜車兩頭 亦爲牙輪 齟齬三當不息 自轉纜車者 大隻之口數 抱者烹繭 於數十步之外 而中間設 數千層架漸 次爲高下之口 每架頭 豎鐵片穿孔 僅如計耳 納絲其孔機動 而輪旋輪旋 而簡轉交牙互齒 不疾不徐 慢慢抽引 不激不觸 任其

도 홍산이나 직산과 같이 뽕잎 생산과 양잠이 분리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잠과 방적 작업이 분리되지 못하고, 견사를 손으로 방적한다면 품질이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18세기 말에는 일반적인蠶家에서도 纈車를 활용하여 견사를 방적하기 시작하였다. 다산 정약용의 『應旨論農政疏』에서는 일반적인蠶家の 방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일반蠶家에서는 층계로 된 잠박을 사용하지 않고, 단칸방에 누에 시렁 하나로 기르면서 난방하여서 누에가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纈車로 실을 뽑아도 힘만 많이 들고 공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습하고 상한 실로 베를 짜니 옷감이 약하다고 하였다.⁸⁴⁾ 양잠과 방적 작업이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방적 기계인 纈車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견사 품질은 개선되기 어려웠다.

이와 비교하여 평안도에서는 일찍이 紡車라는 물레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방차는 삼베 실[麻絲]과 모시 실[苧絲]을 뽑는 물레와 비교하여 크기가 작았다. 방차는 물레바퀴가 회전하면서 실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작동하였다.⁸⁵⁾ 견사와 면사를 길게 뽑아내기는 하지만, 마사·저사와 같이 끊어져 있는 실을 잇는 작업은 하지 못했다.⁸⁶⁾ 조선에서 방차는 문익점이 얻어왔다는 뜻으로 文來車라고 불리기도 하였다.⁸⁷⁾ 특히 중국에서 들여왔던 방차는 18세기 말 평안도에서 개량되었다. 기존의 방차는 기존에 크고 둔하였는데, 평안도에서 방차를 편리하고 민첩하게 들었고, 다른 지역 織綃家에 보급되었다는 다산의 설명이 참조된다.⁸⁸⁾

紡車 활용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었던 평안도에서는 양잠과 방적 작업이 분리되었다. 실제로 방차 활용이 숙련된 사람[紡工能者]은 한쪽 손에 3개의 숨고치를 잡고 가락 위에서 실을 뽑을 수 있었다.⁸⁹⁾ 평안도에서는 방차를 활용한 방적 기술력을 높이면서, 견사는 물론이고 품질 좋은 면사도 제작하였다. 다산은 평안도의 방차가 견사와 면사 방적에 모두 쓰임을 인지하고, 이를 팔도에 보급하여 활용할 것을 건의하였다.⁹⁰⁾ 특히 18세기 말 당시 평안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목화 재배가 미약하였음에도, 綿絲를 방적하였던 정황이 확인된다.⁹¹⁾ 방차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방적 기술을 높이면서, 뽕나무 재배는 활발하였지만, 면화 재배

自然 故無精蠶 並進之患 纈之出釜 入餒之頃 遍歷鐵孔 刊毛落涎 未及入馘 體已燥曬光潔明潤 石勞灰練 而直入機杼 我東抽纈之法 惟知手汲 不識用車入之 運手已失天機 自然之口 而徐疾不適 疆激有時 則怒絲驚繭 騰跳駢進抽積 纈板棼雜無緒 擬乾成塊 既失光澤 沙壓校纏 且斷且續 除蠶理精口指並勞其視 纈車功用敏鈍 又何如也 問繭能經夏 不蟲之術 曰微炒 則不蛾溫杭培乾 則不蛾不蟲 雖冬纈可也

84) 『다산시문집』 권 9, 「疏」 「應旨論農政疏」, ‘又如蠶家不用層箔 每屋一間 只養一間 而蒸麥炊黍 房地熏熱 罨鼓爛麴之氣 席溲盆溺之臭 穢惡唐羶 蠶用是殭 纈車抽絲 勞多功遲 濕絲安灶 以石壓住 既腐而爛 方入杼柚 以之爲衣 敝已久矣’

85) 『임원경제지』 권 32, 「전공지」 5 「紡織圖譜」 「木綿紡車」, ‘其制比麻苧 紡車頗小 夫輪動弦轉 苧縲隨之’

86) 『임원경제지』 권 32, 「전공지」 5 「紡織圖譜」 「木綿紡車」, ‘但紡不績 任意小抽牽引 無有斷絕’

87) 『임원경제지』 권 32, 「전공지」 5 「紡織圖譜」 「木綿紡車」, ‘我邦之人 呼紡車曰 文來車 謂自文益漸得來也’

88) 『다산시문집』 권 9, 「疏」 「應旨論農政疏」, ‘又如紡車 大而手鈍 今織綃家 另有紡車 流自西關 制較便捷’

89) 『임원경제지』 권 32, 「전공지」 5 「紡織圖譜」 「木綿紡車」, ‘凡紡工能者 一手握三管 紡于錠上’

90) 『다산시문집』 권 9, 「疏」 「應旨論農政疏」, ‘蠶絲綿絲 用皆無礙 而鄉村尙無此車 今宜按書 製諸農器 頒制八方 令次第試用’

91) 18세기 중반 『택지리』, 18세기 후반 『여지도서』의 목화 재배 지역과 『여지도서』의 면사 방적 지역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는 활발하지 않았던 강동⁹²⁾에서도 綿絲를 방적할 수 있었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품질이 향상되었던 국산 견사는 국내 수요가 확대되어 나아갔다. 이미 조선 전기부터 眞絲麁을 통해서 견사를 의미하는 眞絲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⁹³⁾ 이러한 眞絲에는 중국산 견사와 국산 견사를 포괄하였다. 다만 18세기 전반까지 조정에서는 중국산 견사인 唐絲와 국내 공납물인 鄉絲는 품질이 크게 다른 것으로 인지하였다. 따라서 조정에서도 唐絲는 鄉絲로 대체될 수 없고, 반드시 연경의 시장[燕市]에서 구하거나, 중국 사행이 무역해 와야 하는[貿來] 품종으로 언급되었다.⁹⁴⁾

그런데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조정에서 국산 鄉絲 활용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1752년에는 예식에 활용하는 갓끈[纓]은 붉은색 향사[紅鄉絲], 즉 중국에서 수입한 견사가 아닌 국내에서 방직한 견사의 활용을 규정하였다.⁹⁵⁾ 특히 18세기 후반에는 조정에서 의무적인 공납[元貢]이 아닌 별도로 무역[別貿]하는 품목으로 鄉絲를 확보하기 시작하였다. 1778년에는 제용감에서 鄉絲를 별도로 무역하여 확보하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眞絲契와 별도의

지역	목화 재배			綿絲 생산		
	『택리지』		『여지도서』	『여지도서』		
경기	한강 이남		.	.		
호서	연안	內浦 지역		.		
		임천				
		한산				
	동북	충주				
		괴산				
		연풍				
		청풍				
		단양				
	차령 산맥 남쪽	① 순위	황간	.		
			영동			
			옥천			
			회덕			
		② 순위	공주			
			청주			
			문의			
			연기			
			진천			
호남	전 지역		곡성	木綿	.	
		홍양	綿花			
영남	전 지역		군위	綿子	.	
		의성	綿			
해서	내륙 지역		신천	木綿	.	
			안악	綿		
			장려	綿		
관서	산골을 제외한 지역		.		강동	綿絲
			.			
			강서	木綿		
			삼화	綿花		
			상원	木綿		
			곽산	木綿花		
			선천	木綿		
벽동	木綿花					

92) 장국중, 1998, 『조선농업사』, 백산자료원, 222~223쪽.

93) 조선후기 진사전과 진사제·향사제의 관계는 김미성의 연구(김미성, 2018, 앞의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수입 진사와 국산 향사의 구분과 향사의 수요·공급 확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94) 『승정원일기』 947책, 영조 18년 8월 5일 신묘 ‘鄉絲等四種 依數封進 而至於白絲 則絶種於燕市 今春回還節行 僅以尙方進排二稱貿來 …(중략)… 而唐絲異於鄉絲 無他推移變通之道 何以爲之’

95) 『국조상례보편』 「治葬」 「諸具」 「紙帳」 「纓 用紅鄉絲」

鄉絲契를 조직하고, 鄉絲契에게 2,840냥을 제공하여 白鄉絲를 확보하게 하였다.⁹⁶⁾ 1785년에도 제용감에서 鄉絲를 별도로 무역하여 확보하게 하였고, 鄉絲契에게 白鄉絲 가격 4,080냥을 지급하여 마련하였다.⁹⁷⁾

鄉絲의 別買가 잦아지면서 『택지준절』에서는 鄉絲의 절가를 확정하였다. 은으로 값을 치르는 眞絲와 구분하여, 白鄉絲는 1근에 下地木 4필(쌀 1석 9두)로 값을 설정하였다. 나아가 『택지준절』에서는 白鄉絲 역시 갓끈[纓]을 제작하는 원료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白鄉絲를 各色鄉絲로 염색하여 활용하였음이 확인된다.⁹⁸⁾ 『택지준절』에서 鄉絲의 절가가 마련된 이후, 鄉絲契는 중국과 일본 사행에 필요한 鄉絲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활동 역시 전담하기 시작하였다.⁹⁹⁾ 전통적인 공납물을 의미하였던 鄉絲는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를 중심으로 품질이 향상되면서 元貢보다는 貢契가 확보하는 別買 대상으로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18세기 말 이후, 민간에서도 鄉絲 거래가 증가하였다. 우선 眞絲廬에서는 각색 唐絲와 鄉絲 등을 거래하였고, 床廬에서도 鄉絲를 취급하면서 眞絲廬과 床廬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¹⁰⁰⁾ 아울러 시전이 아닌 난전에서도 진사와 갓끈[纓子] 거래가 확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眞絲廬 시민들은 난전의 진사와 갓끈[纓子] 거래를 금지하여, 자신들의 독점권을 지지해 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였다.¹⁰¹⁾ 갓끈[纓子]의 원료가 白鄉絲였음을 전제한다면, 시전상인인 眞絲廬와 床廬 그리고 난전 사이에서 鄉絲 판매의 경합이 극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합은 당대 민간에서 鄉絲의 수요가 높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4. 맺음말

18세기 후반은 평안도의 시장 통합을 배경으로 견사 방적이 발전하던 시기였다. 대청 관계가 안정화된 이후, 조정에서는 안주와 청천강 하류 개발을 시도하였다. 청천강 하류 개발은 새는 물길을 막는 작업과 기존 물길을 깊게 파내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해당 작업은 안주 병영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정에서 직접 주관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분명한 효과가 나타났다. 청천강 개발 배경에서 평안도 장시장은 청천강 하류 일대를 중심으로 도내를 통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천 진두장은 평안도 내의 시장권을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장시의 규모 역시 도내에서 가장 번성하였다.

96) 『만기요람』 「재용편」 3 「戶曹貢物」 「別買一年貢價」 「正宗朝度支一年所下別買貢價分三等爲上中下」 「戊戌」 「各司無元貢別買」 「濟用監」 「鄉絲」 ; 「各廬契別買立廬」 「鄉絲契」 「白鄉絲 價折錢 二千八百四十兩」

97) 『만기요람』 「재용편」 3 「戶曹貢物」 「別買一年貢價」 「正宗朝度支一年所下別買貢價分三等爲上中下」 「乙巳」 「各司無元貢別買」 「濟用監」 「鄉絲」 ; 「各廬契別買立廬」 「鄉絲契」 「白鄉絲 價折錢 四千八十兩」

98) 『택지준절』 판본에 관한 연구는 민영규의 연구(민영규, 1965, 「정조조 유초 택지준절」 『사학회지』 8 ; 민영규, 1965, 「정조조 유초 『택지준절』」 『사학회지』 9 ; 민영규, 1965, 「정조조 유초 『택지준절』」 『사학회지』 10)에서 정리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국가가 재정 지출 차원에서 당대 물가 정보를 채록한 기록이라는 관점(이현창, 2007, 「『택지준절』 제본의 해제와 경제정보」 『고문서연구』 31)에서 연구가 후속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택지준절』(연세대학교 도서관 고서(귀)1070-1~2)와 『택지준절』(규장각본, 古5127-3)을 검토하였다.

도내 시장 통합을 배경으로 평안도에서는 뽕나무 재배 지역과 양잠 지역이 분리되었다. 우선 민간에서는 상품 작물인 뽕나무 재배 기술이 점차 발달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정에서도 植桑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농업이 발달하지 못한 평안도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뽕나무 재배가 번성하여 土業으로 삼았다.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한 뽕잎은 상품으로 거래되면서 가산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뽕나무 재배 지역과 양잠 지역이 일치하였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평안도에서는 뽕나무 재배 지역과 양잠 지역이 구분되는 양상을 보였다. 평안도의 유통 결절 지역인 용천, 안주, 성천에서 양잠을 전담하면서, 생산한 고치는 평안도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었다.

『타지준절』 (연세대본,고서(귀)1070-1~2)				『타지준절』(규장각본, 古5127-3)											
구분	명칭	단위	가격	명칭	단위	가격	비고								
수입 견사	白眞絲	1근	銀 5냥 8전	白眞絲	1근	銀 5냥 8전	국내 염색	1근	錢 8전						
	紅眞絲		銀 8냥	紅眞絲	1량	銀 3전 6푼 2리 반									
	草綠眞絲		銀 7냥 5전	草綠眞絲	1근	銀 8냥				국내 염색	1근	錢 4냥 8전			
	甫羅眞絲		銀 6냥 5전	甫羅眞絲	1량	銀 5전									
	黃眞絲		銀 5냥 8전	黃眞絲	1근	銀 7냥 5전							국내 염색	1량	錢 3전
	玉色眞絲		銀 5냥 8전	玉色眞絲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鴉靑眞絲		銀 7냥 5전	鴉靑眞絲	1근	銀 6냥 5전									
	柳靑眞絲		銀 6냥 5전	柳靑眞絲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粉紅眞絲		銀 6냥 5전	粉紅眞絲	1근	銀 6냥 5전									
	天靑眞絲		銀 7냥 5전	天靑眞絲	1량	銀 4전 6푼 2호 반									
	紫의眞絲		銀 7냥 5전	紫의眞絲	1근	銀 7냥 5전									
	冒緞色眞絲		銀 7냥 5전	冒緞色眞絲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油紫眞絲		銀 6냥 5전		1근	銀 7냥 5전									
	朱黃眞絲		銀 6냥 5전	朱黃眞絲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沈香眞絲		銀 6냥 5전	沈香眞絲	1근	銀 6냥 5전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1근	銀 6냥 5전									
					1량	銀 4전 6리 2호 반									
					1근	銀 7냥 5전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1근	銀 7냥 5전									
					1량	銀 4전 6푼 8리 7호 반									
			1근	銀 6냥 5전											
			1량	銀 4전 6리 2호 반											
			1근	銀 8냥											
			1량	銀 5전											
국산 향사	白郷絲	1근	下地木 4필/ 米 1석 9두	白郷絲	1근	下地木 4필/ 質米 1석 9두	국내 염색	1근	錢 6량 錢 6푼 8리 7호 반						
	紅郷絲/ 各色郷絲		7냥 4전 4푼	各色郷絲	1량	折價 4전									
					1근	錢 7냥 4전 2푼									
					1량	錢 4전 6푼 3리									

99) 『육전조례』 권 3, 「호전」 「호조」 「版別房」 「所管貢物」 ‘○郷絲契 白郷絲 兩等 三月 八十二斤 九月 一百三十二斤 每斤價 下地木四匹’

100) 김미성, 2018, 앞의 논문, 20쪽.

101) 『비변사등록』 194책, 순조 3년 윤2월 12일 ; 『비변사등록』 218책, 순조 30년 1월 13일.

뽕잎 생산과 양잠 지역이 분리된 이후, 평안도 대부분 지역에서는 원사 방적이 이루어졌다. 18세기 후반 이후, 일반蠶家에서는 纈車를 활용하여 견사를 방적하기 시작하였다. 다만 뽕잎 생산, 양잠, 견사 방적을 분업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던蠶家에서는 纈車를 도입하여도 견사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 이와 달리 뽕잎 생산, 양잠이 분업화하였던 평안도에서는 紡車를 활용하였다. 紡車는 숙련도에 따라서 견사 방적 능력이 달랐고, 견사와 면사를 모두 뽑아낼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에서는 紡車를 개량하여 활용하면서 품질 좋은 견사를 방적하였고, 강동에서는 면사도 방적하였다.

평안도를 중심으로 견사의 품질이 격상되면서 국산 鄉絲 수요가 증가하였다. 18세기 전반까지 조정에서는 공납품으로 수취하였던 鄉絲 품질이 唐絲와 비교하여 조악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이후, 평안도의 견사 방적 발달은 鄉絲의 품질을 격상하였고, 조정에서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別貢 대상으로서 鄉絲 확보량을 늘려나아갔다. 이 과정에서 鄉絲契가 조직되었고, 이들의 鄉絲 별무를 위한 준가를 책정하였다. 민간에서도 鄉絲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眞絲塵, 床塵, 亂塵 사이의 향사 유통 경쟁이 나타났다.

참고문헌

1. 저서 및 논문

- 고동환, 2015, 『한국 전근대 교통사』, 들녘
- 고동환, 2002, 『조선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 권내현, 2004, 『조선 후기 평안도 재정 연구』, 지식산업사
- 김미성, 2017, 『조선후기 먼주전과 명주 생산·유통구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미혜, 2009, 『조선시대 양잠업 연구』, 지식산업사
- 오수창, 2002, 『조선후기 평안도 사회발전 연구』, 일조각
- 梶村秀樹, 1983,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사계절
- 須川英徳, 1994, 『李朝商業政策史研究』, 東京大學出版會
- 장국중, 1998, 『조선농업사』, 백산자료원
- 홍희유, 2012, 『조선수공업사』, 사회과학출판사
-
- 고동환, 2000, 「1811~12년 평안도 농민전쟁」 『한국사』, 한길사
- 고동환, 2006, 「조선후기 錦江水運과 浦口市場圈」 『역사와 담론』 43
- 고동환, 2008, 「지방에서의 상업과 시장」 『지방사연구입문』, 민속원
- 김미성, 2018, 「조선후기 시전인과 공인의 병존 관계 - 지전·지계, 진사전·진사계 사례를 중심으로 -」 『서울학연구』 73
- 김종혁, 2001, 「『東國文獻備考』(1770)에 나타난 漢江流域의 場市網과 交通網」 『경제사학』 30
- 김태홍, 2022, 「18세기 후반~19세기 초 함경도의 유통망 확장과 장시 발달」 『역사학보』 256
- 남미혜, 2003, 「16세기 사대부 이문건가의 양잠업경영에 대한 일고찰 - 『묵재일기』를 중심으로 -」

로」『조선시대사학보』 26

남미혜, 2008, 「18세기 잠상으로 치산한 전주이씨」『여성과 역사』 9

남미혜, 2009, 「18세기 영조대 양잠정책과 양잠업」『한국문화연구』 16

남미혜, 2016,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治産과 경제활동 - 길쌈을 중심으로-」『동양고전연구』 64

남미혜, 2019, 「방적과정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의 길쌈노동」『사학연구』 133

이헌창, 1997, 「조선후기 충청도지방의 장시망(場市綱)과 그 변동」『경제사학』 18

이헌창, 2007, 「『탁지준절』 제본의 해제와 경제정보」『고문서연구』 31

인정식, 1948, 「朝鮮農業의 經營地帶」『조선경제연보』(『인정식전집』 4권, 1992).

최주희, 2023, 「2000년대 이후 조선후기 재정사 연구의 흐름과 과제」『한국사연구』 200

한상권,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場市發達에 대한 基礎研究 : 慶尙道地方을 중심으로」『한국사론』 7

홍희유, 1962, 「18~19세기 전반기 장시(場市)들에서의 상품 유통의 발전」『력사과학』 5

김태홍, 「18세기 후반, 평안도 시장 통합과 견사의 방적·유통」에 관한 토론문

최주희(덕성여대)

본 발표문은 조선후기 평안도 내륙 장시장을 기반으로 도내 각 고을의 식상·양잠업의 확대와 견사 방적 기술의 고도화 및 유통구조의 확대 등을 추적한 글입니다. 그간의 상업사 연구성과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후기 상업유통구조를 새롭게 밝히고자, 까다로운 상업사 자료를 다방면으로 검토하신 발표자 선생님의 노력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기대와 응원을 담아 발표문을 읽고 떠오른 생각과 문제점 등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청천강 하류 개발과 도내 시장의 통합

1) 청천강 준설 배경과 평안병영

청천강 하류 준설 작업은 평안병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실제 청천강 소착을 추진하고 재원을 마련해, 관리한 기관 역시 평안병영이었습니다. 영조 24년(1748) 홍상한이 청천강 물길이 알아져 병영으로서 안주의 기능이 약해진다고 지적한 시점부터 소착이 진행된 점을 감안한다면, 청천강 준설의 일차적인 목적이 군사 방어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착창은 발표자께서도 밝히셨듯이 19세기까지 안주병영에서 구관하던 창고였으며, 『만기요람』상에도 평안병영의 구관 창고로서 19세 초 5,400여곡식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천강 하류의 개발 역시 병영 인근 주민과 포구 활성화를 통해 수세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평안도 감·병영은 18세기 이후 중앙으로의 재원 이행을 수시로 요구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영에서 포구세 등을 원활히 수취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2장 1절에서는 영조대 중반 청천강 소착에 대한 직접적인 기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다보니 청천강 준설을 조정에서 이처럼 중요하게 논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서북지방 방어체계에서 평안병영이 어떠한 전략 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었는지 설명이 보완된다면 2장의 논지가 보다 설득력 있게 전달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2장 1절의 논지를 이처럼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2장 2절, 3장의 논지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18세기 중반 청천강 하류 개발과 평안도 내륙장시장의 발달, 견사 유통구조 확대가 각각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수 있지만, 청천강 준설이 내륙장시장의 발달을 유인하고, 이것이 견사 방적 기술을 향상시켜서 서울로까지 향사 판매를 촉진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장절 간에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합니다.

다.

2) 청천강 준설과 육로 회복의 문제

다시 각론으로 돌아가서, <지도 1>에 풍교로의 위치가 어느 켠이었을지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각주에 소개하신 『안주군읍지』는 19세기 후반 자료인데, 당시까지 풍천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18세 중반에 시행된 방축 작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8쪽에, “청천강 하류의 물길이 약화하면서 안주-적현-광통원-가산으로 이어지는 의주대로 대신, 안주에서 물이 얇은 疏鑿 지점을 건너고 楓橋를 건너 광통원에 이르는 길[楓橋路]이 발달할 수 있었다.” 하였는데, 사료의 맥락은 배가 다닐 수 없게 되어 어쩔 수 없이 풍교로를 따라 돌아가야하기 때문에 역참의 인마가 고단하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관련하여 42번 각주에서, 청천강 소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물길이 열어지고 육운이 활성화되어 지선도로[소착강변창-수현-영변]가 대로보다 발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진단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영변으로 향하는 간선로의 발달이 의주대로에 속한 안주-가산로를 위협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설명이 되어야 할 듯합니다. 소착강변창-영변의 지선도로는 안주-가산과 방향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울-원산간 도로 중 조선후기에 새로 개발된 삼방 간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설령 소착강변창에서 영변으로 향하는 지선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의주대로의 군사, 외교적 중요성은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두 대로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지 의문이 듭니다.

3) 도내 시장의 통합의 성격

8쪽 첫 문장에서, 청천강 하류와 안주 개발은 평안도 생활권 경계지역의 물류를 확대함으로써 거점상권이 형성되는 배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표자께서 분석하신 평안도 내륙장시망을 살펴보면, 평안도 大場인 진두장은 청천강 이북인 박천에 위치하고 있어 청천강 하류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평안도 4개 유통권역은 『택리지』의 서술을 바탕으로 구분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지도 4>와 같이 선형 유통망으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대로 상에 위치한 大場은 대체로 30리 간격으로 배치된다든가, 한 고을 안에 장시 개시일을 달리해야 한다면, 한 명의 행상이 5일 동안 3번 정도 각각 다른 장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원칙들이 <지도 4>에도 적용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중요한 점은 장시 개시일과 교통로를 바탕으로 장시망을 이처럼 구현했다 하더라도 <지도 4>의 형태를 시장통합의 결과로 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발표자께서는 진두장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평안도의 내륙시장이 통합되어 가는 것으로 설명하셨지만, 진두장이 4개권역의 물류집산지인 고차시장으로 기능했는지에 대한 실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장통합의 문제는 고차중심지와 저차중심지 간의 상인, 물류의 이동을 넘어 시장가격의 유사성까지 확인되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평안도 장시장이 진두장을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평안도 장시의 통합수준은 특정 행상이 물품을 교역할 수 있는 장시수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2. 植桑-養蠶 분리와 견사 방적·유통

1) 뽕잎의 상품화와 유통 사례

3장에서는 조선후기 뽕나무를 재배해 뽕잎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기술정보가 농서에 자세히 수록되고, 각도에 식상(뽕나무 재배)-양잠 지역이 늘어나는 양상까지 자세히 검토하셨습니다. 다만, 22쪽에 식상과 양잠을 병행하는 지역과 분리되는 지역을 구분해 설명하셨는데, 뽕잎 생산이 기록 상에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상-양잠이 분리, 분업화된 지역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이 역시 의문입니다. 식상을 하지 않고 양잠만 한 곳은 뽕잎을 다른 지역에서 구매해 왔다는 의미인데, 『임원경제지』 「예규지」 팔역장시조의 평안도 매매 물품을 살펴보면 뽕잎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약 발표자의 말씀대로 뽕잎의 재배와 장시 판매가 일반화되었다면, 뽕잎의 내륙 유통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 농가에서 양잠을 위해 뽕잎을 따로 장시에서 구매해 양잠에 투자한 기사들이 있다면 사례를 소개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18세기 중반 이후 평안도 견사의 유통 배경

방적 상의 기술진보[纈車, 紡車의 활용]로 평안도에서는 식상-방적의 분리가 가능해졌고, 국산 향사의 유통이 확대되었다는 설명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다소 부족합니다. 다산의 언급에서처럼 소차를 활용해 방적을 하더라도 애초에 양잠 환경이 좋지 못해 좋은 실을 뽑지 못한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방적 기술에 앞서 양잠을 잘 해야 하는 문제가 남는데, 평안도의 경우도 양잠에 대한 노하우보다는 방적 기술에 대한 차별성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도에서 식상-방적의 분리, 생산-유통과정에서의 노하우가 타도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면 설명이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